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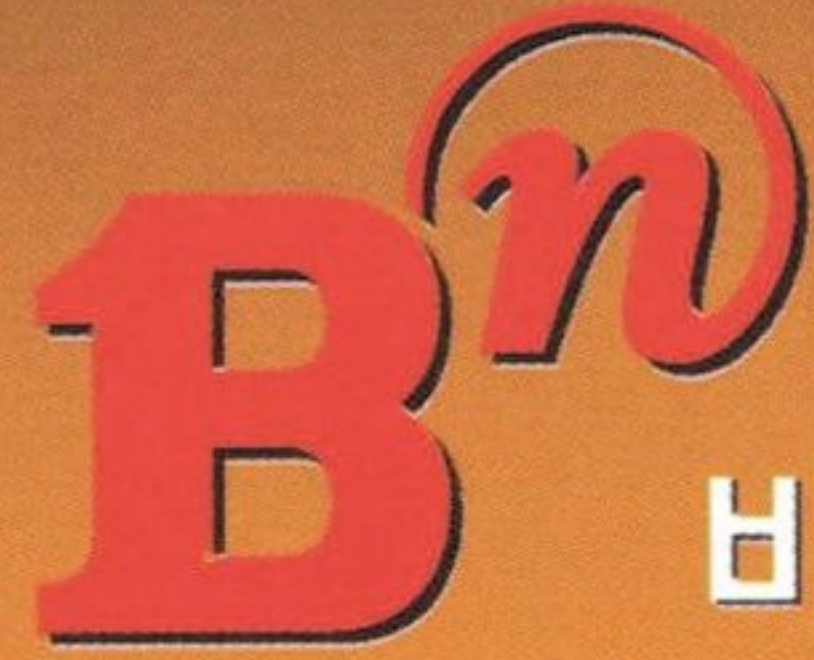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8 Vol. 236





비엔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4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11. 9. 8(목) pm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VA!
Made in Busan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주최 |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Bⁿ 비엔그룹 | 후원 | KNN 문화재단 Bⁿ 대선주조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SO Members 악장 임병원 제1바이올린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황지원(수석), 김희진(부수석), 서영희, 이은실, 손소영, 지희원, 임나리, 박완서, 김상희, 정다혜, 김푸름, 이희진, 반예은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김언정(수석), 조영숙(부수석), 배연주, 손주연, 김신실, 정희경, 진선미, 전지원, 채지원, 이에나, 김설화, 이리경, 고은아 비올라 박주연(수석), 정지윤(부수석), 김상철, 권윤희, 손주연, 한동민, 이승연, 이영화, 배소현, 이현원 첼로 김판수(수석), 최지양, 하유나, 박준현, 김혜은, 정유나, 김유미, 강진희, 고정임, 이연주, 조선일, 손미리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박경호(부수석), 박지선, 김선경, 이현정, 김덕경, 기타야마 플루트 김동욱(수석), 채성경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부수석)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이효주 바수운 윤태준(수석), 김동주 호오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이민정, 이유경 트럼펫 주 현(수석), 전상윤, 최수용 트럼본 이용희(수석), 유상미, 주성혁 튜바 김기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부수석), 김보배, 김효원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하프 이은혜(객원수석) 총무 이용희 사무실장 문지은 악보 손민지, 임종필 악기 주성혁, 김효원 무대 전상윤, 최수용

Program

- 베를리오즈 H.Berlioz 이탈리아의 헤롤드 작품16 Harold en Italie (Harold in Italy) Op.16
- 롬버그 S.Romberg '황태자의 첫사랑' 중 <마시자 - 드링크 송> <Drink, Drink, Drink-Drinking Song> from 'The Student Prince'
- 라벨 M.Ravel 볼레로 外 수곡 Bolero



비올라 김가영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유형광



소프라노 김현애



테너 홍지형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 문의 | KNN 1577-7600 www.knn.co.kr | 예매처 | ^{Shopper's Heaven} INTERPARK 1544-1555 | 티켓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Bⁿ
BIP
비아이피(주)

Bⁿ
STELA
비엔스탈라(주)

Bⁿ
COSMO
(주)코스모

Bⁿ
SNB
에스앤비(주)

Bⁿ
BIPEX
(주)바이펙스

Bⁿ
FURNITURE
비엔가구(주)

Bⁿ
BISCO
(주)비스코
(주)비스코 정공

Bⁿ
AISCO
아이스코(주)
아이스코 정공(주)

Bⁿ
STEEL
비엔철강(주)

Bⁿ
BIP-WEIHAI
부일방화판재
유한공사(중국)

Bⁿ
BIP-USA
BIP International Inc.

Bⁿ
BIP-Singapore
BIP Industries Pte. Ltd.

Bⁿ
CHEMICAL
비엔케미칼(주)

Bⁿ
DAESUN
대선주조(주)

BK
INVESTMENT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Inside of Richard...

그가 건네는 영혼의 위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의
음악으로 하는 기도!

음악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쓸쓸함을 위로해주는 그가 6번째 솔로 음반 <기도>와 함께
더욱더 깊어진 음악세계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독일이 자랑하는 명문 실내악단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
더욱더 풍성하고 고풍스러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 기도

WITH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Richard Yongjae O'Neill <Preghiera> with Wurtemberg Chamber Orchestra

5 OCTOBER²⁰¹¹, 7:30^{PM}

• 2011년 10월 5일(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PROGRAM

부르흐 | 콜 니드라이 [비올라 & 오케스트라]
레스피기 |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 제3모음곡 [현악 오케스트라]
로제티 | 협주곡 G장조 [비올라 & 오케스트라]
시벨리우스 | 즉흥곡 [현악 오케스트라]
브리튼 | 눈물 [비올라 & 오케스트라]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Bb 장조 6번 BWV 1051 [비올라 & 오케스트라] 외

•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입장권 |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 A석 8만원 / B석 6만원 / C석 4만원

• 8월 말일까지 조기 예매 시 20% 할인합니다. 전화 예매에 한함. (단 C석은 제외) | 예매처  인터파크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 음악회문의 및 단체예약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051 740 5833 www.busanarts.com

야마하 그랜드, 업라이트 피아노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그랜드 피아노 대여. 조율. 운반

■ 디지털피아노



▶ P-95



▶ YDP-141



▶ YDP-161



▶ YDP-V240

■ 야마하색소폰



▶ YAS-275



▶ YAS-475



▶ YTS-475



▶ YTR-8335

금난새와 함께하는

금난새의 내친구



지휘·해설 금난새



오보에 이희정



바이올린 장은영

PROGRAM

- 로시니 G.Rossini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Overture to "L'italiana in Algeri"
- 치마로자 D.Cimarosa 오보에 협주곡
Oboe Concerto
- 비발디 A.Vivaldi 「사계」 중 "여름"
'L'estate' from "Le quattro stagioni"
- 스메타나 B.Smetana 「나의 조국」 중 "몰다우"
'Vltava' from "Má vlast"

2011 8 19 | 금 | 오전 11시 |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051)607-3111~4 (부산시향) / 051)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20% 할인)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1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



지휘 _ 이동신 경기중계 _ 이혁우 & 윤재평 율동 _ 경성대 유아교육과

2011. 8. 24 수, 25 목
 매일 오전 11시,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스티커로 붙이는
 나만의 오케스트라 꾸미기

Program

- 악기나라의 가족을 만나 보아요~
- 다함께 응원해요, 악기선수들!
- 악기나라 올림픽 개막식
Olympic Fanfare and Theme - John Williams
- 악기나라 올림픽 경기 대회
Orchestra Games - Gregory Smith
- 함께 울동하며 노래해요~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2,000원
 단체(30명 이상) 1,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C/O/N/T/E/N/T/S

08 커버스토리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10 프리뷰

18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20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㉔

물에서 왔으니 물로 돌아가는 꽃, 수련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허구 아니면 진실? 리우즈이(劉志一)의 작품세계 | 박건해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㉔

비투스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리스트 ㉔

끝임없이 탐구하는 영원한 방랑자, 오해와 진실 | 황윤하

30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㉔

신선도(神仙圖) 중의 선동취적(仙童吹笛) | 변광석

32 그곳에 가면

재미 · 감동 · 꿈을 주는 울산과학관

34 우리는 문화가족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

36 리뷰

생의 시작에서 끝을 한자리에서 마주하다-부산시립교향악단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박진홍

지역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야구 프로그램 | 남인용

38 프로그램 가이드

55 나의 애청음반

클래식 음악과의 운명적 만남

번스타인의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 김희성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8월호 통권 236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7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Musical Globalization- 음악의 세계화

8월 30일-9월 3일 화-토요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중극장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음악의 세계화’를 주제로 8월 30일부터 화려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음악고문으로 참가하며 화제를 모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메인 연주회와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린지콘서트로 부산 음악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11년 주제 ‘음악의 세계화’는 음악의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인의 공통언어인 음악으로 하나 되고자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의지를 담아 세계화된 음악을 선곡, 메인 주제인 ‘음악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여러 나라 연주자와 음악들이 매회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감미로운 음의 향연을 펼친다.

올해 개막무대는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장식한다. 1975년 순사쿠 츠츠미 지휘자와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창단한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4년 마이니치 신문사와 NHK가 후원하는 일본음악콩쿠르에서 오케스트라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독일음악과 프랑스음악에 중심을 둔 공연시리즈로 일본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개막무대에서는 프랑코 페라라, 세르주 첼리비다케, 즈데네크

코슬러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로 부터 지휘자 수업을 받고 브장송 콩쿠르(1975)와 지노 마리누지 콩쿠르(1976) 등에서 두각을 보인 히코타로 야자키가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첼리스트 에드워드 아론,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협연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뉴욕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에드워드 아론은 격조 높은 음악성과 열정적인 공연, 창조적인 프로그램 편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얻고 있는 첼리스트이다. MIK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챔버 오케스트라 수석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진은 ‘완벽한 테크닉과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인상적이며 호소력 있는 연주’를 펼쳐왔다.

축제 둘째날인 8월 31일은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과 김덕수, 안숙선의 협연으로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인 김덕수는 신명 넘치는 무대 활동으로 조선일보사가 선정한 ‘해방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은관문화훈장과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명인이다. 안숙선 명창은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꼽고 단아한 용모, 매력이 넘치는 성음, 정확한 가사 전달과 재치 넘치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국내외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아왔다.

9월 1일은 강동석(Vn), 에드워드 아론(Vc), 플로랑 에오(Cl), 제레미 뎅크(Pf)와 신상준(Vn), 김복수(Vn), 김가영(Va), 양육진(Vc)이 함께 실내악의 밤을 선사한다. 툴롱국제음악경연대회(Toulon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에서 1위를 차지한 플로랑 에오는 프랑스 전통 클라리넷 학파의 후계자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Michel Arrignon 아래 조교수



도쿄시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CNR de Rueil-Malmaison의 클라리넷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 바드 음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Jeremy Denk)는 일찌감치 에이버리 피셔 그랜트와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오디션에서 독주자, 콘서트 솔리스트, 실내악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어왔다.

9월 2일은 클라리넷과 타악기를 위한 ‘음악과 시가 있는 재담’ 무대로 호평을 받아온 플로랑 에오와 타악주자 브뤼노 데무이에르가 ‘절세악사와의 가족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를 선보인다. 폐막연주는 9월 3일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제레미 덴크의 협연으로 마련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슈베르트 교향곡 제 9번 ‘그레이트’로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막을 내린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린지콘서트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내 야외공연 및 지하철 역사 내에서 펼쳐진다. 올해 프린지콘서트는 서울, 광주, 창원, 진주, 울산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 프린지콘서트의 열기가 뜨겁다. 참가신청을 낸 58개 연주단 중 심의를 통해 43개 팀이 선발되어, 27일 오후 1:00 부산여자대학 다도박물관 공연을 시작으로 광복로 문화거리, 부산역광장, 온천천, 민락 수변공원, 지하철역에서 축제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켜 준다.

- 입장권 |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9월 3일 폐막연주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초, 중, 고등학생 50%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조기예매(7/31까지 예매자에 한해) 50%할인, 마루 패키지(4회 공연) 50%할인(R석 160,000원 → 80,000원, S석 120,000원 → 60,000원, A석 80,000원 → 40,000원)

-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2) ※폐막연주회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음악고문 강동석



김가영



김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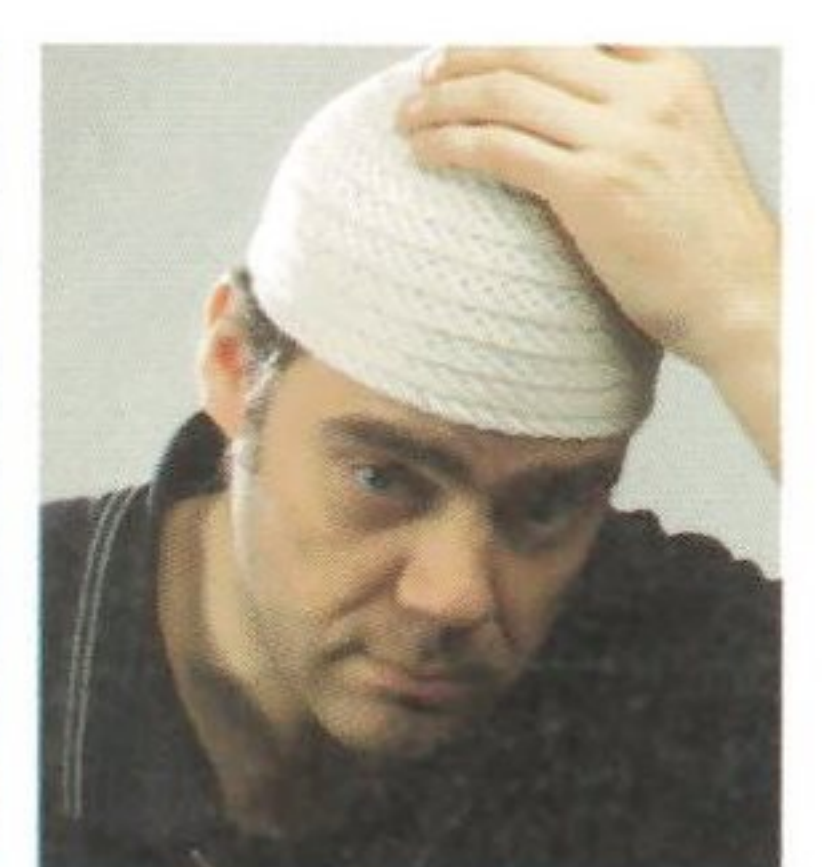
김복수



김상진



리 신차오



브루노 데무이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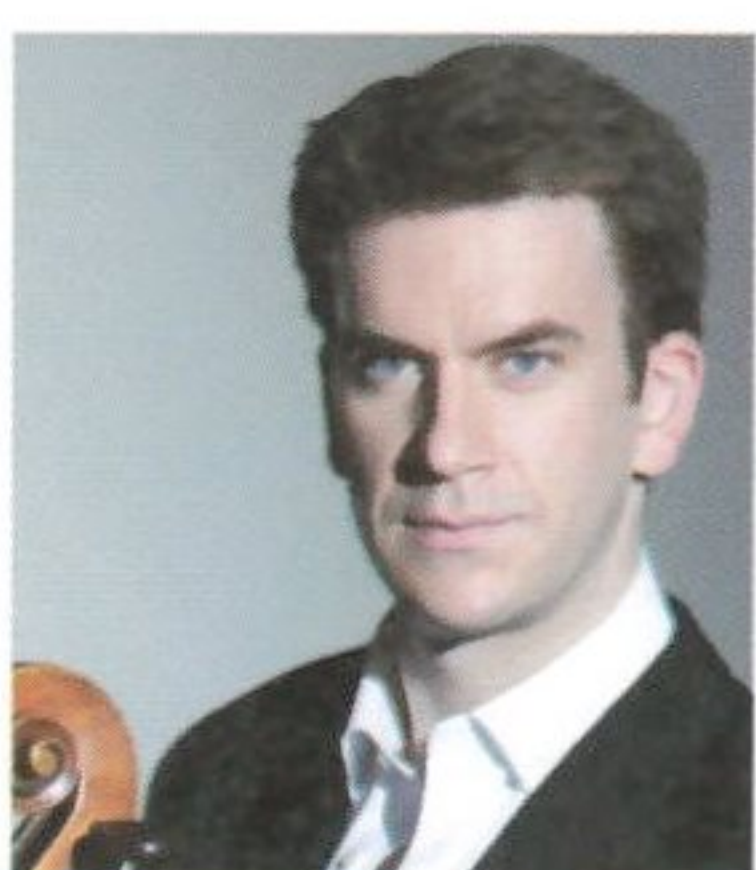
신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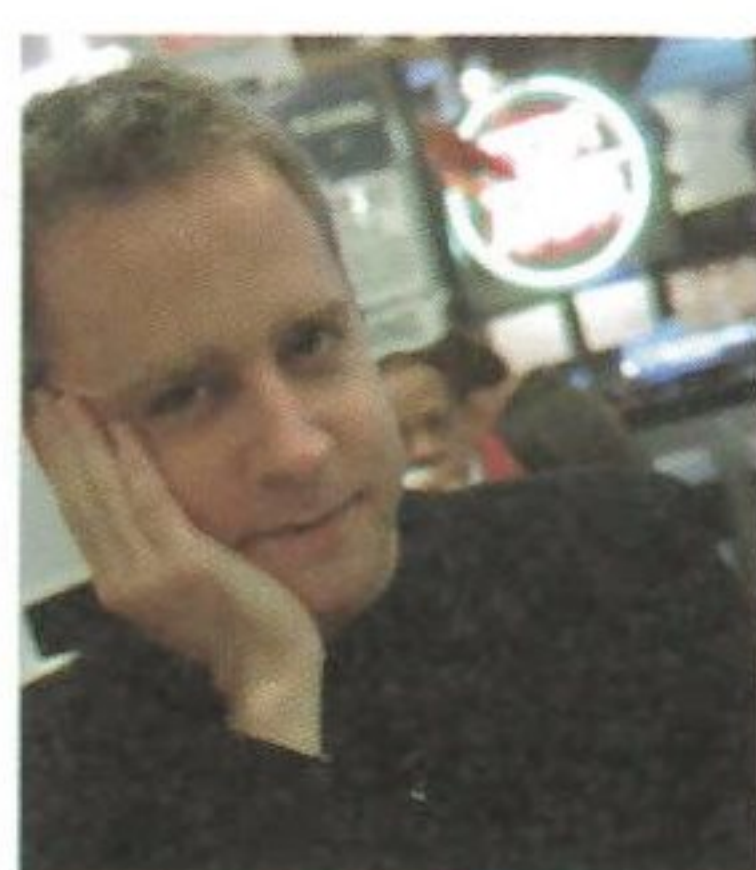
안숙선



양욱진



에드워드 아론



제레미 덴크



플로랑 에오



히코타로 아자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와 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김철호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1년 무대가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영화와 드라마의 OST, 국악과 서양악기와의 만남으로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여행을 펼친다. 올해는 특히 영화와 드라마의 명장면을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구성, 영화와 드라마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가 선택한 화제의 영화는 서편제, 태백산맥, 축제, 은행나무침대, 왕의 남자, 취화선, 춘향전. 드라마로는 동이, 대장금, 삼포가는 길, 추노, 이산을 만날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의 OST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담은 재즈 피아노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기타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울림, 설장구 협주곡으로 파워풀한 무대를 열어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재즈피아니스트 황현숙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풍류전통예술원 대표 박종환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재즈피아니스트 황현숙은 황현숙 Pop & Jazz Trio, 황현숙 Pop & Jazz Concerto 단장, 서울재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해왔다. 황현숙은 이번 무대에서 재일교포 작곡가 양방언이 작곡한 ‘프론티어’와 ‘Prince of Jeju’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프론티어’는 2002 부산아시아대회의 공식음악으로 태평소, 장구 등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이다. ‘Prince of Jeju’는 태평소의 선율을 시작으로 제주바다의 넓고 시원한 풍경을 표



현했다. 원곡에서의 영국 리코더 소리를 한국의 소금을 사용하여 잔잔한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다.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09년 유니버설 뮤직에서 음반 '바람이 가르쳐준 노래'를 출판해 많은 화제를 모은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은 이병욱 곡 '민요주제에 의한 기타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울림'을 들려준다. 작은 오케스트라에 비유될 정도로 다채로운 면과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기타와 국악관현악과의 어울림이 기대되는 이곡은 Guitar Solo Introduction에서 시작되어 한오백년, 경기벚노래,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우리 민요와 어우러지며 한국의 평온한 정경, 우리의 신명을 한껏 자아냄은 물론 시나위적인 즉흥적 기타의 애드립과 장구의 어울림으로 즐거움을 안겨준다.

팔빙수와 같이 시원한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부산 초연 무대로 장식한다. 설장구협주곡 '소나기' 협주곡을 들려줄 박종환은 김석출 선생에게 동해안 별신굿을, 김한순 선생에게 부산농악을 사사하고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6호 부산농악 예능보유자 후보, 중요무형문화재 제 82-가호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로 우리 가락의 맥을 잇고 있다. 현재 김병섭류 설장구보존회 부산지회장, 풍류전통예술원 대표로 있는 박종환은 정읍농악 경연대회 지도자상, 부산민속예술축제 개인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종환과 이정현, 권용우, 최선희, 흥병규가 연주하는 '소나기'는 하늘을 뚫을 듯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장구 소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듬 악기인 장구의 장단에 다양한 현대적 어법이 가미, 때로는 흥겹고 역동적인 리듬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작곡되었다.

- 입장권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재즈피아니스트 황현숙



풍류전통예술원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금난새



오보이스트 이희정



바이올리스트 장은영

쉽고 재미있는 청소년음악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1년 무대가 8월 19일 오전 11:00, 오후 4:00 두 차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렵게 느껴온 음악회에 해설을 곁들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음악회 장르를 개척한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도서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포스코 로비 콘서트',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뮤직 인 잉글리쉬'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선보여온 금난새는 산업현장과 학교, 군부대와 정부기관, 도서벽지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꾸준히 펼치며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금난새는 1998년부터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고 2008년에는 세계 20여 개국 90명의 연주자와 함께 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 국내 5대 도시를 순회하며 음악을 통해 세계를 향한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경기도립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역임한 금난새는 2010년 10월부터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 취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클래식은 내친구' 무대를 위해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수석 단원 이희정과 장은영이 부산의 청소년들과 만난다. 2002년 유라시안 필하모닉에 입단하여 연 100여 회에 가까운 연주활동을 통해 기량을 길러온 오보이스트 이희정은 이번 무대에서 일본 유명 드라마 '노다메 칸다빌레'를 통해 더욱 친근해진 치마로자 '오보에 협주곡'을 들려준다.

UK Concerto Competition과 서울 심포니 콩쿠르에서 각각 1등을 거머쥐며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은 유라시안 필하모닉 바이올린 수석 장은영은 렉싱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세계 정상급의 바이올리니스트 길 샬함과 함께 연주하고, 나일스 스트링 콰르텟 멤버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장은영은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들려준다.

협연자와 함께 하는 두 곡의 협주곡 외 로시니 오페라 부파의 한 작품인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연인' 서곡, 스메타나 곡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는 '나의 조국' 중 '몰다우'로 풍성한 클래식의 성찬을 즐길 수 있다.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1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정진희



오숙례



윤은하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자신만의 춤언어와 몸짓으로 직접 빚어내는 개성 넘치는 창작무대 2011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8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정진희와 오숙례, 윤은하가 정기공연, 특별공연에서 선보이지 못한 자신만의 춤 언어로 부산무용애호가들과 소통한다.

부수석단원 정진희는 여러 모양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마음의 갈등을 틀에 비유한 ‘틀II’를 무

대에 올린다. 정진희 자신이 대본, 연출, 안무를 맡은 ‘틀II’는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 생겨난 우리 인생의 틀을 춤언어로 이야기한다. 안무자 정진희는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외 제 14회 부산아시아게임 개·폐회식 행사, 세계사회체육대회 개회식 공연 보조안무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틀II’를 위해 안무자 정진희 외 오수연, 이현정, 김경미, 김시현이 특별출연, 내면의 춤세계를 함께 풀어낸다.

상임단원 오숙례는 진도 씻김굿의 예술성 표현에 중점을 둔 ‘몸풀이 몸굿’을 무대에 올린다. ‘망자여 저 쓰라린 기억들. 멀고 먼 저 승길에 터덕거리는 것을 차라리 춤을 추게나’며 망자를 위로하는 ‘몸풀이 몸굿’은 전통적인 굿의 형태와는 달리 춤이나 음악에서 예술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예술성 표현에 중점을 두고 풀어낸 작품이다. 안무자 오숙례는 그동안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전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이어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대본 및 음악감독을 맡은 박준식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 전수자로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윤은하는 우리춤에 탭댄스를 접목시킨 ‘다른 길이 있다’로 한여름 밤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대를 향해 인도하고, 변함없이 그대에게로 이끌어주는 발바닥을 사랑의 중심으로 표현한 안무자 윤은하는 발바닥과 한국춤의 발디딤, 서양춤의 탭댄스를 연결, 보여지는 방법은 다르지만 간절한 발바닥 사랑을 창작무용으로 승화시켰다. ‘다른 길이 있다’는 안무자 윤은하와 이현주, 이상민, 김도은, 장영진, 박미나가 출연한다.

• 무용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입장권 |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 2011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합창으로 하나 되는 여름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월 25일 목요일 오후 8: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합창으로 하나 되는 여름밤’이 8월 23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001년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의 문화 예술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시작된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는 매년 여름 3개 시·도의 연합합창단이 들려주는 웅장한 앙상블과 감미로운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지휘자의 지휘로 우리에게 친숙한 주요 합창음악을 발췌, 감미롭고 때로는 웅장한 한여름 밤 합창 축제를 연다.

‘합창으로 하나되는 여름밤’의 2011년 첫 무대는 3개 시·도 연합여성합창단의 노래로 막이 오른다. 여성연합합창으로 듣는 알렐루야(D. 해밀턴 곡), 코랄, 헤이 주드(비틀즈 곡), 귀천(이현철 곡), 칭-칭-아-리아(D.매덕스) 등에 이어 마련되는 무대는 연합남성합창단의 무대. 연합남성합창은 3개 시·도 합창단 교류음악회가 시작되면서 3개 시·도의 남성합창단 단원들만으로 연합합창단을 구성, ‘한여름밤 꿈의 남성합창’이라는 타이틀로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선사한 바 있어 3개 시·도 교류음악회에서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연합남성합창에는 평화를 주소서(J.그레고리오), Good Night, Ladies!, 성자들의 행진, 밀려오는 파도소리에(Arr. 최석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등 귀에 익은 웅장한 합창곡들을 들려준다.

150명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마지막 연합합창에서는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에 가사를 부친 ‘나는 믿네’와 C. 구노의 ‘Sanctus’, 영화 ‘Mission’ 중의 ‘On Earth as it is in Heaven’, E. 휘태커의 ‘폭우’를 들려준다.

그외 2011년의 3개 시·도 교류음악회에서는 전체 연합합창에

앞서서 각 합창단의 개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부산에서는 김해시립합창단이, 울산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경남에서는 울산시립합창단의 앙상블팀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베이스 유형광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호른주자 백상홍,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 김나영,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단원 이준희, 인코리안 오케스트라 단원 이성은과 뉴프라이모케스트라,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KBS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병현이 부산, 경남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베이스 유형광은 부산대학교와 쾰른국립음대, 동대학 konzertexamen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오페라극장 전속합창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입장권 |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1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 악기나라 올림픽

8월 24일-25일 수-목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7월 첫선을 보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이야기'의 2011년 종합편이 '악기나라 올림픽'으로 새롭게 마련된다.

악기가족이야기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구연동화와 연주, 악기 체험을 함께 구성한 어린이 눈높이 음악회로 어린이음악회에 목말라하던 어머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은 지난해 '악기가족, 다 모여라'로 바이올린가족, 나팔가족, 피리가족, 타악기가족 등 전체 악기가족이 참가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준 바 있다. 올해는 새로운 형식의 악기가족 이야기인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을 펼친다.

'악기나라 올림픽'은 '악기나라의 가족을 만나보아요', '다함께 응원해요, 악기 선수들!', '악기나라 올림픽 개막식', '악기나라 올림픽 경기 대회', '함께 율동하며 노래해요'로 스토리를 구성, 재미있는 음악회의 새로운 장을 연다.

'악기나라 올림픽 개막식'은 LA 올림픽을 위해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후 매회 올림픽 시상식에서 연주되고 있는 '올림픽 팡파르와 주제(Olympic Fanfare and Theme)'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악기나라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는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특성을 스포츠 형식을 빌어 설명하는 작곡가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Orchestra Games)'을 들려준다. 올림픽 경기를 눈이 아닌 악기들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색다른 무대로,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혁우, 연극배우 윤재평이 경기 진행을 맡아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가족을 소개한다.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경기중계/이혁우, 윤재평 • 율동/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 입장권 | 균일 2,000원(단체 30인 이상 1,000원)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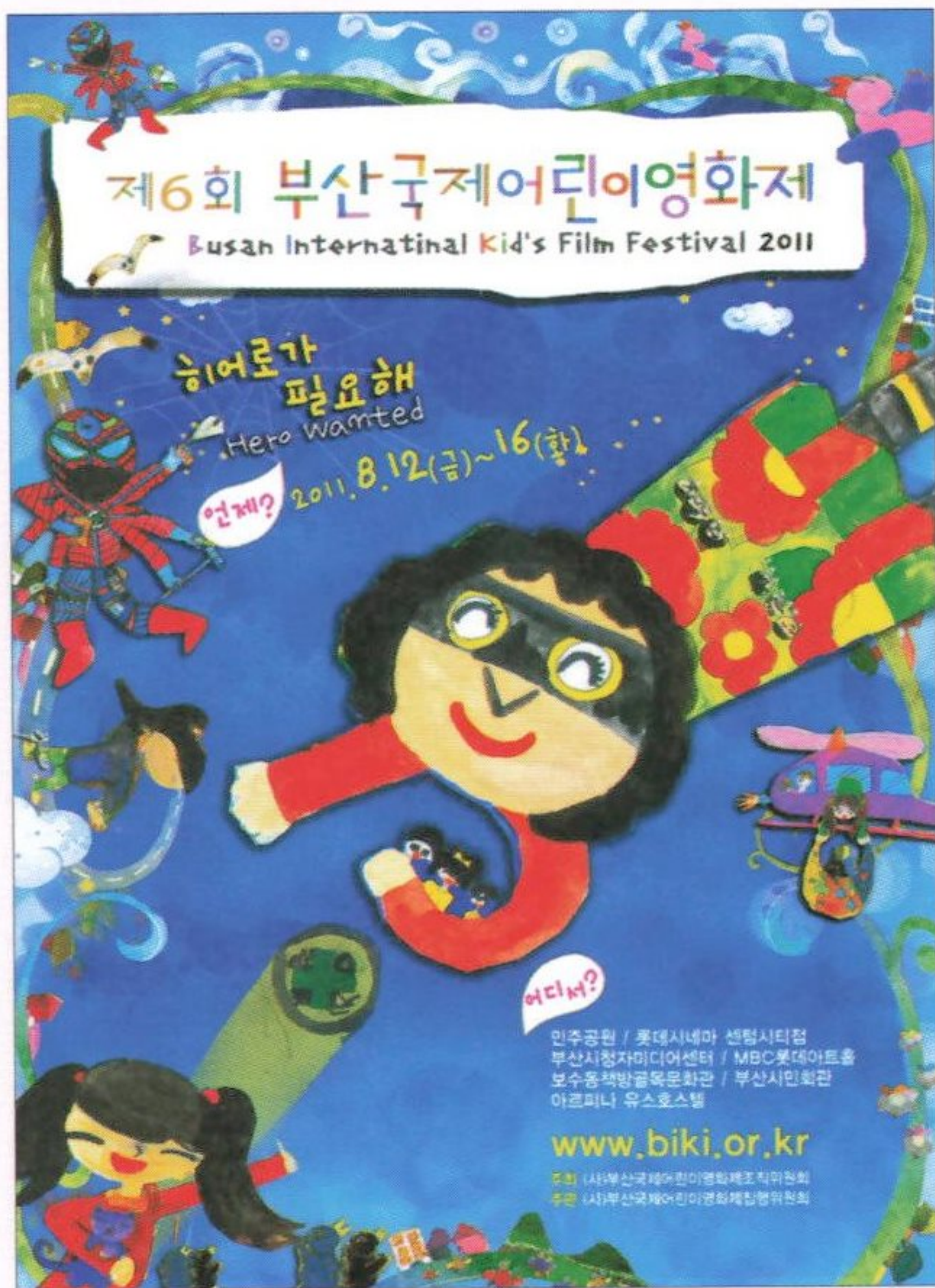


참여, 나눔, 즐거움

제 6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8월 12일-16일 금요일-수요일

민주공원,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MBC롯데아트홀,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등



제 6회 어린이영화제 공식 포스터

어린이가 직접 만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8월 12일 여섯 번째 영화의 바다로 출항한다.

올해 제 6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히어로가 필요해!’ 라는 주제로 총 21개국 142편의 작품으로 신나는 영화세상을 펼친다. ‘히어로가 필요해!’ 에서는 영화작품을 통해 감동과 희망, 꿈을 주는 기분 좋은 ‘히어로’, ‘일상속의 히어로’ 등 다양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개막작으로는 자식에 대한 엄마 까투리의 애뜻한 사랑을 담은 3D 단편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한국)’와 21세기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한 아동 노예제 이야기 ‘Kavi(미국, 인도)’가, 폐막작으로는 순수했던 시절의 소중한 꿈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소중한 날의 꿈(한국)’이 선정되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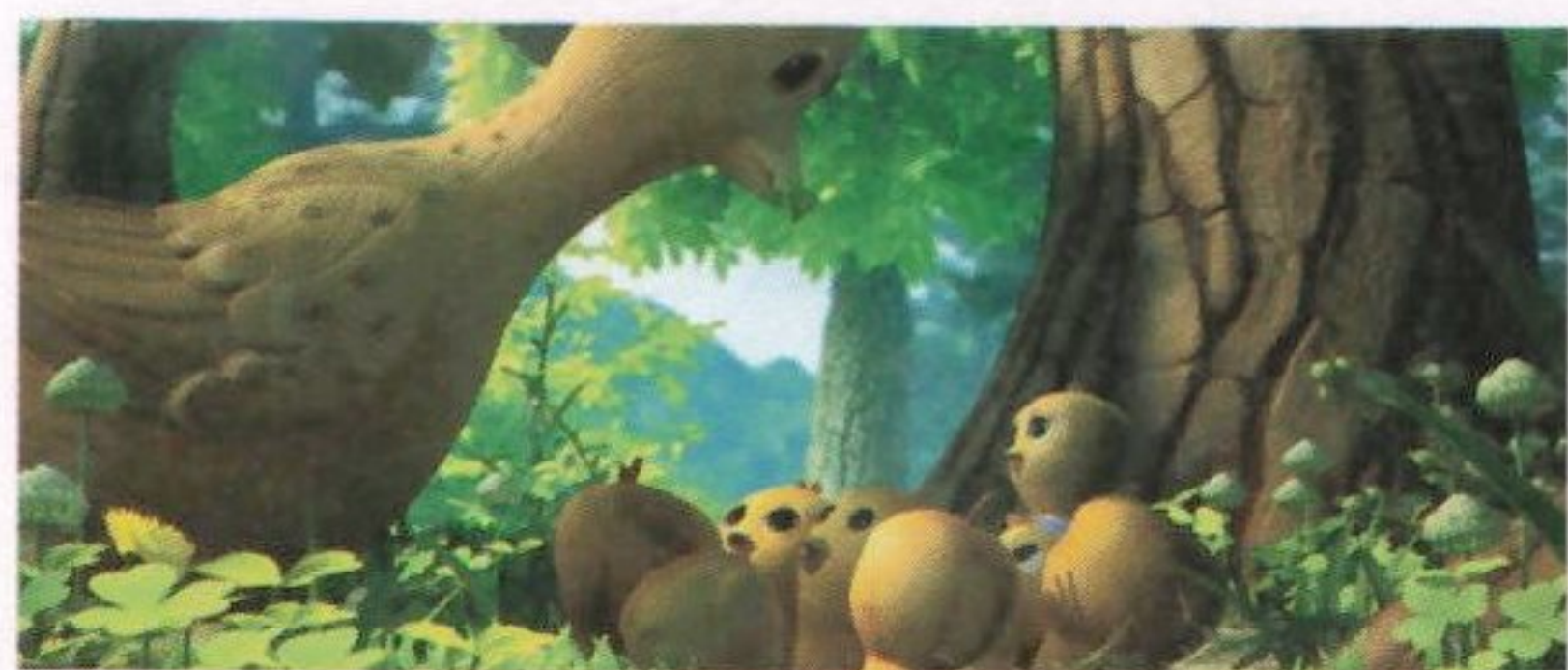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들을 새로운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긴 영화초청작을 선보이는 ‘큰나래 모임’,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국내외 짧은 영화 초청작을 선보이는 ‘작은나래 모임’,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 ‘히어로가 필요해’에 어울리는

초청작 ‘특별전1(히어로가 필요해)’, 어린이영화의 천국 이란의 ‘푸란 데라크산테 감독 작품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 외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비키 바다 영화상영, 애니메이션 음악회, 휴가철 한마당, 필름&편, 비키 영화놀이터, BiKi 영화 캠프, 어린이 영화제작 세미나 등 시민과 어린이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제영화센터(CIFEJ)’에서 개최하는 국제 경쟁 어린이영화 축제인 ‘글로벌 키즈포키즈 축제’를 아시아 처음으로 유치하여 영화제 기간인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비키+아시아 키즈포키즈 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한다. ‘글로벌 키즈포키즈 축제’는 ‘Kids for Kids’라는 이름 그대로, 어린이 제작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경쟁 어린이영화 축제이다. 영국, 이란, 발칸반도, 아프리카, 북유럽 & 발트해 등 세계 여러 국가나 대륙에서 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키즈포키즈 축제’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영상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류해왔다. 지난해 11월 비키의 ‘레디~액션!’ 작품이 어린이 제작영화 경쟁부문에서 2위를 수상했던 세르비아의 ‘제 5회 발칸 플러스 키즈포키즈 축제’가 바로 키즈포키즈 축제의 발칸반도 본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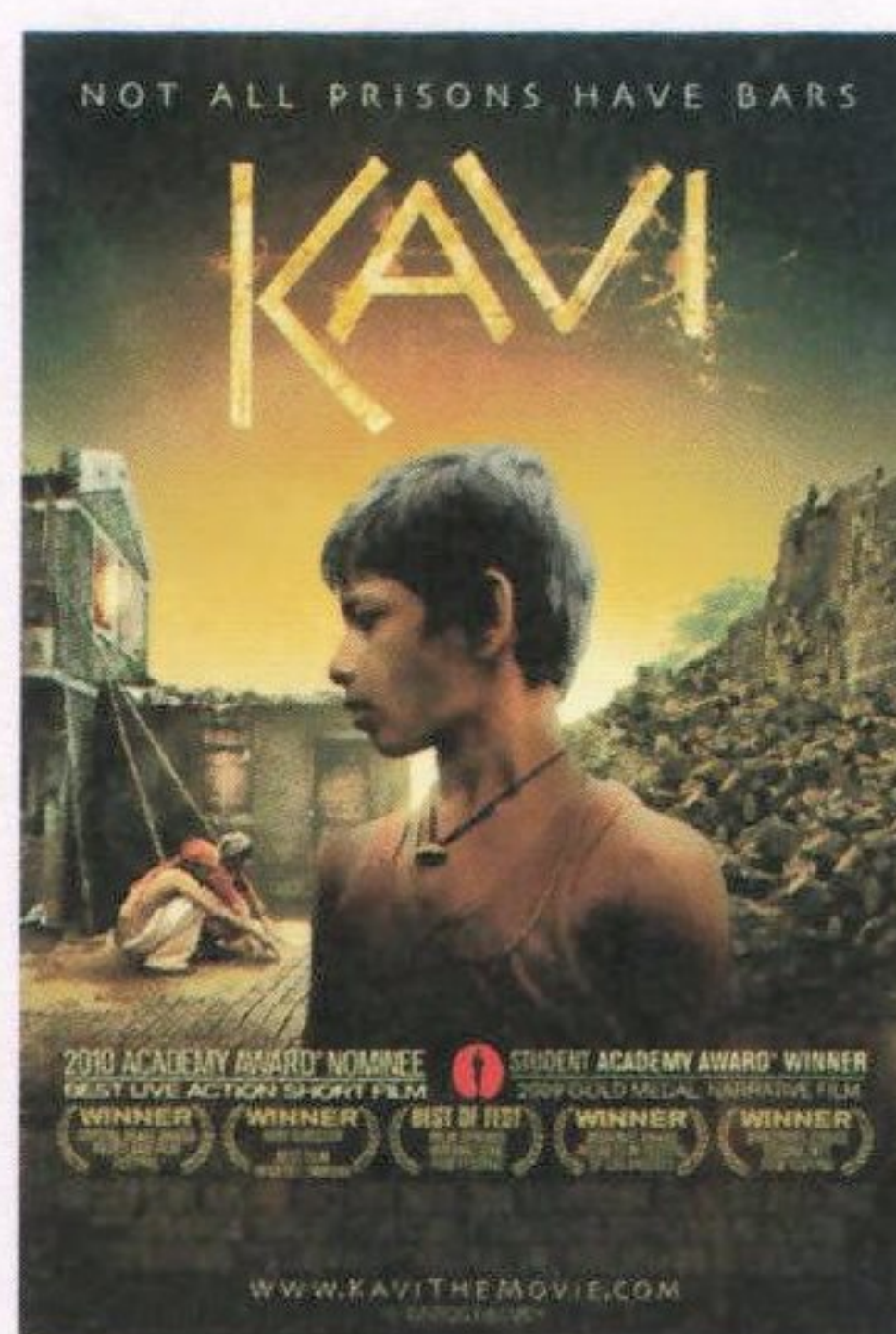
‘비키+아시아 키즈포키즈 축제’는 6~12세 어린이들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레디액션’과 13~18세 청소년 제작 영화인 ‘Action 1318’, 19~24세 청소년 제작 영화인 ‘Action 1924’와 영국, 발칸반도, 이란, 아프리카 등 국가 및 대륙 글로벌 키즈포키즈 축제의 우수 수상작을 만날 수 있는 ‘글로벌 키즈포키즈 파노라마(Global KFKF Panorama)’ 등의 섹션으로 9개국 89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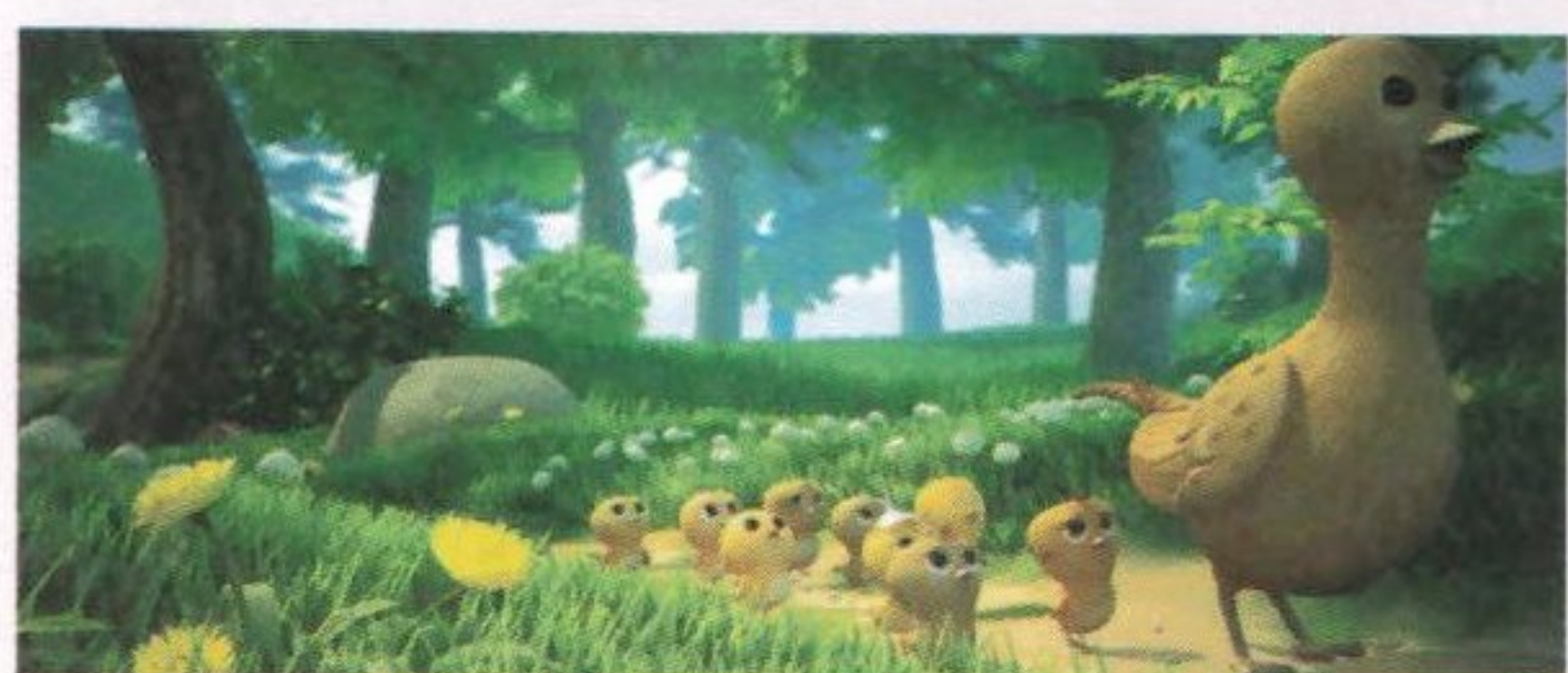
엄마 까투리



카비



소중한 날의 꿈



주요일정

개막식_8월 12일(금) 15:00 MBC롯데아트홀

식전 축하공연(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및 개막식, 제 6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포스터공모전 시상식, 개막작 상영(엄마 까투리/ 카비)

2011 비키+아시아 키즈포키즈 개막식_8월 14(일) 11:00 민주공원 작은방

폐막식_8월 16일(화) 15:00 민주공원 큰방

식전 축하공연(노리단) 및 폐막식, 폐막작 상영(소중한 날의 꿈), 아시아 키즈포키즈 축제 경쟁부문 수상작 시상식

부대행사

영상나눔_7월 25일(월)~8월 7일(일) 아름다운 가게 전 매장

포스터공모작 전시회_8월 12일(금)~16일(화) 민주공원 원형램프

비키바다 영화상영_8월1일(월)~8월 9일(화) 송도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애니메이션 음악회_8월 11일(목) 16:00, 19: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휴가철 한마당_8월 13일(토)~15일(월) 민주공원 야외광장

필름&편_8월 13일(토)~15일(월)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

비키 영화놀이터_8월 13일(토)~15일(월) 민주공원 원형램프

어린이 영화제작 세미나_8월 14일(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BiKi 영화캠프_8월 12일(금)~15일(월) 아르피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입장권 | 개막작 7,000원 / 폐막작 · 일반상영작 5,000원 / 필름&편 3,000원

온누리티켓(개막작 포함한 12일~15일까지 상영되는 모든 영화 관람) 20,000원 / 4일 가족티켓 12,000원

● 문 의 | (사)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743-7652)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이벤트 : 8월 1일~8월 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테마여행) 게시판에 신청, 선착순 15명 초대권 2매 증정



문화로 하나되는 즐거운 부산을 꿈꾼다

이 갑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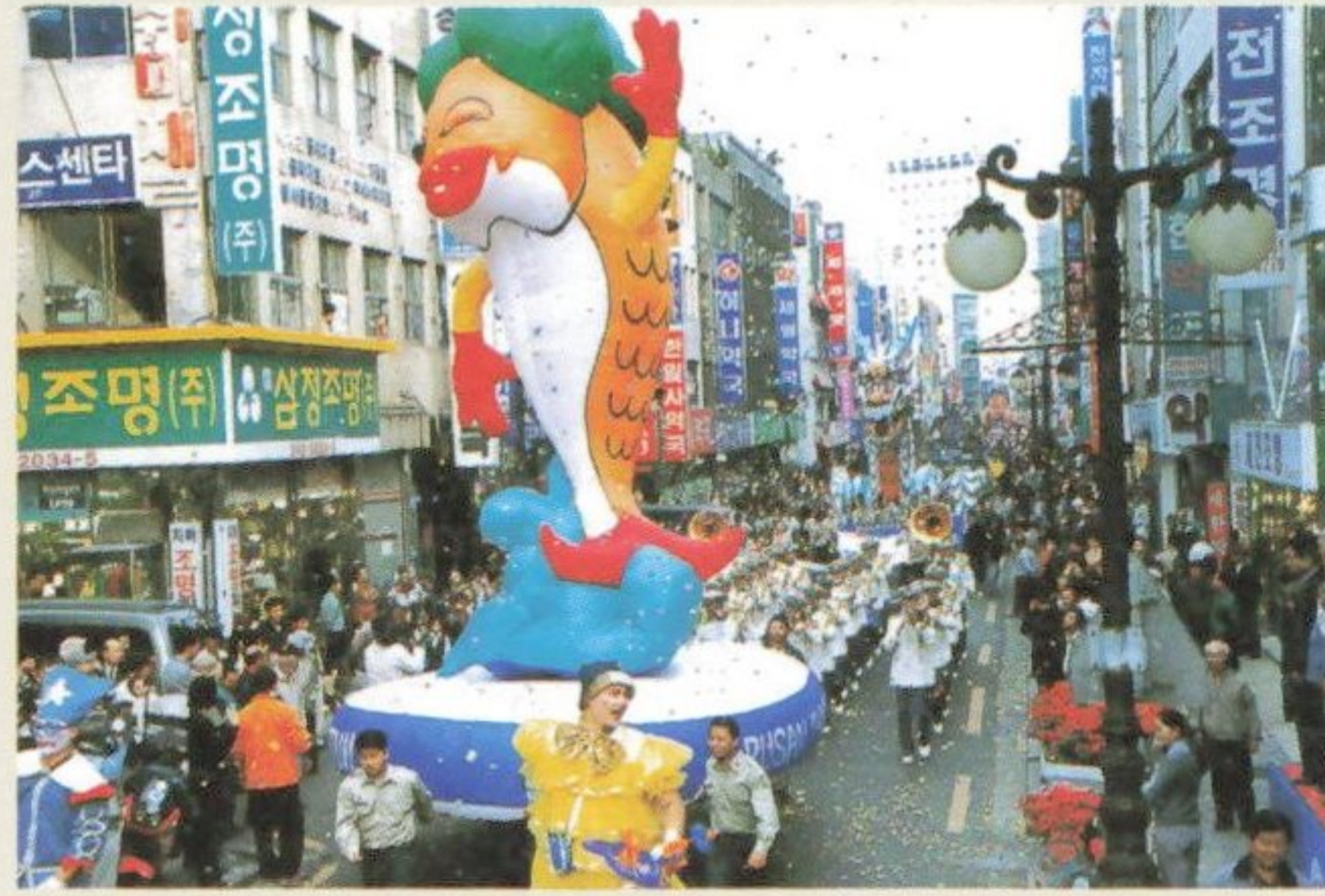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 시절 가설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 문화생활은 내게 정말 높고 큰 산이었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중책을 맡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이갑준 국장. 품격 높은 글로벌 문화·체육·관광도시 부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부서의 수장으로 어깨가 무겁다. 이갑준 국장은 취임과 함께 8월 1일부터 펼쳐지는 부산바다축제를 비롯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여느 때 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비록 문외한이지만 그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고민해왔던 만큼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과 사회가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0년 제 3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갑준 국장은 부산시 기획재정관과 사하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사하구 부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감천 태극마을, 을숙도문화회관을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킨 이갑준 국장은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더 많이 개최하고 예술인들이 자기 기량을 충분히 펼



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축제의 도시 부산을 이끌어가는 주요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은 8월이 가장 바쁘다. 8월 1일 막이 오르는 부산바다축제에 이어 8월 27일부터는 지난 해 많은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했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두 번째 행사가 막이 오른다. 또 9월에는 화명강변공원에서 제 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세계불꽃축제, 11월에는 부산국제합창제와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11'이 예정되어 있다.

“하반기 우리 부산에서 유네스코와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 1회 세계인문학포럼이 벅스코에서 열립니다. 세계 주요 석학들이 참석하는 유네스코 공식행사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민들의 인문학 열기를 더욱 살찌우고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문화도시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7회째를 맞는 부산세계불꽃축제는 행사기간을 9일로 늘려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한 체류형 축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 시작과 함께 행사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밤하늘 광안대교를 화려하게 수놓는 부산세계불꽃축제는 부산을 알리는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이갑준 국장. 그는 평소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 일때 축제가 지속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가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갑준 국장은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축제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수축제는 집중 지원하고 유사, 행사성 축제는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축제를 이야기할 때 부산국제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오는 10월 6일 막이 오르는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본당이 될 '영화의 전당'이 역사적인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을 전후하여 다양한 개관 축하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영화의 전당을 운영할 전담법인이 설립되어 시설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영화의 전당은 영화제 개·폐막식이 열리게 될 야외상영장과 84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3개의 영화 상영관과 식당 등 부대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1천 6백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공간인 만큼 이갑준 국장은 영화의 전당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상영관은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예술영화, 독립영화, 첨단 3D영화, 가족영화 등으로 구분하여 상영하고 다목적 공연장은 이름 그대로 뮤지컬, 콘서트, 연극, 각종 문화행사 등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야외상영장은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개방형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 이갑준 국장은 재임 중 부산이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제 2의 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부분의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화 인프라가 약한 부산의 경우 지은 지 오래된 열악한 공연장 시설이 많다. 북항 재개발지역 내에는 세계적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 부산문화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 중인 오페라하우스는 2018년까지는 준공할 예정이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야리아 부지에는 동남권 지역민의 문화수요를 아우르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킬 부산국립극장 건립을 추진 중인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 전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을숙도 일원에 비엔날레 전시관 기능을 함께하는 제 2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크루즈 관광을 부산의 주요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크루즈 입항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행복, 감동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그 자신도 즐겁다는 이갑준 국장. 조금씩 배우며 문화와 친숙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분주한 하루의 피로를 푼다.

물에서 왔으니 물로 돌아가는 꽃, 수련

정일근 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수련’은 수는 물 水자가 아니라 잠들 垂자를 씁니다. ‘물의 꽃’이 아니라 ‘잠자는 꽃’이, 수련의 이름입니다. 아침이면 잎을 펼치며 피었다가 저녁이면 잎을 접고 잠드는 꽃이기에 수련입니다. 오후 2~3시를 가리키는 미시(未時)에 활짝 핀다 해서 ‘미초’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한낮에 핀다 해서 ‘자오련’이라고도 합니다. 수련(Water lily)은 한여름 물 위에 요정처럼 피는 꽃이지만 만개의 시간은 3일에 불과합니다. 피었다가 잠들기를 아름다운 자태로 3일을 되풀이하다 4일째 되는 날부터 수십 개도 넘는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제자리로 여며 피기 전의 봉오리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세로 3일을 더 물 위에 흐트러짐 없이 남았다가 소리도 흔적도 없이 물속으로 돌아가는 여름 꽃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필 땐 아름답지만 지고나면 쓸쓸한 뒷모습이나 아픈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수련은 다릅니다. 수련과 같은 과(科)인 연꽃도 아프게 지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데 수련은 아닙니다. 수련은 물위에서 아름답게 피어서 물속으로 아름답게 집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흔적도 없이 물에서 왔으니 물로 돌아갑니다. 저는 수련을 볼 때마다 갠지스 강 바라나시를 떠올립니다. 인도 힌두교인은 우리처럼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지상에 살다간 모든 흔적은 태워 지워버리고 영혼은 갠지스 강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생사윤회’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름답게 작별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연꽃 먹는 사람’(Lotus-eater)이 나옵니다.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몽상가’나 ‘현실감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연(蓮)을 영어로 로터스(Lotus)라 하는데 이집트 나일강가에 피는 신성한 로터스는 ‘수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연꽃은 인디안 로터스(Indian lotus)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인 오디세우스는 목마에 군사를 숨기는 작전으로 트로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 고향 이타케 섬으로 돌아오다가 폭풍을 만나 북아프리카 어느 해안에 내렸습니다. 연꽃열매를 먹고 사는 그 곳 주민들은 친절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눈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빈둥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병사들도 그 마을주민들의 주식인 연꽃 열매를 먹자 똑같아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잊고 몽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힘들게 그들을 몽상에서 깨워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은현리에 수련이 피는 계절이 돌아오면 저도 연꽃 먹는 사람처럼 몽상가가 됩니다. 제게 수련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지겹지 않는 꽃입니다. 화려한 꽃잎수록 쉽게 질려 버리는데 수련은 뜨거운 불볕더위 속에서 화려하게 피는 꽃입니다. 화려하게 피는 만큼 아름답게도 떠날 줄 아는 꽃입니다. 꽃이 피었다 지듯 사람도 피었다 지는 꽃입니다. 수련이 피었다 질 때마다 수련이 저를 가르칩니다. 아름답게 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는 일도 아름다워야 한다고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뒷모습으로 떠날 것인가요?

약 속

정일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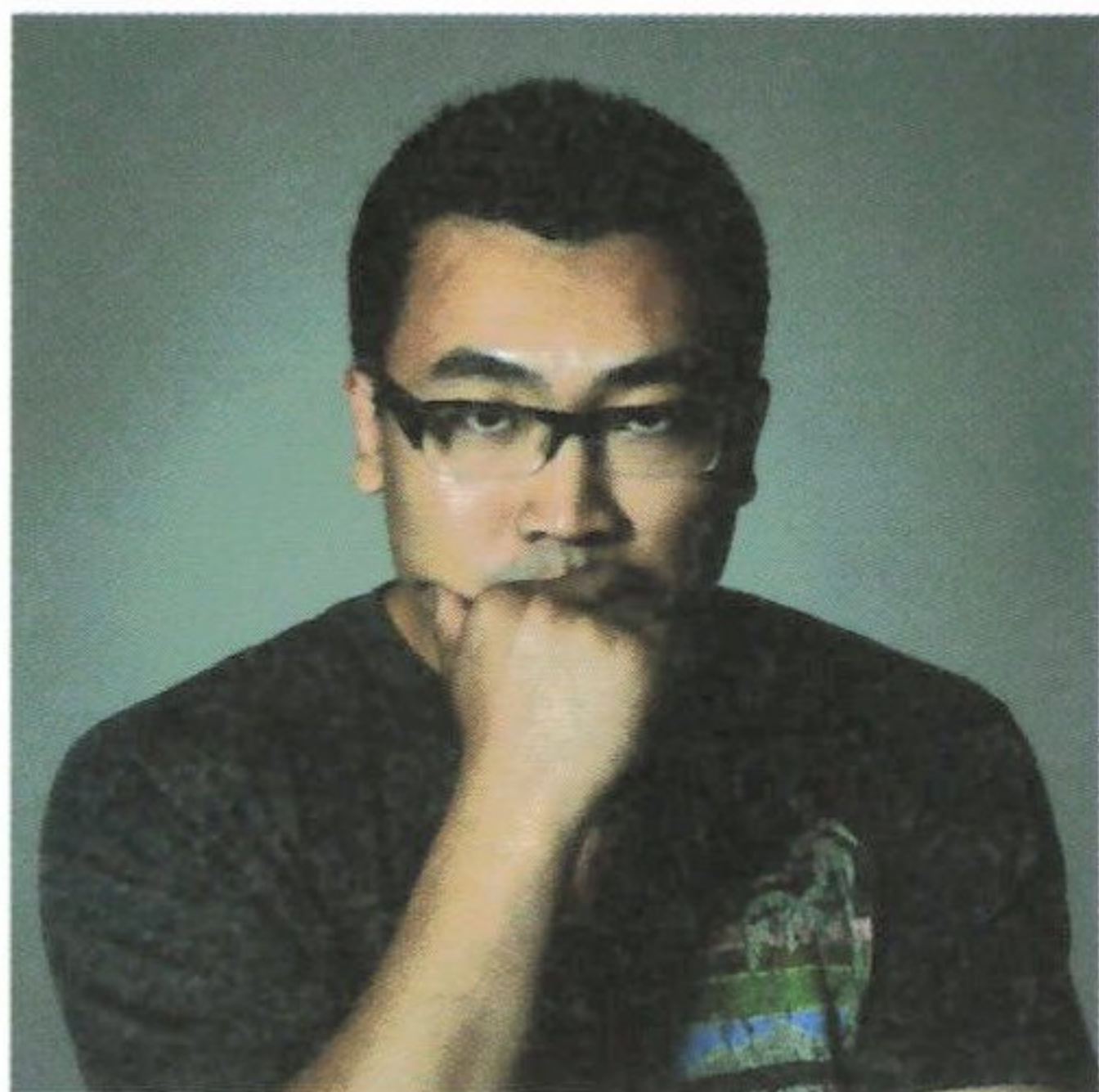
늦여름 빛속에서
흰 꽃을 밀어 올리는
수련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집과 집 속의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젖고 있는데
한사코 자신의 야원 몸 위로
화사한 꽃을 피우려 애쓰는
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의 굵은 손바닥 후두둑 후두둑
세상의 등을 때려
큰 절 집과 열세 채 작은 절집 품은
영축산 통도사도 단단한 결가부좌를 풀고
녹녹한 오수에 빠져드는데
산 번지도 사라진 은현리 빈터
깨어진 돌확 속에서
단정한 앓음새로 앉아
가을이 오기 전에는 꽃을 피워야한다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찬 빛속에서도 제 이름 부르는 소리에
예, 라고 대답하며 수련거리는
수련의 소리 들었습니다



사진_정일근

허구 아니면 진실? 리우즈이(劉志一)의 작품세계

박건해 _중국 통신원



리우즈이

아카데미 교육중의 사실주의 경험과 디지털의 체험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사례로 리우즈이는 1970년대 출생의 예술가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색다른 비현실적이고 가공의 느낌을 가져다준다. 실제의 감각기관으로부터 허구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생물학상의 시각을 뜻하는 것이 아닌 관찰과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사의 시각경험 중 형성된 공간, 구성, 부피, 색채, 터치에 관한 방법이다. 리우즈이의 이러한 방법은 아카데미파의 전형적인 사실주의 기법의 교육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는 더욱 세밀하게 파고들어 화면의 구성에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2005년부터 시작한 <제국백과전서> 시리즈 작품은 비록 허구의 세계를 그렸지만 시각언어는 대단히 엄격하고 빈틈이 없어보인다. 종종 세부적인 공간이 표현되는 중 강렬한 현실감을 실현한다. 그래서 리우즈이는 해커에 가까운 사실적인 수법으로 시각상의 속임수를 만들어낸다. 형상의 허구와 시각재현의 진실은 감각기관의 패륜으로 조합된다. 표면상 패륜은 종종 혼란을 가져온다. 세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논리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패륜은 때때로 깊이를 내포하는 것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리우즈이가 제작하는 이러한 시각적 패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지 그의 아카데미의 배경과 첨단과학에 관한 관심과 디지털 문화를 접하는 세대라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패륜 중에서 세상을 관찰하는데서 비롯된 질의자로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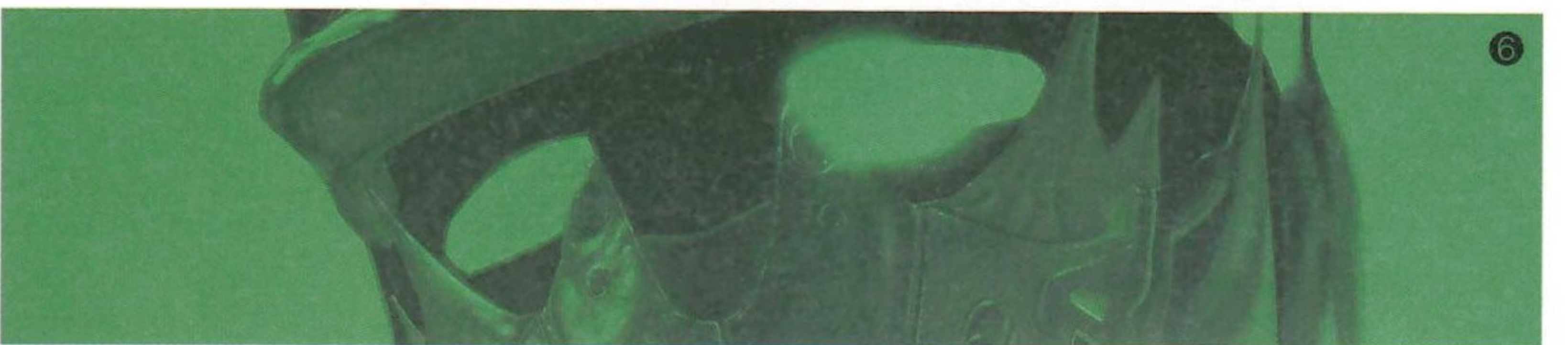
리우즈이의 작업은 시각상 최종적인 허구와 환상의 부정확성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작가들은 중국의 고속혁명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다. 그중 그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험, 직업제도가 변화했으며 사상, 정치 등의 변화도 있었다. 동시에 경제부분에 순식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것은 그들의 가치, 의의에 대한 종래에 부여받았던 개념이 명확한 의혹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구호화의 무조건적인 답안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의혹을 가지고 자신의 이성으로 철저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혁명에 관해 다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동시에 반혁명에 관한 맹목적인 믿음도 없다. 그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확실한 가치판단과 같이 창작의 방향을 내면의 세계로 전환해서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의 모종의 이성적인 건설의 성과를 가져왔다.

리우즈이의 <제국백과>는 바로 이러한 의도의 모종의 실현이다. 제국은 정치역사학의 개념인데 자신의 대화중 <해커제국>이나 <게임유희> 등의 언어 경계 아래서 의의를 뒤섞었다. 이러한 뒤섞기를 통해 그의 화면은 그 자신이 제국의 언어의미에 속하게 되기를 시도했다. 과학기기에 관해, 미래에 관해, 종교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것은 다른 성질의 제국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세히 살펴본 이성화, 정신화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은 리우즈이가 백과전서 식의 방식을 통해 진행한 지식화의 체계이다. 백과전서는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이 편찬한 백과사전으로 개방적인 태도로 과학과 사상의 진흥을 부르짖은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위대한 문예 위업 중의 하나이다. 백과전서는 계몽운동 중 이성주의, 과학주의 사조의 중요한 문화현상이다. 리우즈이는 이러한 관념을 인용하여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이성체계를 통해 다시 세계의 부정확성을 대면하려 했다. 리우즈이는 1970년대의 의혹으로부터 이성을 향해, 내재로부터 외재를 향해 전신의 전환을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전환은 작품 속에서 부정확성의 총만함, 환상의 냉정함과 세밀함, 허구와 진실의 모순 중 자신의 화면 속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타인과 다른점은 리우즈이는 비록 아카데미 사실기법을 이용했지만 심도있는 3D 기술을 투입함으로써 전환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동일한 세대들은 이러한 시각경험에 의해 더욱 쉽게 그의 작품에 동화되고 빨려들 것이다.

그는 상상의 대상을 3D 기술에 의해 컴퓨터에서 디지털화된 영상을 제작한다. 그런 다음 세밀하게 확대된 스크린을 마주하고 자신의 사실적인 능력으로 전환을 진행한다. 그의 작품은 특별한 시각적인 관찰을 갖추게 되었는데 기계의 눈에 의해 개조된 지각세계이다. 즉 그의 시각실현은 사실 기술의 자연적인 시각이 아니고 디지털화된 주관적인 시각영토이며 이러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화면에 표현되었다. 그에게 예술은 자연과 관념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인식한 세계의 시각수단을 제시하며 인지수단이 된다. 리우즈이의 작품 중에서 생존하는 역사의 어떤 공통성과 이해, 현재 발생한 현상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준다.



① 契之C.G.之M 50cm×160cm, 2007

③ 契之C.G.之二 50cm×160cm, 2007

⑤ 契之二十二 38cm×170cm, 2009

② 契之C.G.之三 50cm×160cm, 2007

④ 契之二十 38cm×170cm, 2009

⑥ 契之二十一 38cm×170cm, 2009

〈리우즈이 인터뷰〉

Q : 작품이 인문과 사회, 환경에 관한 사고에 관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고들은 내면에서부터 표현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가?

A : 나는 사물을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또 생각한다.

Q : 당신의 창작은 어느 유과도 아니고 단순한 관념이나 사실로 단순히 작품을 포함시킬 수도 없다. 이러한 표현기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나는 단지 사실기법을 이용해서 허구의 세계를 묘사할 뿐이다. 회화 기법상 나는 물체의 윤곽선에 비교적 주의했는데 디지털의 허구세계 안에서 외각 윤곽선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경험을 가져다준다.

Q : 작품 〈제국〉시리즈를 창작할 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당신의 창작에 영감을 주는가?

A : 달리의 작품은 사실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몽환적인 풍경을 관객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는 과학이 사람들의 어린시절의 꿈을 상품으로 변화시켰다. 영화속의 과학적이고 몽환적인 도구들이 우리 일상속의 생활 도구로 바뀌었다.

Q : 과학을 환영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고 과학과 예술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이러한 스타일은 중국내에서는 독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A : 사실 나는 비교적 과학과 예술의 결합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내면으로는 중국 내에서 첫번째가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혼자라는 것은 고독하게 싸우는 느낌이다. 이것은 긴 과정인데 더 많은 예술가들이 과학과 예술에 주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필경 우리의 생활은 전통과 첨단과학이 교차하는 시대에 있고 과학도 사회의 진보를 나타내지 않는가. 매튜바니의 작품은 첨단과학 기술이 작품에 준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Q : 당신의 작품 중 인물은 매우 공허해 보인다. 역사의 각도에서 볼 때 당신은 허구와 꿈, 진실을 이해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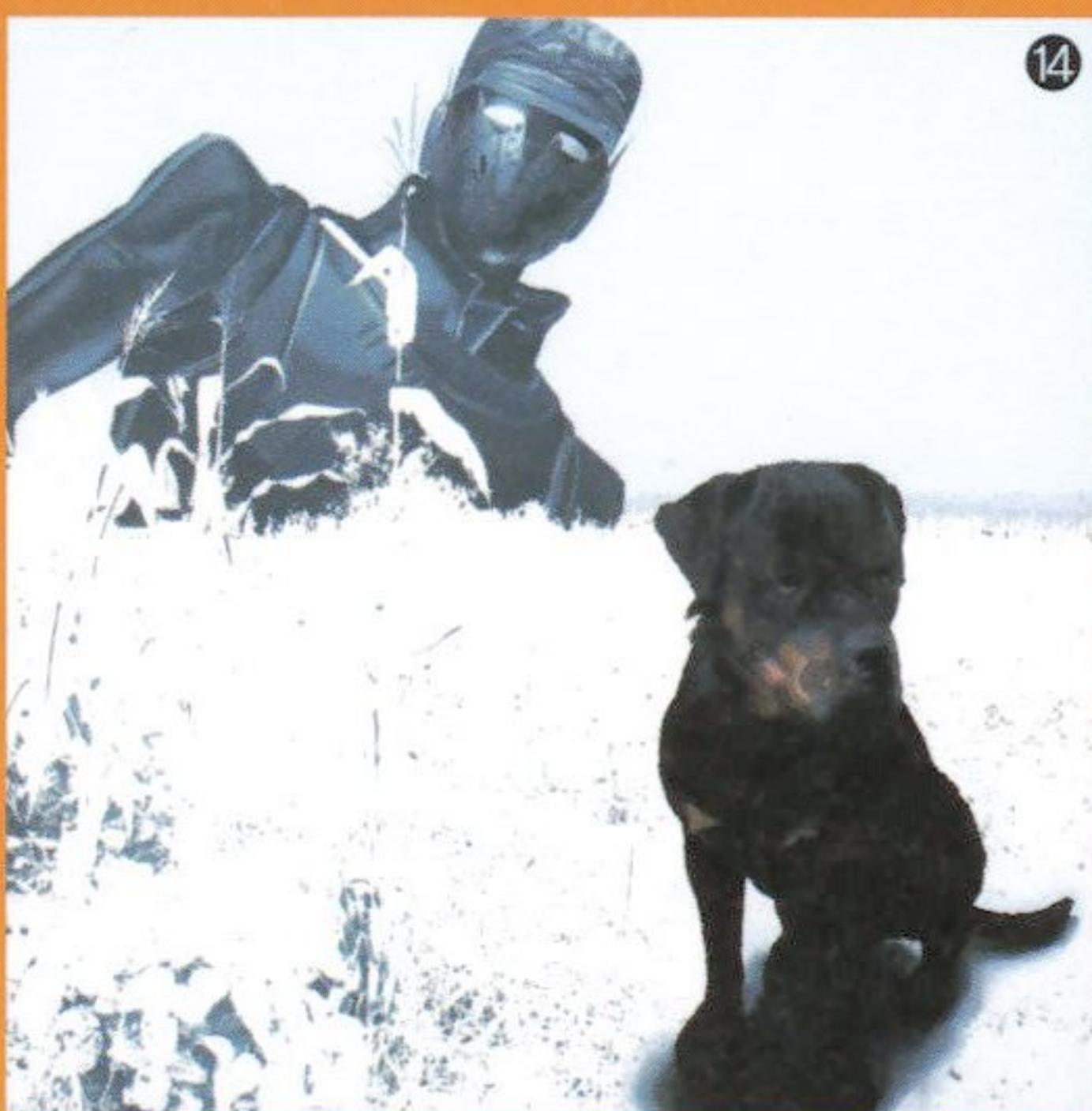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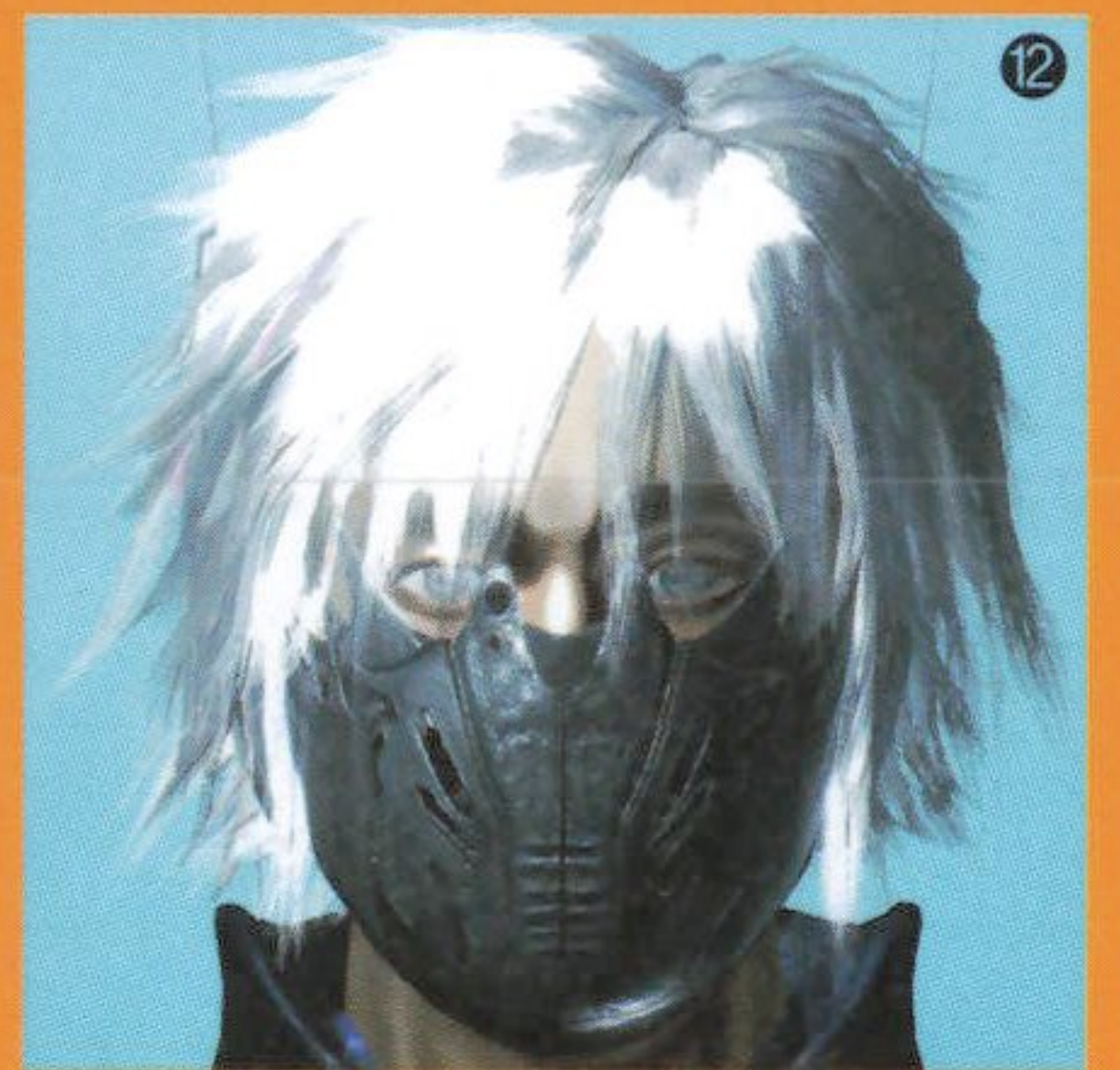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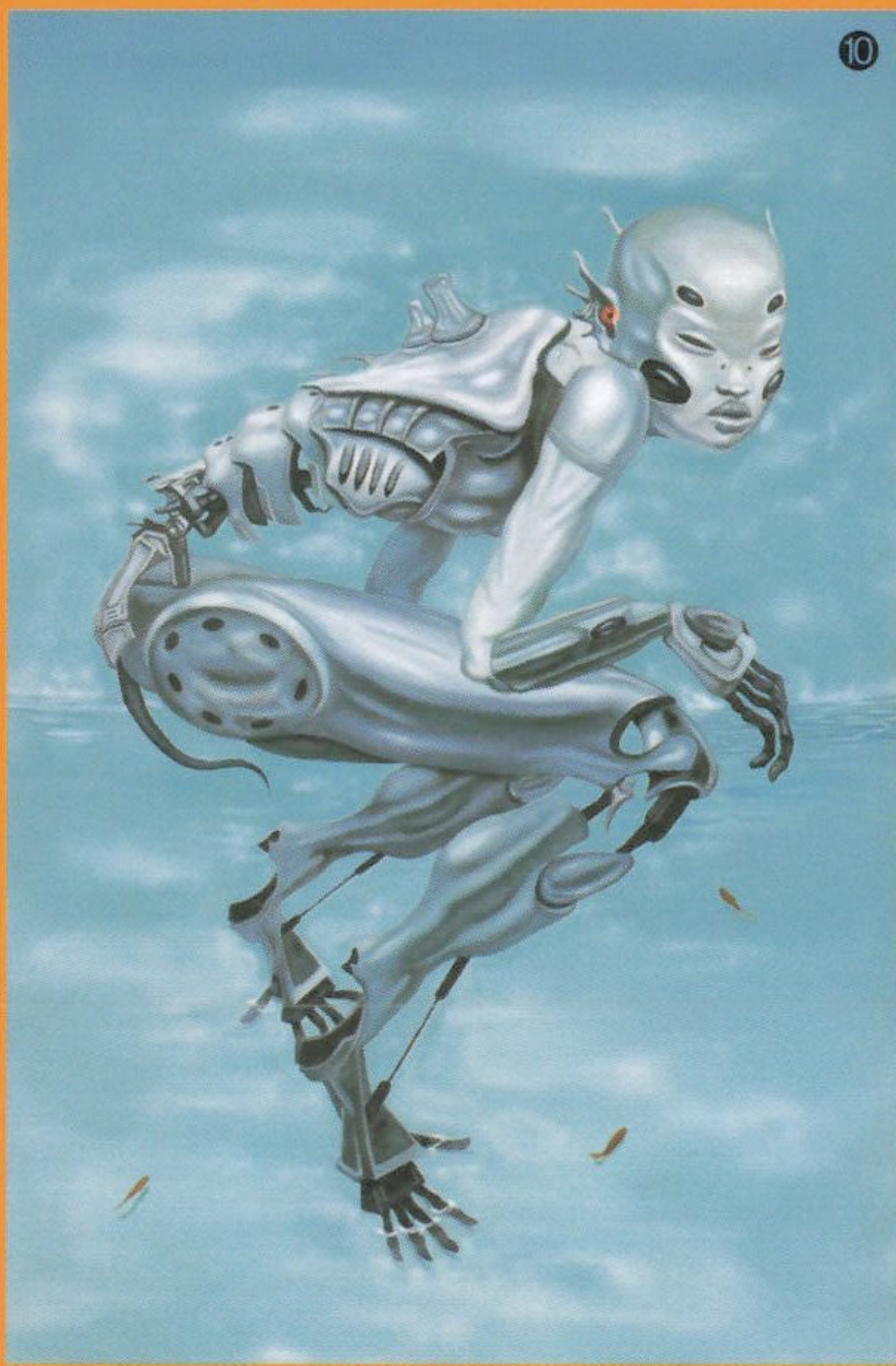
A : 허구와 진실은 어떤 때는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도대체 역사의 것인가? 현실의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것인가?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마다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 어떤 사물들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말할 필요 없이 조용히 체험해 볼 수 있다.



⑦ 契-NYN 01 65cm×150cm, 2007



⑧ 契-NYN 02 65cm×150cm, 2007



- ⑨ 盟約之三 120cm×120cm, 2008 ⑩ 契之C.G. 170cm×100cm, 2006
⑪ 海歌之三 120cm×120cm, 2008 ⑫ 海歌之二 120cm×120cm, 2008
⑬ 山悟之二 120cm×120cm, 2008 ⑭ 山悟之三 120cm×120cm, 2008
⑮ 海歌之一 120cm×240cm, 2008 ⑯ 云 160cm X 160cm, 2010
⑰ 山悟之一 120cm×240cm, 2008

비투스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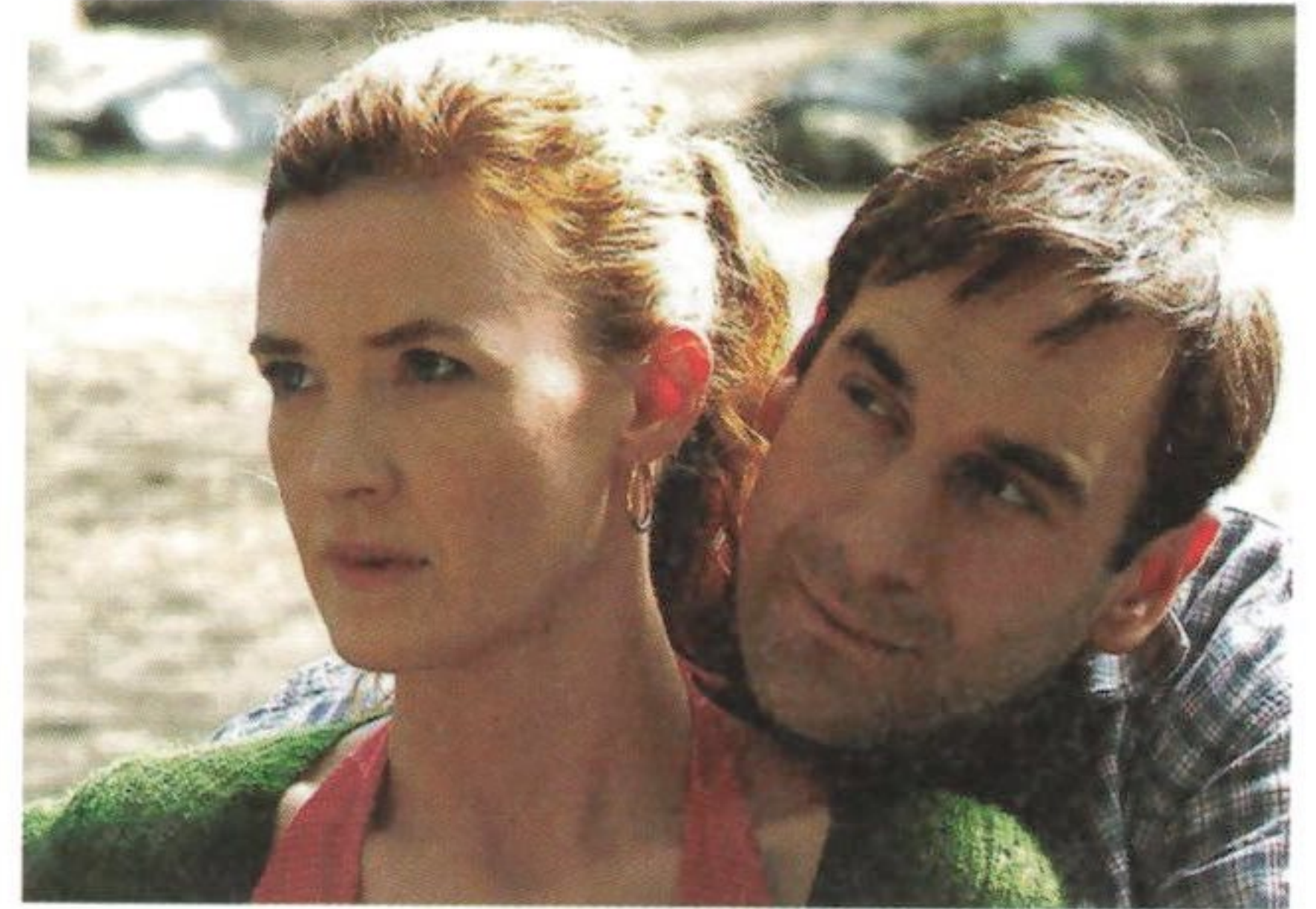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소년 '비투스'의 자아 찾기가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함께 펼쳐지는 영화 '비투스'

영화 <비투스>는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소년의 일상탈출기이다. 남다른 천재성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피아노 연습보다 괴짜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하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소년 '비투스'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어린나이에 세상의 많은 것을 알아버린 소년 '비투스'의 자아 찾기가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함께 펼쳐진다.

아이큐 180의 비투스는 예민한 청각과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또래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능으로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전문서적을 척척 이해하는 천재 소년이다. 다섯 살의 나이에 온갖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비투스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만 같은 아이이다.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우연히 발견한 부모는 아이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가진다. 특히 거장 못지않은 피아노 연주 실력을 지닌 아이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이는 천재소년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는 부모의 높은 기대와 학교의 부적절한 교과과정 사이에 갇혀 답답해하며 점점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한다.

출판사에서 번역가로 일하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피아노 연습과 학업을 강요한다. 반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는 바쁜 회사일로 인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 비투스가 좋아하는 것은 홀로 사는 목수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며 평범한 생활을 꿈꾸는 비투스는

엄마의 성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집을 방문하게 된 후 우울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하늘을 날기 위해 가짜 날개를 달고 창밖으로 뛰어 내린다. 이때부터 소년의 천재성은 둔화되고 평범한 아이로써의 삶을 산다. 어머니는 크게 실망하고 비투스는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주말을 할아버지의 집에서 소일한다. 그러던 중 바흐의 음반을 듣던 비투스는 홀로 피아노를 치고



주연 배우이자 실제로도 피아니스트인 '테오 게오르규'는 영화에서 연기가 아니라 실제 연주 실력을 들려준다. 할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명배우 '브루노 간츠'는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천사 다미엘로 등장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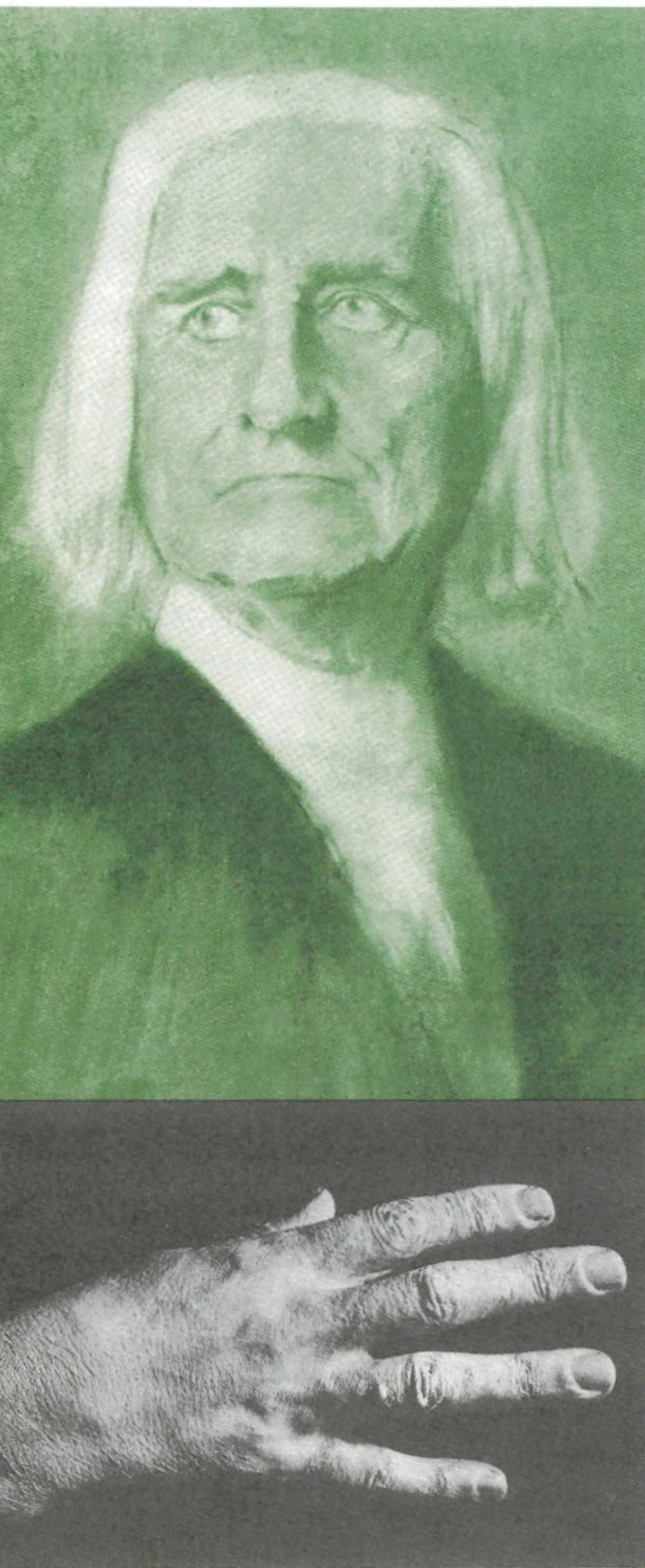
이를 몰래 듣던 할아버지는 소년의 천재성이 아직 그대로임을 감지한다. 비투스스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거짓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젊음을 바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고비를 겪자 비투스스는 감추고 있던 재능을 발휘하여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아버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 덕분에 엄청난 돈을 갖게 되고 할아버지는 모의 비행기구를 사서 꿈에 그리던 비행 연습을 하고 비투스스는 건물을 사서 부모님 몰래 좋아하는 피아노를 혼자 연습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는 첫사랑을 레코드 가게에서 만나는 것이다. 아이였을 때 보모로 있던 이사벨을 다시 만난 비투스스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간다. 이 또한 비투스스의 감정을 성장시키고 피아노에 대한 매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영화 <비투스>는 가볍고 유머러스하며 시적으로 그려지는, 유년기와 음악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사회적 관습에 대항하는 재능 있는 주인공을 영화적 소재로 재구성하여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구성한다. 국내에서 스위스 영화를 접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스위스 출신의 프레디 뮐러 감독의 이 영화는 음악천재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 어떤 국적을 가진 관객에게나 감성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영화는 꼬마 음악천재가 음악적인 성취를 일구기까지의 길을 통해 평범한 어린이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천재의 고뇌와 열망을 보여주고 이 소년이 '진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그 과정에 묘사되는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세월을 뛰어넘는 우정은 가슴 뭉클하다.

<비투스>는 음악영화라는 장르를 잊지 않고 음악에도 집중한다. 영화 전반에 모차르트, 바하, 슈만 등의 피아노곡이 흐른다. 주연 배우이자 실제로도 피아니스트인 '테오 게오르규'는 영화에서 연기가 아니라 실제 연주 실력을 들려준다. 할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명배우 '브루노 간츠'는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천사 다미엘로 등장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2006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으로 출품되었고 로마국제영화제와 시카고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에서 모두 42개 영화제에 초청된 <비투스>는 깔끔하게 만들어진 성장영화이자 음악영화이며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영화이다.





리스트의 손 부조

끝없이 탐구하는
**영원한
방랑자**

오해와 진실

황윤하_한국리스트협회 회장

리스트는 1871년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로마, 바이마르, 부다페스트 3곳을 순회하며 살았다. 마치 영원히 순환하는 고리를 돌듯이 쉬없이 여행하고 가르치고 작곡하였다. 1873년 5월 29일에는 리스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대한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가 바이마르에서 처음으로 전곡 모두 초연되어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리스트는 말년에 안톤 루빈슈타인, 알베니즈, 보로딘, 생상, 포레, 드비시 등 세계의 많은 음악인들의 방문을 받고 교류하였다.

리스트는 젊었을 때부터 바그너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계속 후원하였지만 바그너가 리스트 자신의 딸이며 제자 한스 뷔로우의 부인이었던 코지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아 결국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년간 바그너와 불편하게 지내기도 했다. 1872년부터 다시 화해하고 1876년부터 바그너부부에 의해 시작된 바이로이트축제에 매년 참석하여 후원하였다. 1883년 바그너가 사망하고 코지마에 의해서 바이로이트축제가 계속 주재되는데 1886년 7월 리스트는 이 축제에 참석하러 왔다가 폐렴에 걸리고 악화되어 사망한다. 당시 코지마는 바그너 사망 후 혼자 떠안은 바이로이트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중압감에 쌓여있었던 상태로 축제 중의 갑작스러운 리스트의 사망에 크게 신경 쓸 수 없었던 것 같다. 리스트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바이로이트축제 일정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러한 간소한 리스트의 장례식은 리스트의 지지자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리스트의 유해는 헝가리나 바이마르에 묻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코지마의 의견에 의해 바그너와 함께 바이로이트에 묻혔다.

리스트는 평생 탐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였으며 일생을 통해 진보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날부터 진보적 사회운동에 힘쓰던 라메네즈 신부와 교류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라메네즈 신부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회운동, 저술활동을 통해 기독교계 내부와 국가 사회를 기독교의 근본정신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리스트는 음악인들의 위상이 종전과 같이 왕이나 귀족의 고급시종 역할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귀족계급의 특권과 의무를 나타내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고귀한 자들의 의무)라는 개념에 더하여 리스트는 예술가, 특히 음악적 천재들의 의무와 특권을 주장하였다(Genie Oblige, 천재들의 의무). 리스트는 음악가는 신으로부터 받은 재능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 기여해야 하는 특권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리스트는 순회연주 시기 후 바이마르 시절부터는 결코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는 무대에 서지 않았다. 유럽 각처와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연주 요청이 쌓였지만 모두 거절하였고 예외적으로 그가 공감하는 자선 목적의 연주회에서는 흔쾌히 연주를 보여주었다. 세계 각처에서 그를 찾아온 많은 학생들도 무료로 가르쳤다. 리스트는 헝가리 왕립음악원 설립 후에도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주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칠 것을 주장하여 소액의 수업료라도 받으려는 헝가리 당국과 마찰이 생길 정도였다. 리스트는 음악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마르시절 이후 리스트의 수입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선목적이나 어려운 음악인들을 돕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지출하였다. 리스트는 자신을 위해서는 큰돈을 쓰지 않았고 특히 로마에서 수도원에 입문한 이후로는 더욱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리스트는 음악가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통하여 얻은 재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고 모두와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리스트는 지지자들로부터 광적인 환호와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었던지 리스트와 리스트의 음악을 폄훼하기 위한 반대측의 노력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1840년대 리스트의 순회연주시절에는 소위 리스트 광신도들의 열풍이 전 유럽을 소란하게 할 정도였다. 리스트의 탁월한 피아노 연주능력은 이

세상에서 거의 경쟁자를 불허할 정도였다. 리스트의 현란한 기교, 제스처에 리스트의 팬들은 열광하였고 리스트가 연주하는 곳마다 소동이 벌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대중적인 인기 현상에 눈살을 찌푸렸고 리스트가 기교만 요란할 뿐 리스트의 음악은 일류의 음악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리스트는 일생을 통해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였다. 1850년대에 음악가들이 소나타 등의 고전음악의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느냐 변형시키느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서 리스트는 새로운 시대의 음악은 새로운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고 형식의 변형, 주제변형기법 등을 사용해 교향시 등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창안하여 만들었다. 이에 반하여 브람스 등은 고전음악의 형식을 지키고 존중하여 작곡하였으며 리스트에 의한 음악형식의 파괴가 고전음악의 정신을 훼손하고 음악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리스트는 음악이 다른 종류의 예술 특히 문학이나 미술 등에 의하여 더욱 풍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리스트는 시나 미술작품들로부터 받은 감동을 음악으로 작곡하고 제목을 붙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더 나아가 리스트의 동료인 바그너 등은 오페라에서 보듯이 모든 장르의 예술은 결국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한스리크 등 절대음악 신봉자들에 의해 공격받았다. 그들은 음악에 자의적으로 제목을 붙여 의미를 한정하거나 음악을 다른 예술을 묘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음악의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다. 리스트는 이에 대하여 음악이 풍경이나 미술을 묘사하는 단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음악가가 자연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로부터 받은 영감이나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설명을 붙이는 것이 해로울 것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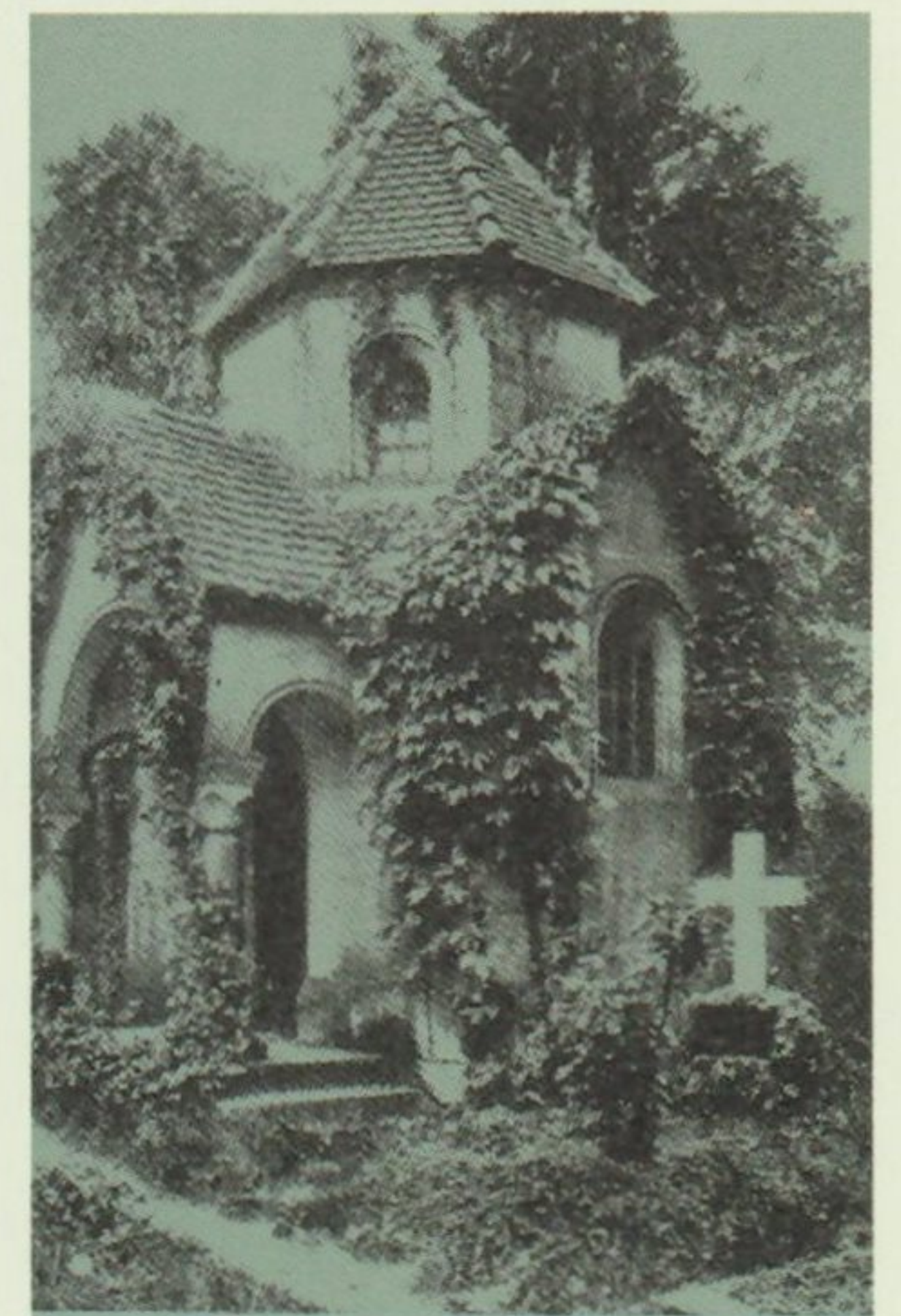
1850년대에 ‘낭만주의자들의 전쟁’을 제기한 브람스, 요하킴 등과 절대음악 신봉자였던 음악평론가 한스리크 등은 리스트의 음악은 결코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없으며 음악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음악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폄훼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독일학과 진영의 브렌델, 브론자르트, 바그너, 리하르트 폴 등의 음악가들이 논박하였다. 이 논쟁은 상대측의 음악의 가치를 부인하는 심한 독설을 주고받으며 오래 계속되었다. 특히 한스리크는 비인의 대학에서 음악역사와 미학을 가르치며 오랜 동안 비인의 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비

인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까지 리스트의 음악이 연주되기 어려울 정도였고 평론가들에 의해 리스트의 음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리스트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음악가가 있었던가? 리스트는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던 음악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에 의해 가장 오해 받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음악가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많은 음악인들의 뇌리 속에 리스트의 음악은 화려한 기교만 앞세우고 깊이나 의미가 덜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과연 그러한가? 20세기에 들어 부조니, 바르톡 등의 많은 음악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리스트와 그 음악의 진면목이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바르톡은 대담한 실험적 화성, 형식의 대담한 변형, 독특한 음향 효과를 이끌어 내는 기법 등이 보이는 리스트 말년의 음악에 주목하여 리스트야말로 현대 음악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리스트의 음악은 너무도 다양하다. 여러 장르에 걸쳐있고 세속적인 음악에서부터 성스러운 음악, 표제음악에서부터 절대음악, 활기차고 외향적인 음악에서부터 은둔적이고 내향적인 음악 등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의 결여로도 보일 수 있는 점이 평론가들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리스트는 일생을 통해 항상 진지한 자세로 음악에 임했으며 그때 그때 각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새로운 걸작들을 만들어 냈다. 리스트의 음악은 낭만주의 음악이 꽃을 피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당대와 후대의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20세기 현대음악의 문을 열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19세기의 음악가들 중 리스트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음악가일 수 있다.



코지마 바그너



리스트의 무덤

신선도(神仙圖) 중의 선동취적(仙童吹笛)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즘 미술이나 음악처럼 세칭 예술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다름 아니라 그림 도구나 악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옛 날에도 그림에 있어서 여비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좋은 종이나 비단, 수묵이나 채색의 도구, 전서(篆書) 등 여러 서체의 도인(圖印)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단원 김홍도에게는 중인들이 바로 물질적 후원자였다. 그도 도화서 화원 출신인지라 동류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김홍도는 일생동안 사대부 양반, 선후배 화원, 서예가 및 소장가들과 매우 가까이 교류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의 물질적 후원

자인 기술직 중인층들이 김홍도의 그림을 많이 받은 소장가들이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민식(李敏植: 1755~?, 자:용눌(用訥))과 김한태(金漢泰: 1762~1823, 자:경림(景林), 호:자이당(自怡堂) 또는 영원재(寧遠齋))가 있다. 이들은 한어(漢語:중국어) 역관(譯官)들이었는데, 특히 김한태는 당시 한양의 거부였다. 원래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들과 동행하는 역관들은 통역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외교적 임무도 처리하고 또한 사신단의 여정과 물자관리도 맡았다. 심지어 사신단의 행차와 함께 이루어진 공·사무역에서 실질적 역할을 했으므로 역관들에게는 재물축적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청나라에 한 번 다녀오면 역관들의 보따리에는 비단, 상아, 마노 등 진귀한 물건이 가득하였다. 김한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엄청난 재력과 권력층과의 유착, 집안의 가득한 금은보화,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상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이민식은 1774년(영조 50) 역과에 합격한 후로 역관과 주부(主簿) 벼슬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김홍도에게 그림 주문을 여러 번 했던 모양이다. 기록에 따르면 김홍도는 1778년에 커다란 선면(扇面)에 남긴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를, 이듬해에는 '신선도(神仙圖) 8첩 병풍'을 그려 주었다. 35세에 그린 이 '신선도 8첩 병풍'이 걸작이다. 그윽하면서 신비로운 묘사로 이루어진 8폭 병풍이다. 선동취적(仙童吹笛), 청오자(靑烏子), 노자(老子), 조국구(曹國舅), 삼선(三仙; 東華子, 鍾離權, 呂洞賓), 삼성(三聖; 壽福祿), 자염도사(紫髯道士), 황초평(黃初平) 등으로 구성된 8선이다. 다만 이보다 3년 앞서 그렸던 '군선도(群仙圖) 8첩 병풍'처럼 장과로(長果老), 태상노군(太上老君), 마고(麻姑)와 하선고(何仙姑)의 세부분이 하나의 전체 화면에서 진행되는 구도가 아니라, 각각의 신선들을 8폭에 별도로 등장시켜 놓은 것이 기법이 다르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제 1폭 선동취적(仙童吹笛)을 만나 보자. 사슴 비슷한 짐승과 함께 선 선동이 옥피리를 은은하게 불고 있다. 짐승의 뒷다리는 짧고 아주 가녀린게 사슴 같지만, 앞다리가 지나치게 길고 굵은 데다 자세가 무정물적(無情物的)으로 경직된 것이 어딘가 어색하다. 게다가 머리엔 뿔이 하나밖에 없다. 분명 사슴이 아니다. 참고로 제 3폭에는 노자(태상노군)와 함께 서있는 짐승이 있는데 양쪽 뿔이 달린 데다 얼굴이 분명한 사슴이다. 그러면 외뿔 달린 이 짐승은 뭘까. 실마리는 제화시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단원이 용눌에게 그림을 그려 주면서 신선의 오묘한 경지에 도달하는 뜻을 알만한 사람은 자운(子雲)이라고 하였다.



김홍도의 '선동취적'

자운은 중국 전한(前漢) 말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장가인 양웅(揚雄: 기원전 53~기원후 18)의 자(字)이다. 꽤 흥미있는 사람이라 잠깐 소개를 해본다. 양웅은 유가의 서적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논어(論語)’를 모방해 ‘법언(法言)’이라는 책과 ‘주역(周易)’을 모방해 ‘태현경(太玄經)’을 썼다. ‘태현경’에서는 세계의 근원에 ‘현(玄)’을 설정하고, 현으로부터 방(方)·주(州)·부(部)·가(家)가 단계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사물의 생성의 필연성·합법칙성을 주장하였다.

‘태현경’은 그 형식을 유가서로부터 빌려왔고 그 내용은 도가의 노자학과에서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의 사상이 유가와 도가를 절충한 것임을 의미한다. 즉 자연관에 관해서는 도가의 이론을, 윤리관에 대해서는 유가의 이론을 채용한 셈이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알 수 없지만 도가적 분위기가 농후한 까닭에 신선과 어울리는 상상의 동물도 더러 언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홍도는 양웅에 관한 글을 읽고는 선동에 이 짐승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마 생각컨대 그것은 기린으로 판단된다. 예로부터 기린은 습성이 어질며 몸은 사슴같고 뿔이 많으며 다리가 긴 짐승으로 여겨왔는데, 이 그림 속에서 바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 양웅은 자신이 지은 책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당대에는 없다고 여겨 후대에 자신의 뜻을 알아줄 또다른 양웅을 기다린다고 한 말은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유가의 학자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다.

한편 양쪽으로 비스듬히 머리를 묶은 선동의 눈빛이 형형한게 예사롭지 않다. 4세기 중국 동진(東晉)의 유명한 화가 고개지(顧愷之)가 초상화를 그려 놓고 몇 년 동안이나 눈동자에 점을 찍지 않으면서 “눈동자 속에 전신(傳神)의 요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전신사조(傳神寫照)를 말하는 거다. 형상을 넘어서서 정신을 묘사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눈빛에 있다. 그렇다. 단원은 선동의 눈속에 요체를 그렸다. 그러면서도 웬지 신선이 신비하다기 보다는 흔히 이웃에서 볼 수 있는 소년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 김홍도가 조선 사람을 신선으로 묘사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래쪽 의습선(衣褶線: 옷의 주름)은 나부끼는 듯 약간 동적으로 묘사되면서 굽은 선으로 간략하게 터치된 것이 명대(明代) 대진(戴進)이 이끈 절파계(浙派系)의 화풍과 비슷하다. 이는 굽직한 선의 <달마도>로 유명한 17세기 절파풍의 대가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 1600~?)



‘선동취적(세부)’

이 보여준 기법과 맥이 닿고 있다. 사실 김홍도의 작품 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조도(花鳥圖)가 있는데, 이 역시 명대 절파풍의 대표자인 임량(林良)의 필법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0대 시절 김홍도가 도석인물(道釋人物)을 많이 그린 것은 17세기 선배 화단의 묘법(描法) 전통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림의 윗부분 양쪽으로 제화시가 있다. 오른쪽은 김홍도가 이민식에게 그림을 그려주게 된 동기를 적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이용놀은 그림에 대한 애정이 골수에 박혀있다. 내가 용놀을 좋아하는 것은 용놀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그려준다. 지극히 정밀한 뜻은 본래 그림 밖에 있으니 만약 세상에 자운이 있었다면 가히 자운을 알 만하다. 기해년 10월 사능”

(李君用訥 愛畫入髓 我愛用訥 如用訥之愛畫 寫此持贈 精到之意 自在筆外 世如有子雲 可以知子雲 己亥 陽月 士能)

기해년은 1779년으로 김홍도가 35세때 열 살 아래의 젊은 역관에게 풍속화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며 쓴 것이다. 왼쪽은 스승인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의 평론이다. 내용은 이렇다.

“푸른 옥을 뚫어 아홉 구멍을 만드니 솜씨 또한 훌륭하다. 피리를 부는 자를 사람들은 자진(子晉)이라 하나 모습은 아니다. 저 나부끼는 날개는 무엇인가. 생각컨대 여러 갈래의 뿔일지라. 표암이 평하다.” (鑿綠玉作九窮 工亦巧矣 吹之者人謂子晉 印則曰否 彼翩翩者羽何以爲雉 雉之角也 豹菴評)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다. 작열하는 태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맞으며 인파속에 부딪혀 바닷물속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심심산골에 들어가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고 숲속의 방향(芳香)을 맡으며 마음 속의 신선을 만나보는 것도 관찰을 법하다. 그러면 혹시 신선동자의 피리소리가 들릴 지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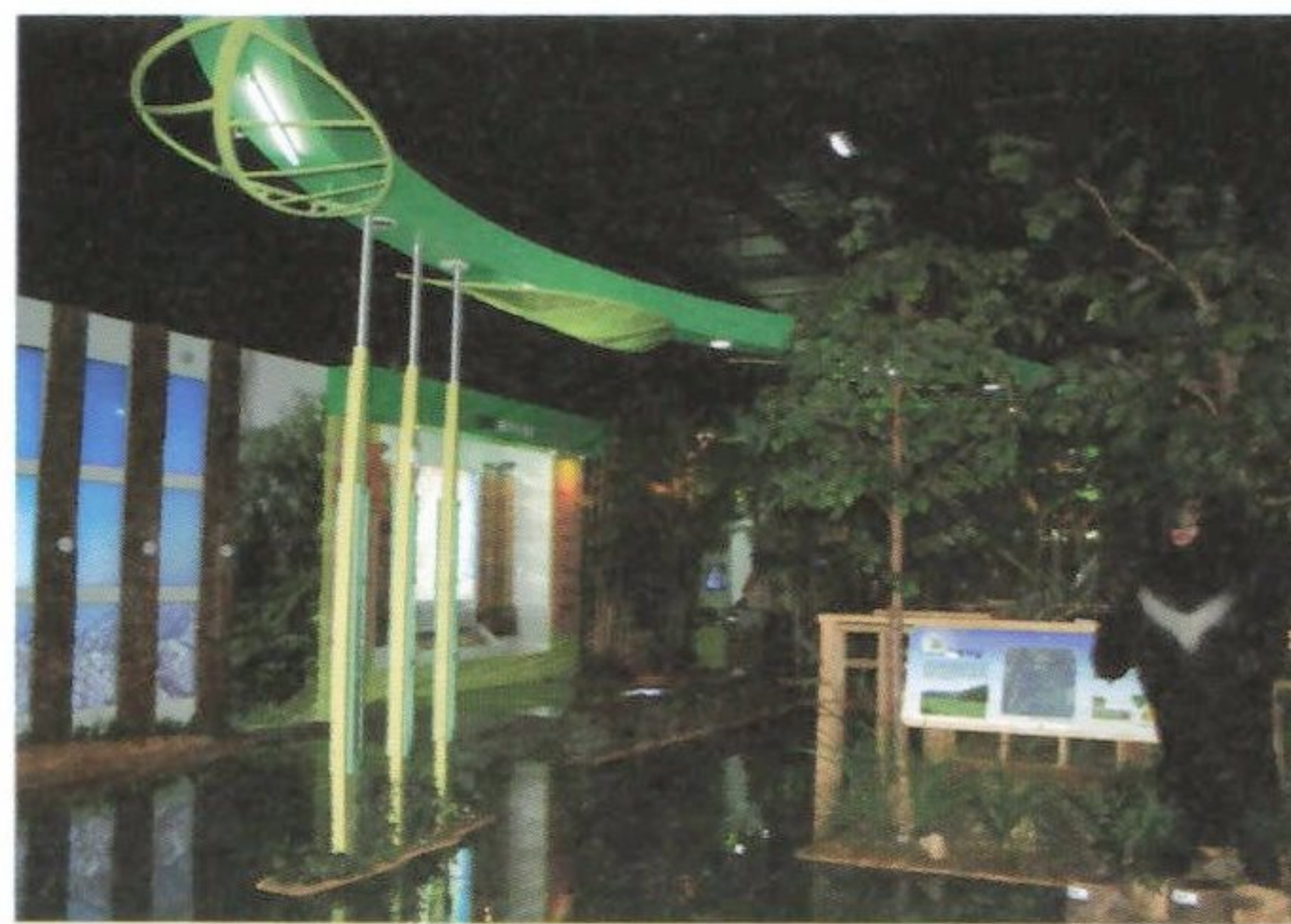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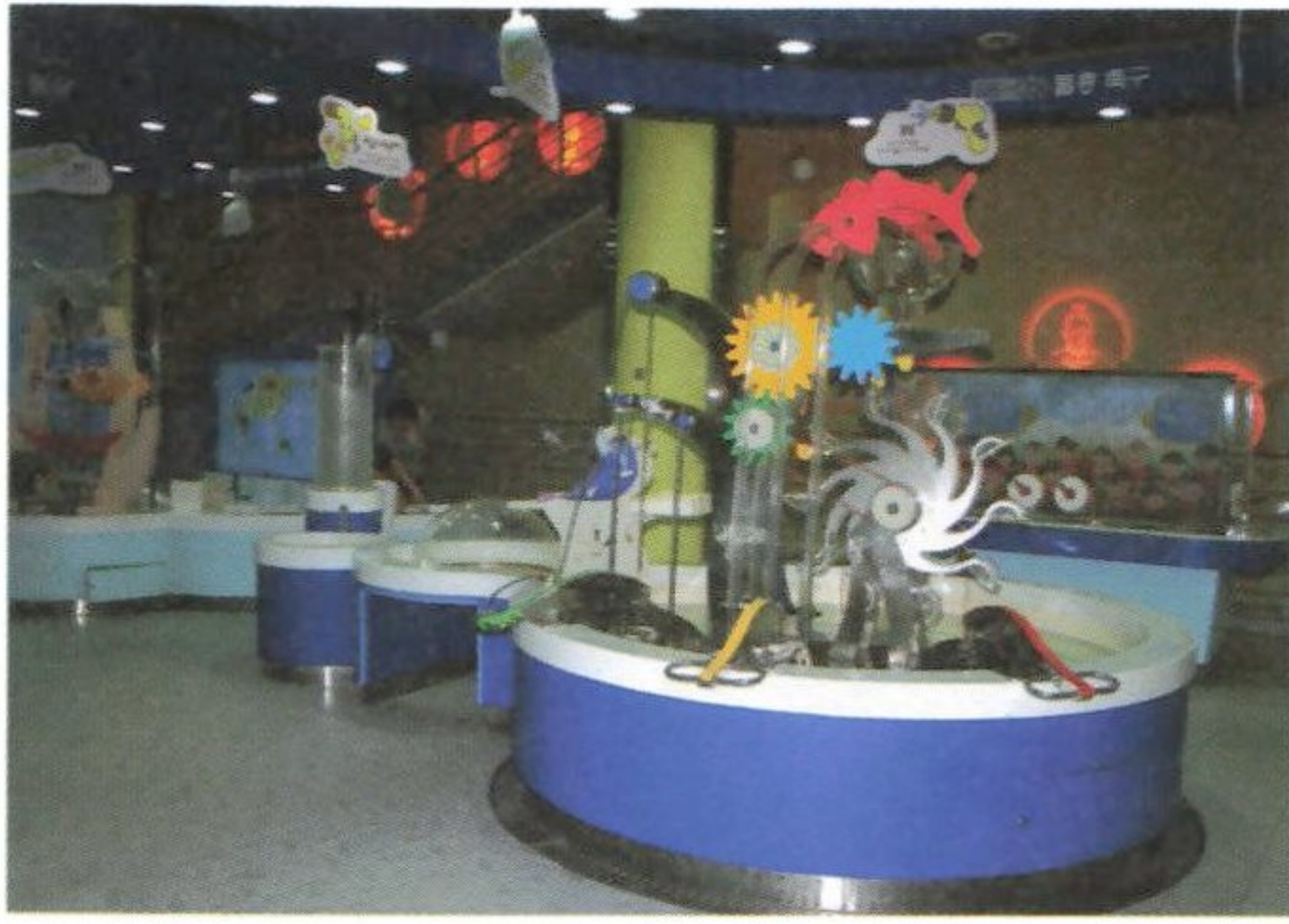


재미, 감동, 꿈을 주는 울산과학관

지루했던 장마도 물러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시원한 바닷가나 계곡을 찾아 한여름의 폭염을 피해보는 것도 좋지만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을 위해 의미있는 나들이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과학에 대한 신비와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울산과학관으로 온가족이 함께 체험여행을 떠나보자.

올해 3월 문을 연 울산과학관은 가장 최근 건립된 과학관 답게 최첨단 과학체험물이 전시되고 있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이 240억원을 들여 기증한 울산과학관은 그 연면적만 1만7천㎡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4차원 영상장치를 활용한 '4D 익스트림 사이언스' 등 각종 첨단 과학체험물이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과학관으로 사랑받고 있다.

울산과학관에 도착하자 대형 경기장 돐을 연상시키는 본관 건물이 우선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상 6층, 지하 2층의 과학관 건물과 야외전시장이 들어선 울산과학관은 과학전시체험관과 천체체험관, 과학실험실 및 강의실, 빅뱅홀(시청각실), 코스모스 갤러리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서 5층까지 테마별로 전시된 과학전시체험관은 1층 시간의 장, 2층 만남의 장, 3, 4층 생각의 장, 5층 탐구의 장 등으로 분류해 과학과 연관된 103종의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되고 있다. 1층에서 5층까지 전시실을 따라 이동하면 블랙홀, 피타고라스 정리, 파스칼의 피라미드, 베르누이 법칙, 낙하실험 등 과학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과학현상들을 쉽고 재미있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2층에 자리한 '유아과학체험실'은 5세에서 9세까지 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놀이 체험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물총축구, 물악기, 물분수, 공기대포, 공분수, 아치형 다리만들기 등 재미나는 놀이를 통해 과학체험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 들에게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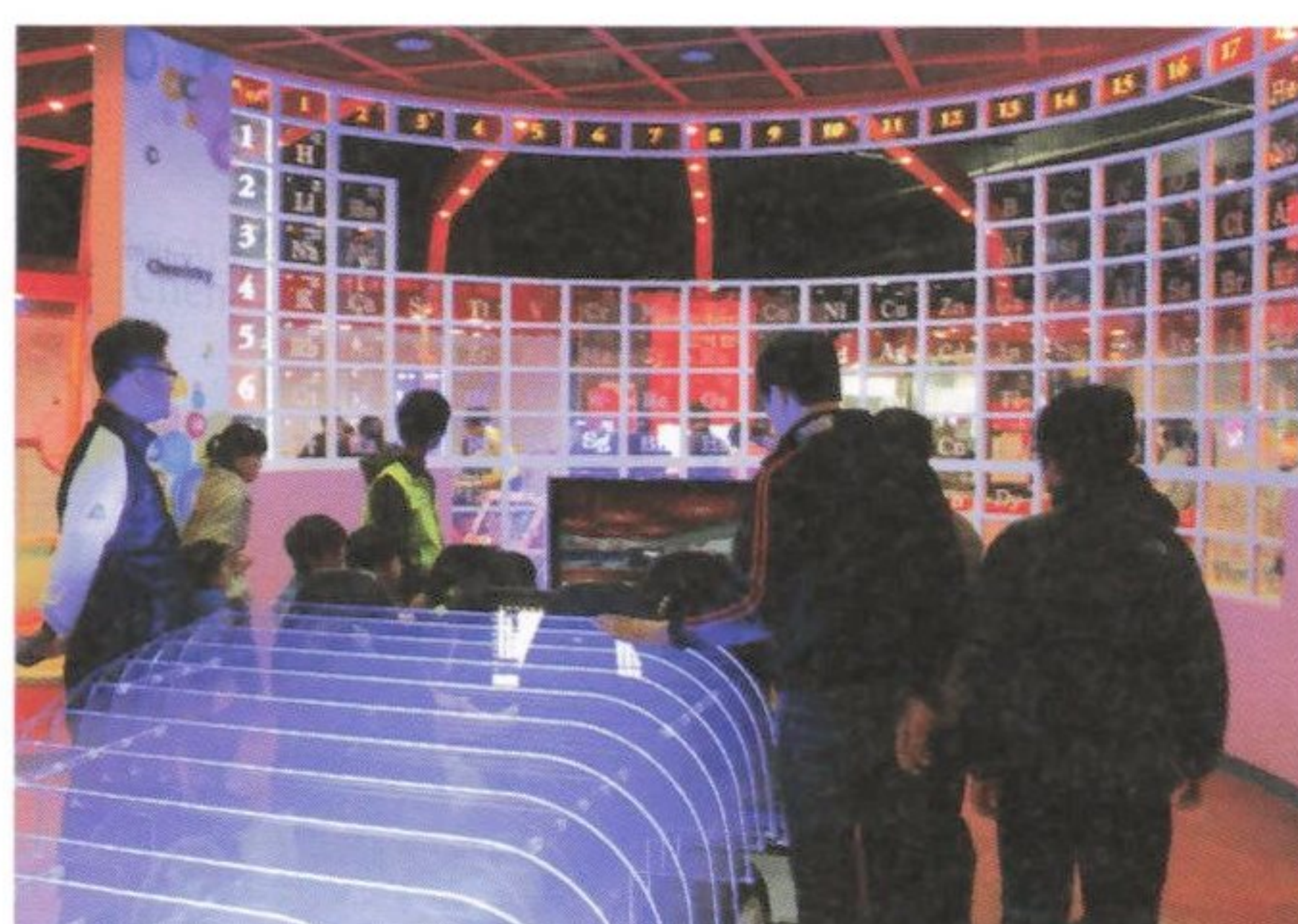
각종 첨단 과학체험물을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중심의 과학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울산과학관

천체체험관은 별도의 돔 형태로 조성된 별빛천체투영실과 주관측실, 보조관측실인 별보미천체관측실로 이루어져있다. 별빛천체투영관은 전체 면적 320㎡, 지름 16m의 축구공 형태로 내부에 15도 경사의 관람석 137석이 있어 관람객이 편하게 누워서 태양계 등 9천여개의 우주 별자리를 3D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계절별 별자리 체험을 비롯해 각종 입체과학 영상물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상영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별보미천체관측실에는 직경 250mm 굴절식 망원경과 400mm 반사, 굴절식 망원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별이나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 또 매달 넷째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우주와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다. 8월에는 국악 선율 속에서 별 이야기를 듣고 국악을 함께 배워 보는 '국악 속의 별별소리'가 펼쳐진다.

울산과학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론 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로 학교 단체가 찾는 평일 프로그램과 달리 주말에는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빛체험교실과 주말과학체험교실, 토요일명탐구, 토요일수학체험마당 외에도 매월 두차례 마술공연과 과학영화를 상영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 한마당과 과학자 초청특강, '우주와 예술의 만남' 행사는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8월 울산과학관에서는 방학을 맞은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여름방학 맞이 별빛축제'를 연다. 8월 16일과 17일, 18일 사흘간 별빛천체투영관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터팬의 별이야기' 행사가 펼쳐진다. 피터팬 모습으로 분장한 최영희 동화구연가가 별자리 영상과 함께 별이야기를 들려주며 별자리노래도 배워 보는 시간도 갖는다. 영어회화가 가능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과학체험교실'은 8월 3일과 5일, 10일, 12일 나흘간 5층 사이언스랩에서,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선생이 영어로 별자리를 설명하는 'English Space World'는 8월 6일과 13일 이틀간 별빛천체투영관에서 진행된다.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별빛축제'는 8월 16일부터 사흘간 별보미천체관측실에서 열리는데, 자녀와 함께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고 투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뮤지컬 'Fun&Fun' 뮤지컬은 8월 7일과 13일, 옥수수 관련 연구로 유명한 김순권 박사 초청강연은 8월 13일 빅뱅홀에서 펼쳐진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울산과학관 홈페이지(www.usm.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개관시간 | 오전 10:00~오후 5:00(동계기간은 오후 4:00까지)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단 어린이날은 개관)
- 문 의 | 울산과학관(052-220-1700~1701, www.usm.go.kr)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

아코디언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아코디언동호회 미라클

아련한 옛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력을 지닌 악기, 아코디언. 오른쪽 건반은 멜로디로, 왼쪽 버튼은 반주로 동시에 연주가 가능해 풍부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1인용 오케스트라'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예전 장터나 서커스단에서 주로 연주되면서 '약장수 악기'라 불리며 악기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지만 최근들어 아코디언 특유의 애잔한 음색에 반해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코디언을 체계적으로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이 등장하면서 아코디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결성 2년을 조금 넘긴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 역시 이런 아코디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다.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 결성에는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코디언 연주자 김지안 씨의 역할이 컸다.

2008년부터 창원 성산아트홀 문화대학에서 아코디언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안 씨는 그 때 만난 제자들을 중심으로 아코디언 동호회를 결성하고 '마음을 뒤흔드는 아코디언의 선율로 기적같은 변화를 일으켜 보자'는 의미로 동호회 이름을 '미라클'로 명명했다. 2009년 4



2009년 4월 결성된 후 창원과 부산을 중심으로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은 온천천 야외공연이나 복지관 순회공연 등을 통해 아코디언의 대중화에도 앞장서 왔다.

월, 9명에서 출발한 회원들은 현재 회원 20여명이 창원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연령층이 높은 다른 아코디언 동호회와 달리 '미라클'에는 30~40대 회원들이 많다.

한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는 '미라클'은 8월에 부산, 창원의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MT를 준비하고 있다. 창원과 부산, 지역이 달라 자주 모이지 못하는 만큼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아오다 일년에 두 번 MT를 통해 그동안 쌓은 실력을 회원들 앞에서 서로 선보인다. 동호회 결성 후에는 틈틈이 온천천 야외공연이나 복지관 순회공연 등을 통해 이웃에게 아코디언 연주도 들려주면서 아코디언 대중화에도 앞장서 왔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지안 씨가 아코디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4년. 부산, 경남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유아 음악교육을 지도하면서 평소 유아 음악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딸에게 가르칠 악기를 고민하던 중 운명적으로 아코디언을 만났다. 우연한 계기로 참여했던 유럽 순회연주회에서 함께 무대에 섰던 외국인 연주자의 아코디언 연주를 직접 보게 된 것. 아코디언이 뿜어내는 풍성한 소리에 반한 김지안 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수소문 끝에 밤무대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분을 만나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저 취미로 생각했던 아코디언을 배울수록 그 매력에 빠진 김지안 씨는 결국 체계적인 음악수업을 위해 이탈리아 유학을 감행했다. 이탈리아 AMI Academy에서 아코디언 디플로마 3년 과정을 마친 그는 2008년부터 전문연주자로 무대에서

며 창원 성산아트홀 문화대학에 출강하면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2009년부터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한 김명희 씨. 김지안 씨의 고등학교 선배기도한 그는 우연한 자리에 김지안 씨와 동석하면서 아코디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음악전공자인만큼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다”는 그는 6월 18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일 하모니카 교류음악회’ 무대에 스승인 김지안 씨와 듀오연주회를 갖는 등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또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김명희 씨에게 아코디언은 어려운 이웃에게 한결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고마운 악기이다. 연주를 들려줄 때마다 눈물까지 흘리면 좋아하는 이웃들을 보면 고맙고 뿌듯하다.

“처음에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말렸어요. 왜 탄파라 악기를 하느냐며. 아코디언도 따지고 보면 유럽의 전통 클래식 악기인데, 악기 자체로서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아쉬워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악기도 좋지만 제대로 된 악기로서의 가치도 알려나가고 싶다는 김지안 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코디언 수업에 열심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또, 동호회 '미라클' 역시 제대로 된 아코디언 연주를 할 수 있는 아코디언 전문 동호회로 꾸려나가고 싶다.

● 문 의 | 아코디언 동호회 '미라클' 김지안(010-4228-8448)



생의 시작에서 끝을 한자리에서 마주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1회 정기연주회

박진홍_음악평론가



새벽의 미미한 여명처럼 한 인간의 삶은 작고 보잘것 없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잠재되어 있던 달란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응집된 힘은 곧 거대한 열정의 파도가 되어 일렁인다. 젊음이 발산하는 사랑과 고뇌, 열정과 좌절의 감성이 해안을 감싸 안은 절벽의 절리처럼 쌓인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끊임없는 투쟁과 타협, 모이고 흩어짐과 함께 시간은 급히도 흐른다. 그 길었던 여정도 돌아보면 작은 눈동자의 움직임으로도 살필 수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인가. 고요한 밤의 달빛이 눈썹위로 떨어지고, 인생은 그렇게 눈을 감는다.

중국의 감성을 부산으로 몰고 왔던 리 신차오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 471회 정기연주회는 한 인간의 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듯 드라마틱했다. 첫 곡 주페의 서곡 〈시인과 농부〉에서는 가슴까지 파고드는 첼로의 선율과 현악기들의 균형 잡힌 움직임, 섬세하며 목가적인 목관악기들의 표현, 한층 풍성해진 금관악기의 음색까지, 모든 것들이 더해져 열정적인 청년기로 향해가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시기인 청년기는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그 역할을 맡았다. 필자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 각종 콩쿠르를 휩쓸며 두각을 드러냈던 김재원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며 매우 리드미컬했던 테크닉과 보잉을 기억한다. 그

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고, 이날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의 연주는 그간의 활발한 활동에서 느끼듯 그 예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프로코피예프의 1번 협주곡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와는 다른 2번의 서정성과 또 그에 대비되는 테크닉과 리드미컬함을 대담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다.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당당함과 자신감이 살아 있는 움직임과 음색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훌륭한 연주를 선사해 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아직 성장기에 있는 그녀에게 음악과 삶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 연주에 더욱 깊은 심연을 더해 주기 부탁한다.

후반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연주되었다. 취임 이후, 대륙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그가 들려주는 차라투스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번 연주를 통해 리 신차오는 그만이 가진 색채를 다시 한 번 선보이는 것 보다는 작품이 가진 의미 자체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 같다. 작품이 가진 철학적 가치들을 파고드는 듯 연주를 통해 철학과 음악작품을 관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이 가진 웅장함, 풍부한 악상과 치밀한 묘사 등이 한치의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9개의 악장 중 마지막 〈밤의 방랑자의 노래〉가 숨이 멎을 듯 가늘고 작은 소리로 사라졌을 때, 필자는 리 신차오와 부산시립교향악단에 환호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의 조직력과 작품의 장엄함, 그 속에 깔려 있는 철학적 사색의 끝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리 신차오가 지난 5월 재계약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더 긴 음악 여행을 하고자 했다. 그만이 가진 감성적 매력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대작의 기행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지역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야구 프로그램

남인용_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 장마로 순연된 경기가 사상 최다를 향하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은 야구장에서 또는 텔레비전 앞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야구의 매력에 열광한다. 방송에서 프로야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방송 3사가 운영하는 3개 스포츠 채널의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도 시청자들을 모은다. 생방송으로만 보여지던 프로야구의 중계방송은 녹화방송으로도 수차례 활용된다. 이 정도면 시청률 높은 예능프로그램 못지않다.

인기 절정의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올해로 30년째가 된다. 30년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와 같은 원년 창단 구단과 미흡한 시설의 프로야구 경기장이다.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와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원년 그대로의 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영남 연고 기업의 안정성과 지역 사회의 끈끈한 야구 사랑을 보여준다. 프로야구 원년과 마찬가지로 비가 오기만 하면 금방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야구장은 30년 동안 기반 여건의 개선에는 소홀했음을 증명한다.

비오는 날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돛구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없는 돛구장 타령만 30년이 되다보니 질릴 지경인데 아직도 돛구장은 프로야구계의 꿈이다. 거액을 들여 돛구장이 지어지더라도 돛구장이 경제성을 갖고 운영되려면 야구 경기가 없을 때 돛구장을 채울 문화 행사가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고가의 문화행사가 연중 향유되려면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과 문화잠재력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미디어의 관심이 요구된다.

프로야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 팀명은 '부산 자이언츠', '대구 라이온즈' 등으로 불렸다. 지금은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처럼 운영 기업명으로 부르지만 당시는 연고 도시 명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처럼 프로야구단에서 지역 보다는 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 지역 연고 구단이 우승하면 그 지역의 모든 기업이 우승 기념 관측행사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해당 기업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한다. 프로야구가 지역민들의 애정만큼 지역민과 함께 하려면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프로야구를 보며 전국의 야구장을 다녀본 소감은 야구를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시각에서만 즐기는 관중이 많다는 아쉬움이 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은 잘 알지만 나머지 7개 팀에 대해선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상황엔 지역 미디어도 책임이 있다. 지역 연고팀에 대한 응원은 관중의 몫이지 방송의 몫이 아니다. 우리 지역 팀이 무조건 최고라고 주장하기보다 우리 지역 팀이 최고가 되도록 질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지역 팀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

프로야구 프로그램이나 프로야구 보도는 프로야구와 연고 지역의 유대감 강화에 힘써야 한다. 돛구장처럼 문화기반을 갖는 시설로의 개선 노력, 연고 지역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구성,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보도 등이 이루어질 때 프로야구는 연고 지역민의 애정과 함께 한 차원 더 성장한다. 역대 최소경기인 307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하여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프로야구의 질적인 성장을 방송이 뒷받침할 수 있다.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한 여름밤의 콘서트

8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강재권

여름의 도시 부산, 시원한 바다와 서정적이고 정열적인 선율로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한여름밤의 콘서트.

대중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유명숙을 비롯해 소프라노 정재형, 테

너 김한길, 첼리스트 남수인 등이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퓨전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바위같이 단단한, 동심초, 7080 메들리 등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강재권)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2. 우쿨렐레 피크닉

8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우쿨렐레를 들고 나타나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와이의 낭만을 선물해준 '우쿨렐레 피크닉'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22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2010년 1집 앨범 '우쿨렐레 피크닉'을 발표하며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하와이 악기 '우쿨렐레'를 알리는 작업을 해온 '우쿨렐레 피크닉'은 최근 2집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를 발표, 새로운 스타일의 우쿨렐레 음악

을 들려주고 있다. 2집의 멤버는 우쿨렐레 피크닉의 프로듀서이자 영화음악 감독인 이병훈과 음악활동 외에도 우쿨렐레 교재, 악보집 출간, 교육용 DVD 출연 등으로 우쿨렐레의 아이콘이 된 조태준, 퓨전국악밴드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김진아가 참가했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club.cyworld.com/0911.concert)

부산-시카고 자매도시 국제교류 행사 Mark Damisch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나눔과 행복 음악회

8월 14일 일요일 오후 7:00 >>> 대극장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음악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해온 시카고 출신의 변호사 피아니스트 마크 데니쉬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나눔과 행복 음악회.

마크 데니쉬는 Damisch & Damisch, Ltd. 회장이자 변호사로, 1991년부터 의료사고와 개인 상해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어 왔다. 마크 데니쉬는 그동안 미국암학회 Goldman Partnership, 시각장애인들과 고아원을 위해 모금하는 Sue Ryder Foundation, 아프리카 1천만 명의 시각장애아동을 돕는 Christopher Blind Mission 파킨스병학회, 소아암과 백혈병의 치료를 돕는 CLIC 등의 후원으로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펼쳐 왔다.

부산의 자매도시 시카고와의 교류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부산연주회의 관람료 수익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관람료 초대

::문의 나눔과행복병원(507-800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와 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1년 무대.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오랜 감동으로 남아있는 영화와 TV드라마 OST를 영상과 국악선율로 즐겨보는 1부와 재즈피아노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민요주제에 의한 기타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울림, 설장구 협주곡 등 다양한 악기와 함께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파워풀한 2부 무대를 구성,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영화음악/서편제, 태백산맥, 축제, 은행나무침대, 왕의 남자, 취화선, 춘향년

드라마 음악/동이, 대장금, 삼포가는길, 추노, 이산 양방언/재즈 피아노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프론티어' '제주왕자'

이병욱/민요주제에 의한 기타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울림

이경섭/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 지휘/김철호

· 편곡/백규진, 박선영

· 사회/김지현

· 영상/김희진(영화감독)

· 재즈피아노/황현숙

· 클래식기타/고충진

· 설장구/풍류전통예술원(박종환, 이정현, 권용우, 최선희, 홍병규)

::관람료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 대극장



쉽고 재미있는 청소년음악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1년 무대.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 새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보이스트 이희정, 바이올리니스트 장은영이 부산 청소년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치마로자/오보에 협주곡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오보에/이희정 · 바이올린/장은영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영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8월 19일 금요일 오후 4:00, 7:30 >>> 소극장

오륙도초, 양성초, 분포초, 대전초, 좌동초, 하남초, 성동초, 부흥초, 상당초, 용문중 등 부산 시내 초·중학교 10여개 학교 학생 23명이 뮤지컬 작업에 참여해 직접 만들어낸 영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연출/김성경 · 음악감독/서정아

· 안무/현선화 · 연기/윤은대

· 노래/김유진

출연

박세은, 차민재, 차승민, 김효린, 양지호, 김지영, 황현지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공연기획 꿈꾸는 아이(010-7503-6564)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정기연주회
'Let's Dance'**

8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1989년 부산클라리넷앙상블로 출발, 클라리넷 대중화와 후진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클라리넷콰이어가 들려주는 'Let's Dance'.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주자 정우영과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클라리넷콰이어는 1997년 대구, 경북 지방에서 활동하는 클라리넷 주자들을 영입, 제 2의 창단을 맞았다. 한국과 일본에서 한·일 합동 연주를 가진 바 있는 부산클라리넷콰이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을 들려주었다.

이번 무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원혜국립음대,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임성혁이 지휘한다.

::프로그램

그리그/서정소곡-트롬하우겐에서 결혼식, 난장이의 행진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작품 71a

브람스/헝가리 무곡

피아졸라/리베르탱고

· 지휘/임성혁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클라리넷콰이어(010-8280-4646)

**제 4회 국제광고제와 함께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콘서트**

8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뉴욕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콘서트.

1996년 뉴욕의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세계 34개국 300여명의 참가자 중 14세의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차지, 세계음악계를 놀라게 한 오주영은 11살 때 산호세심포니와 두 차례 협연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뉴욕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스엔젤레스필하모닉, 상트 페테르부르크필하모닉, 폴란드 국립오케스트라, 체코 라디오심포니 등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2003년 6월 카네기홀 데뷔 독주회를 가진 오주영은 뉴욕의 콘서트 리뷰지로부터 '천재적인 기질 뿐 아니라 진정한 거장으로스의 테크닉과 음악적 감수성을 가진 열정적인 연주자'라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미 전역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현악부분 전체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부산국제광고제를 기념해 윤상운이 지휘하는 인코리안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 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살고 싶어라'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 지휘/윤상운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우정출연/소프라노 김유진

::관람료 VIP 60,000원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1600-1803)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합창으로 하나 되는 여름밤'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교류와 발전을 위해 시작된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이 출연하는 2011년 교류음악회는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우리에게 친숙한 합창음악을 발췌, 감미롭고 때로는 웅장한 한여름밤 합창 축제를 연다.

3개 시·도 연합여성합창단과 연합남성합창단, 3개 시도 합창단 전 단원이 참가하는 150명의 연합합창단이 특별한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오프닝/멕시코 축복의 노래(Las Mananitas)
여성합창/알렐루야, 코랄(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바흐 칸타타 147번 중에서), 헤이 주드, 귀천, 칭-칭-아-리아

남성합창/평화를 주소서, 굿 나잇, 레이디스, 성자들의 행진,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연합합창/나는 민네(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 거룩하시다(Sanctus, 샤를르 구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영화 '더 미션' 중에서), 폭우 등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베이스/유형광
- 호른 솔로/백상홍(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바이올린 솔로/김나영(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타악기/이준희, 이성은, 예병현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1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 마음을 이야기하다 -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정진희 오숙례 윤은하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자신만의 춤언어와 몸짓으로 직접 빚어내는 개성 넘치는 창작무대 2011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올해는 여러 모양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마음의 갈등을 틀에 비유한 부수석단원 정진희의 '틀II', 진도 씨 김곳의 예술성 표현에 중점을 둔 상임단원 오숙례의 '몸풀이 몸곳', 한국춤 발디딤을 서양춤인 탭댄스와 접목시킨 상임단원 윤은하의 '다른 길이 있다' 등으로 한여름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틀II(대본, 연출, 안무/정진희, 출연/정진희, 특별출연/오수연, 이현정, 김경미, 김시현,)

몸풀이 몸곳(대본/박준식, 안무/오숙례, 출연/오숙례, 특별출연/박준식)

다른 길이 있다(대본/백경옥, 연출/장우성, 안무/윤은하, 출연/윤은하, 이현주, 이상민 김도은, 장영진, 박미나)

· 무용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1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

8월 24일-25일 수-목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 중극장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어린이 음악회 '악



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
지난해 '악기가족, 다 모여라'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되는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에서는 올림픽 시상식에서 연주되고 있는 '올림픽 팡파르'와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특성을 스포츠 형식을 빌어 설명하는 작곡가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 등 올림픽 경기를 눈이 아닌 악기들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색다른 무대가 마련된다.

::프로그램

악기나라의 가족을 만나보아요~
다함께 응원해요, 악기 선수들!
악기나라 올림픽 개막식-Olympic Fanfare and Theme-John Williams

악기나라 올림픽 경기 대회~Orchestra Games-Gregory Smith

- 함께 울동하며 노래해요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경기중계/이혁우, 윤재평
- 울동/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관람료 균일 2,000원(단체 30명 이상 1,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1 브니엘 무용발표회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학과에 재학중인 재학생들의 발표무대.

한국무용, 창작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무대를 펼친다.

- 지도/황인숙

::관람료 초대

::문의 브니엘예술고등학교

(582-7671, 010-3575-2989)

2011 제 21회 부산신인음악회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지역 음악계를 이끌어갈 유망 음악도들의 등용문 부산음악협회 제 21회 부산신인음악회.
피아니스트 서영희, 소프라노 장희진, 테너 최광현, 플루티스트 장예지, 소프라노 양라운, 피아니스트 정예림, 소프라노 윤선기,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 나주희, 바이올리니스트 오현정이 출연한다.

- ::프로그램**
라벨/모음곡 '거울' 제 4곡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슈베르트/물레감는 그레첸
칠리아/오페라 '아를르의 여인' 중 '페테리코의 탄식'
멘델스존/론도 카프리치오소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2,000원 · 학생 10,000원(자유석)
- ::문의** 의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4-1295, www.bmasso.or.kr)

Trio J 창단 연주회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00 >>> 소극장



임재성 이현주 허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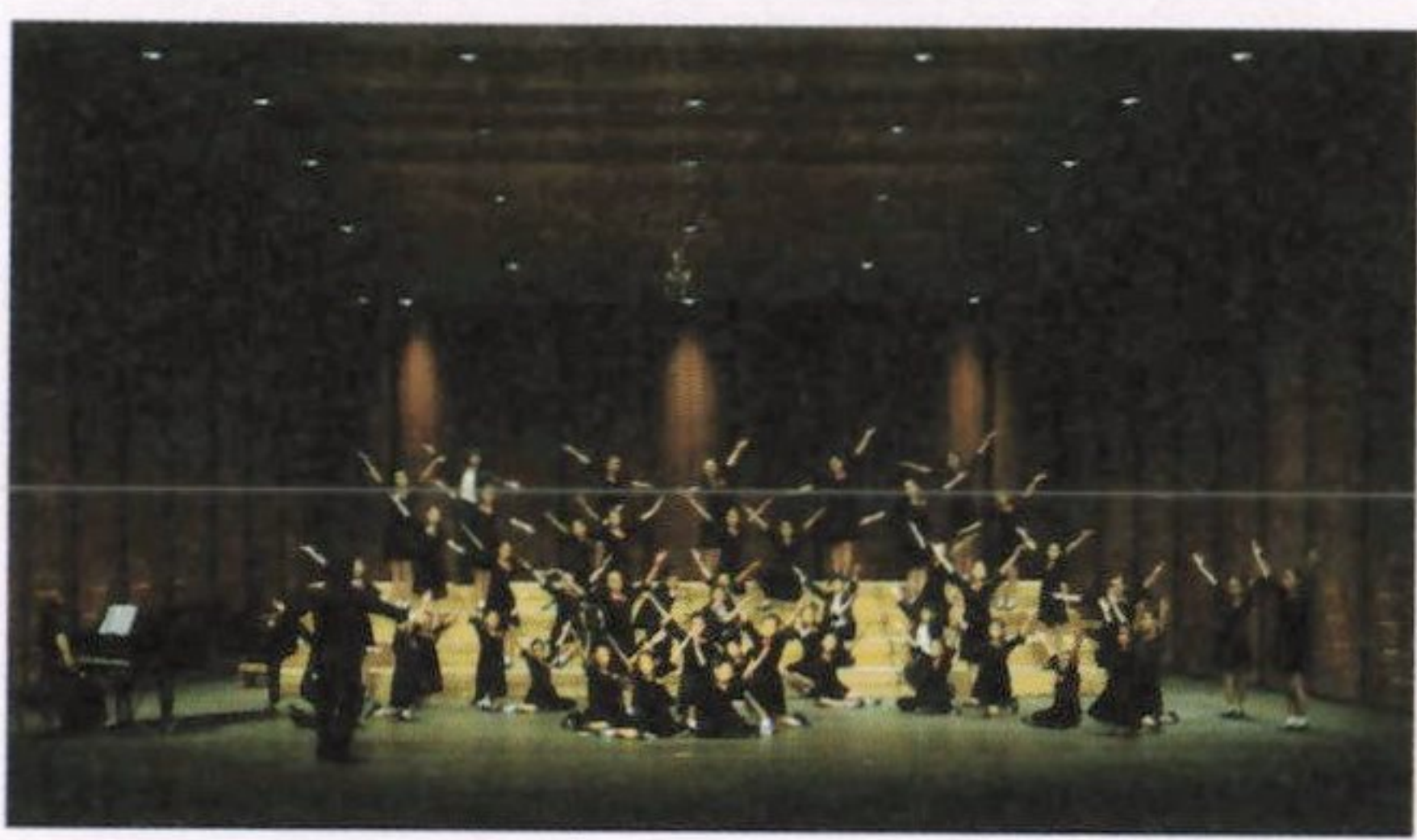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에 유학중이던 임재성(클라리넷), 이현주(피아노), 허지윤(바이올린)이 다채로운 프랑스 음악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 창단한 Trio J의 창단연주회.
Trio J는 창단 후 프랑스 EPINAL 실내악 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 프랑스 BREST 실내악 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 Leopold Bellan 국제 콩쿠르 실내악부분 1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미요/모음곡 작품 157
뮐러/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46
카차투리안/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의 허지윤(513-7209, 010-2031-7209)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한국동요, 가곡, 민요
8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 대극장
(8월 25일 목요일 오후 6: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음악선물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한국동요, 가곡, 민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 수석지휘자의 지휘와 해설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어렵게만 느끼는 음악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들려주게 위해 중,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중심으로 선곡, 춤과 노래가 함께 하는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동요메들리 '5월의 꽃' (최석태 편곡)/무궁화 행진곡,
어린이 왈츠, 새싹들이다, 어린이행진곡,
파란마음 하얀마음, 아이들은, 앞으로
베토벤/아델라이데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Pace, Pace mio Dio(신이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곡/기다리는 마음, 고향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신아리랑
아름다운 민요/새야 새야 파랑새야, 강강 수월래,
신고산 타령, 추천가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독창/김종영(단원, 부산예고2년)
 - 특별출연/안주희(부산시립무용단원)
김윤호(부산시립무용단원)
- ::관람료** 초대
- ::문의**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장래훈 개인출판
8월 27일 토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이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의 개인출판.
장래훈은 전국 국악무용경연대회 대상, 전국 전통경연대회 무용부 특상을

- 수상한 바 있다.
- 출연**
장래훈, 서현미, 김동숙, 김미란, 김주연, 김진영, 박성용, 강모세, 이현주, 최의옥, 안주희
- ::관람료** 초대
- ::문의** 의 장래훈(010-3837-7786)

부산 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17회 정기연주회
8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 중극장

1998년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창단된 부산 YMCA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연 2회의 정기연주회와 여름, 겨울방학 연습캠프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온 부산 YMCA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6년 장진 상임지휘자를 영입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돈조반니 서곡
메르카단테/플루트협주곡 마단조
번스타인/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
베토벤/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제 2번
- 지휘/장진(YMCA오케스트라, 한국영재학교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 바이올린/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플루트/김보영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의 양지성(010-3661-6806)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U.K.O 오케스트라 제 23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 8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신상준 김상은 하석배

부산, 경남지역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결성된 U.K.O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23회 사랑나눔 음악회. U.K.O 오케스트라는 2007년 9월 부산과 LA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주회를 비롯해 제주 초청연주, 김해 초청연주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이흥렬/꽃구름 속에
영화음악/ '인디애나 존스' 중 '레이더 행진곡'
'여인의 향기' 중 '탱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하이라이트'
레하르/ '메리 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신상준
· 소프라노/김상은 · 테너/하석배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정희자(011-589-3111)

고신의대관현악단 제 16회 정기연주회 8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3년 순수 클래식을 연주하기 위해 창단된 고신의대관현악단의 제 16회 정기연주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온 고신의대관현악단은 음악을 단순히 취미생활에 한하지 않고 환우들, 삭막한 의료계에서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1번

부르흐/바이올린협주곡 제 1번
베토벤/교향곡 제 2번
· 지휘/황장수
· 협연/김선린(바이올린, 본과 2학년)
::관람료 무료
::문의 임준현(010-8469-9641)

2011 제 12회 부산실내악페스티벌 8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의 실내악발전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해 부산지역 실내악단이 들려주는 부산실내악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윤주연, 첼리스트 김기량, 피아니스트 오선지가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트리오 '하임트리오(HeimTrio)', 피아니스트 최윤희,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현, 비올리스트 송고은, 첼리스트 김기도, 콘트라베이스 주자 박경호가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5중주 '브릴란트 앙상블(Brilliant Ensemble)', 바수니스트 정인주, 양영철이 활동하고 있는 바수듀오 '컬러풀 바수앙상블(Colorful Bassoon Ensemble)',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정운봉, 비올리스트 성정인, 첼리스트 박준현이 활동하고 있는 '클레다(Cleda) 현악4중주',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김도경, 비올리스트 김은진, 첼리스트 정준수가 활동하고 있는 현악4중주 비르투오조앙상블(Virtuoso Ensemble)이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피아졸라/사계(Fourseasons) 중 '여름' '겨울' '봄'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D667(작품 114)
반할/두 대의 바수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바장조 등
::관람료 일반 12,000원 · 학생 10,000원(자유석)
::문의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4-1295 www.bmasso.or.kr)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의 세계화

8월 30일-9월 3일 화-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중극장
프린지콘서트 8월 27일-28일
>>> 부산 시내 일원 및 지하철 역사 내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두 번째 무대. 올해는 'Musical Globalization-음악의 세계화'를 주제로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의 연주가들이 세계화된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특히 올해는 서양음악과 우리음악의 조화를 통해 세계화를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담아 우리시대의 명인 김덕수와 안숙선 명창과 함께 하는 국립부산국악원연주단의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폐막연주 등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개막연주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

8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프로그램

로시니/비단사다리 서곡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 더블 콘체르토
아테르베리/바이올린, 비올라, 현악기를 위한 모음곡
작품 19 등
· 지휘/히코타로 야자키
· 협연/에드워드 아론(첼로), 강동석(바이올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 김상진(비올라)

▶국악의 진수-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안숙선



김덕수

::프로그램

수제천, 쌍춘앵전, 포구락 합설

한반도아리랑순회

판소리/심청가 중 '방아타령'

박범훈/신모듬 중 3악장 '놀이' 등 수곡

· 협연/김덕수(사물놀이), 안숙선(판소리)

▶ 실내악의 밤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 프로그램

헨델/할보르센 파사칼리아 사단조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KV 581

브람스/피아노 4중주 1번 사단조, 작품 25

· 연주/강동석(바이올린), 에드워드 아론(첼로), 플로랑 에오(클라리넷), 제레미 뎅크(피아노), 김복수, 신상준(바이올린), 김가영(비올라), 양욱진(첼로)

▶ 철새악사와의 가족콘서트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 프로그램

Sirba from Rumania, Hommage á Khatchaturian, Kovacs, Horo and ratchenitza from Bulgaria

Brasileirinho, Azevedo, Tico Tico, Abreu 등 수곡

· 연주/플로랑 에오(클라리넷), 브루노 데무이에르(퍼커션)

▶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9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3번 다장조, 작품번호 37

슈베르트/교향곡 제 9번 다장조 '그레이트'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제레미 뎅크(피아노)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폐막연주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학생 50% 할인)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2-8291)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즐거운 여름의 캠프송'

8월 13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세계민요/미국민요 'Harmony Greeting(화음인사)', 프랑스민요 '캠프의 노래', 미국민요 'How d'ye do?(안녕하세요?)', 스위스민요 '음악을 영원히', 독일민요 Gaudeamus Igitur(즐겁게 노래하자), 이태리민요 'Ti-Ri-Tomba(티리툼바)', 이태리민요 'Ma bella bimba(내 고운 님 춤도 잘 춰)'

:: 슈만/Frölicher Landmann(즐거운 농부)

:: 가요/모닥불, 개똥벌레, 등대지기, 고향생각,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해변의 여인, 한사람, 바닷가의 추억(편곡/최석태)

· 지휘/박광해(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곡중 솔로/테너 조성기

음악대륙 가이아 연주회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가야금/문포근, 반주/김인균)

:: 원장현류 대금산조(대금/손한별, 반주/김인균)

:: 이진구/Ability(해금/김원지, 피아노/홍정민)

:: One fine spring day(해금/김원지, 피아노/홍정민, 타악/김인균)

:: 강상구/아름다운 추억(대금/손한별, 해금/김원지, 피아노/홍정민, 타악/김인균)

:: 출항(가야금/문포근, 해금/김원지, 대금/손한별,



피리/신정현, 피아노/홍정민, 타악/김인균)

::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가야금/문포근, 해금/김원지, 대금/손한별, 기타/신정현, 피아노/홍정민 외)

:: 이경섭/맥(노래/김아름, 가야금/문포근, 해금/김원지, 대금/손한별, 피리/신정현, 피아노/홍정민 외)

:: 대지의 여신(노래/김아름, 가야금/문포근, 해금/김원지, 대금/손한별, 피리/신정현, 피아노/홍정민, 타악/김인균)

:: In-Joy(가야금/문포근, 해금/김원지, 대금/손한별, 피리/신정현, 피아노/홍정민, 타악/김인균)

정신혜무용단 공연

8월 27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승무(춤/하현정)

:: 창작춤 '뽕.벽-날다'(춤/하현정)

:: 살풀이춤(춤/최지은)

:: 창작춤 '淚.루-스미다'(춤/최지은)

:: 태평무(춤/박혜경)

:: 창작춤 '我.아-돌아보다'(춤/박혜경)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MUSIC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4일은 오후 4:00,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31일은 소공연장)

▶3일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1)
합창으로 듣는 대중가요



2006년 2~30대 여성성악가들로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미즈챔버콰이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무대.

· 지휘/김정현(미즈챔버콰이어 단장)

▶10일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2)

필 오퍼스와 함께하는 Love in Opera II
소프라노 이은미,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이승우, 바리톤 심정보가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최성근

▶17일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3)

임소영 & 김유진 듀오 리사이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라이프찌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뒤셀도르프시립합창단 음악코치를 역임한 피아니스트 임소영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피아노 트리오 'Arcobaleno' 단원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김유진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24일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4)

바리톤 고봉수와 좋은 친구들 '해피콘서트'
바리톤 고봉수와 소프라노 김수진, 도혜진, 엄남이, 신정순,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김상은, 해운대 Noi 여성합창단이 마련하는 해피콘서트.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신정, 계문정

▶31일 피아니스트 김성숙&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시리즈(5) 'Spain의 향기'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마련하는 프로젝트 무대. 솔레르, 투리나, 가르델, 알베니즈 등 스페인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바리톤 조성빈(아지무스 오페라단 단원)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국립부산국악원 전통나눔 창작연희 상설공연

매주 목요일 오후 7:30(11일 공연없음)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창작연희 작품공모 당선작 중 관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작품을 선보이는 전통나눔 창작연희 상설공연.

▶4일 천하제일 탈 공작소 '추서요'



선보인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황해도 봉산탈춤', '경상남도 고성오광대', '경상북도 안동 하회별신굿'의 탈춤 이수자들로 구성된 천하제일 탈 공작소의 예인들이 '탈극'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담은 창작극을

▶18일 미친광대 '이(異)판! 새(思)판! 심청(心靑)이야'
우리의 고전 '심청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한 전통연희극. 판소리와 놀이, 씻김굿으로 풀어보는 심청을 위한 인당수 씻김굿과 심봉사를 위한 살풀이가 펼쳐진다.

▶25일 연희집단 The광대 '아버찾아 뱅뱅돌아'

꼬챙이나 곰방대로 납작한 대접을 돌리는 전통놀이 '버나놀이'를 내세운 창작연희극. 툭툭 튀는 개성 만점 세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성장해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람료 무료(선착순 전화예매)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100)

금정문화회관 청소년음악회

8월 4일(목), 11일(목), 16일(화), 18일(목), 23일(화), 25일(목)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4일 벨루스 콰르텟 초청연주회



2009년 젊은 여성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청중과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연주'를 모토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벨루스 콰르텟 초청무대.

· 연주/고진영(리더, 바이올린), 김정현(바이올린),

김신희(비올라), 송인정(첼로)

▶11일 가지각색 즐거운 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로 결성된 아카펠라 앙상블 '에피소드', 피아니스트 원영아, 정성흠, 드럼주자 김정현, 동양적 색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국악그룹 '오리엔탈 토라:담음'이 들려주는 '가지각색 즐거운 음악회'.

· 해설/백현주

▶16일 Piano & Strings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결성된 후 현재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비르투오조앙상블과 피아니스트 이지선이 들려주는 실내악의 밤.

▶18일 Salon de Jazz

피아니스트 원영아, 플루티스트 박소영, 하지미, 첼리스트 박준현, 타악주자 이상진이 들려주는 색다른 재즈무대.

▶23일 Friends Concert

피아니스트 성민주, 이해경,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첼리스트 이예성, 클라리네티스트 김민지, 소프라노 김유진이 마련하는 'Friends Concert'.

▶25일 듀오연주회

네덜란드 Hoogeschool voor de Kunsten Utrecht를 학교 역사상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 졸업한 비올리스트 김나연과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카를레스 푸이그 루스칼레다가 함께 들려주는 듀오무대.

· 챔발로/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6)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6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살풀이, 포구락, 가야금병창, 설장구협주곡 '모리', 경기민요, 부채춤, 사물놀이

▶13일, 27일 가무악극 '부산 아라'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삶을 살아온 부산사람들의 희노 애락을 노래와 춤으로 엮은 가무악극.

▶20일 프로그램

산조춤, 남여창가곡 '태평가', 호적풍류, 동래한량춤, 태평무, 동부민요, 판굿 등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2011 제 7회 부산기타페스티벌

8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이 매년 여름 유명 기타리스트 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부산기타페스티벌 7번째 무대. 오키나와 전통악기인 '산신' 연주자 미야무라 미쓰오의 산신연주로 오키나와 전통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출연/기타듀오 섬머레인, 산신연주자 미야무라 미쓰오, 기타리스트 제정민,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서승완(010-5198-0074)

제 10회 동아피아노포르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한 여름밤의 연주

8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동아피아노 포르테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출연/최지원, 김미진, 이양희, 박정미, 송학, 류주영, 김미영, 김미연, 양라운, 김영숙, 박미숙, 김민희, 이현주, 곽윤희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이미라(011-868-7691)

열린 바다 열린 음악회

8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 광안리해수욕장 특설무대



한여름 광안리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열린 바다 열린 음악회.

가수 유리상자, 뮤지컬 배우 홍지민, 뮤지컬팀 뮤즈, 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조윤환, 국악인 김지혜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사회/박은주(충주MBC 아나운서)

·연주/바다오케스트라(지휘/박광식)

::관람료 무료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작가족오페라 콩쥐 팥쥐

8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우리나라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로 새롭게 탄생시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작오페라 '콩쥐팥쥐'.

·작곡/최석태(부산시립합창단 작, 편곡자)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콘서트콰이어

::관람료 균일 10,000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1,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꿈꾸는 이들의 노래

8월 10일 수요일 오후 5:00,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테너 김화정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꿈꾸는 이들의 노래'. 1부 중고등학생, 2부 대학생 이상 일반인들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피아노/이소영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소영(010-9336-1679)

<http://www.glovil.org> / [mail:glovil@paran.com](mailto:glovil@paran.com)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1. 9. 24 (토)

●부 문 : 피아노, 작곡, 성악, 현악, 관악, 실내악, 국악, 실용음악

●대 상 : 유·초·중·고(재학생포함) · 대·일반

●접 수 : 8월 17일~9월 17일

●접수처 : <http://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과제곡 : 자유곡 1곡(단 성악 및 피아노 부문의 중등부·고등부는 2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시 상 : 각 부문별 및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학원상 :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특전 : 전체 대상 및 전체 최우수상(개인연주회 개최 및 유학 오디오선용 CD 제공)

※각 부문별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글로벌 행복음악회 출연 자격)

국제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3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뜨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악도 : 홈페이지 참조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2회 청소년 교과서 음악회

8월 11일 목요일 오후 3:00, 5:00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12일 금요일 오후 5:00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
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
아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
라가 청소년들을 위해 마
련하는 교과서음악회.

· 지휘/오충근(수석지휘자)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
트라

· 협연/최영지, 박소영, 문예빈(바이올린), 김지윤(오보
에), 신정안(비올라), 문혜빈(플루트)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405-4577)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신명나는 국악보따리

8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5: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신명나는 국악한마당.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연주와 춤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알린다.

::관람료 균일 3,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100)

동래문화회관 체험교육음악회

8월 12일 금요일 오후 2: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야외공연장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클래
식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교육음악회.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연주와 더불어 야외공연장에
서는 다양한 악기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악기 전
시가 함께 펼쳐진다.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관람료 초대

::문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여름방학 특별기획 청소년 해설오페라 코지 판 투테

8월 12일 금요일 오후 7:00, 1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를
유쾌하게 그린 모차르트
의 희극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해설이 있는 오페
라 무대로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손욱

· 지휘/박중휘

· 연출/박기수

· 출연/김한나, 김정현, 최현민, 박종준, 박유화, 조성빈

::관람료 균일 10,000원

(8/10일까지 예매시 20% 할인)

::문의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시원한 여름음악회

8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휴가철을 맞은 가족들을 위해 경쾌한 클래식과 영화음
악으로 시원함을 선사하는 시원한 여름음악회.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오유리(바이올린)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부산클라리넷과르텟 제 16회 정기연주회 카르멘 판타지

8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6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200여회 특별연주회를
통해 국내 최고의 클라리넷 4중주단으로 사랑받은
부산클라리넷과르텟 정기연주회.



부산클라리넷과르텟은 클래식에서부터 팝, 재즈 등 다
양한 장르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연주/김태훈(리더), 권병욱, 김정민, 이성관

· 특별출연/황준호(마림바, 남문초등 3년)

::관람료 균일 10,000원(전화예매시 8,000원)

::문의 김태훈(010-2800-0604)

부산의치대관현악단 제 39회 정기연주회

8월 14일 일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으로 구성된 부산의치대관현악단은 1973년 창단 후
힘든 학업과 음악을 병행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
사해왔다.

· 지휘/박진 · 협연/김경하

::관람료 무료

::문의 최유진(010-3800-5006)

2011 칸타빌레 남성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8월 15일 월요일 오후 3:00,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매년 정기연주회 '교과서음악회'를 통해 성악무대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음악회.



· 출연/이은민, 이흥득, 양승엽, 김화정, 김길수, 안상철, 박기범, 김정대, 이상철
 ::관람료 균일 10,000원(학생 단체 5,000원)
 ::문의 안상철(010-2400-5271)

제 4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8월 16일 화요일 오후 8: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장진규, 양승엽, 허동권 등 세명의 테너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 메들리를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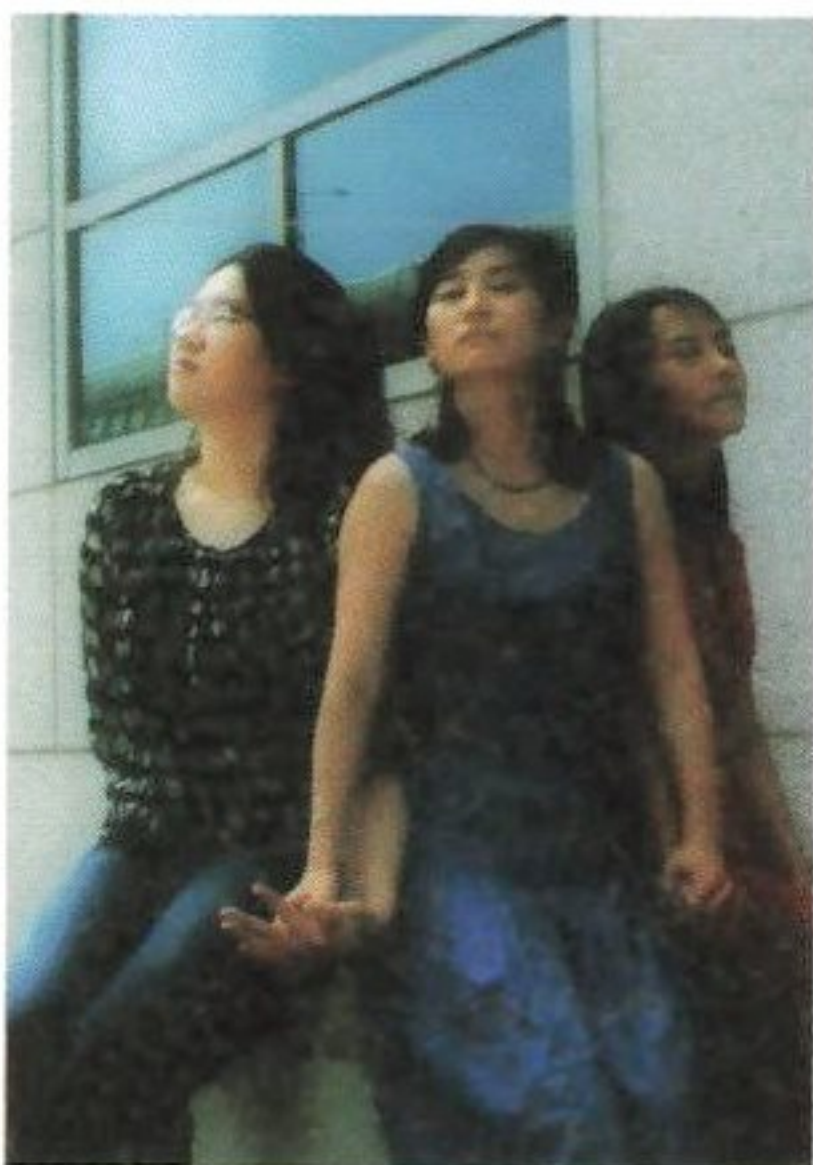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특별공연
해금, 부산을 노래하다
 8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황한나가 부산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국악연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황한나는 제 2회 전국국

악대전 고등부 기악부문 최우수상, 제 7회 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관악부문 준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황한나(010-3006-3019)

Heim Trio 창단연주회
 8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윤주연, 첼리스트 김기량, 피아니스트 오선지로 결성된 Heim Trio 창단연주회. 독일어로 집을 뜻하는 'Heim' 트리오는 편안하면서도 정겨운 무대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윤주연(010-7308-3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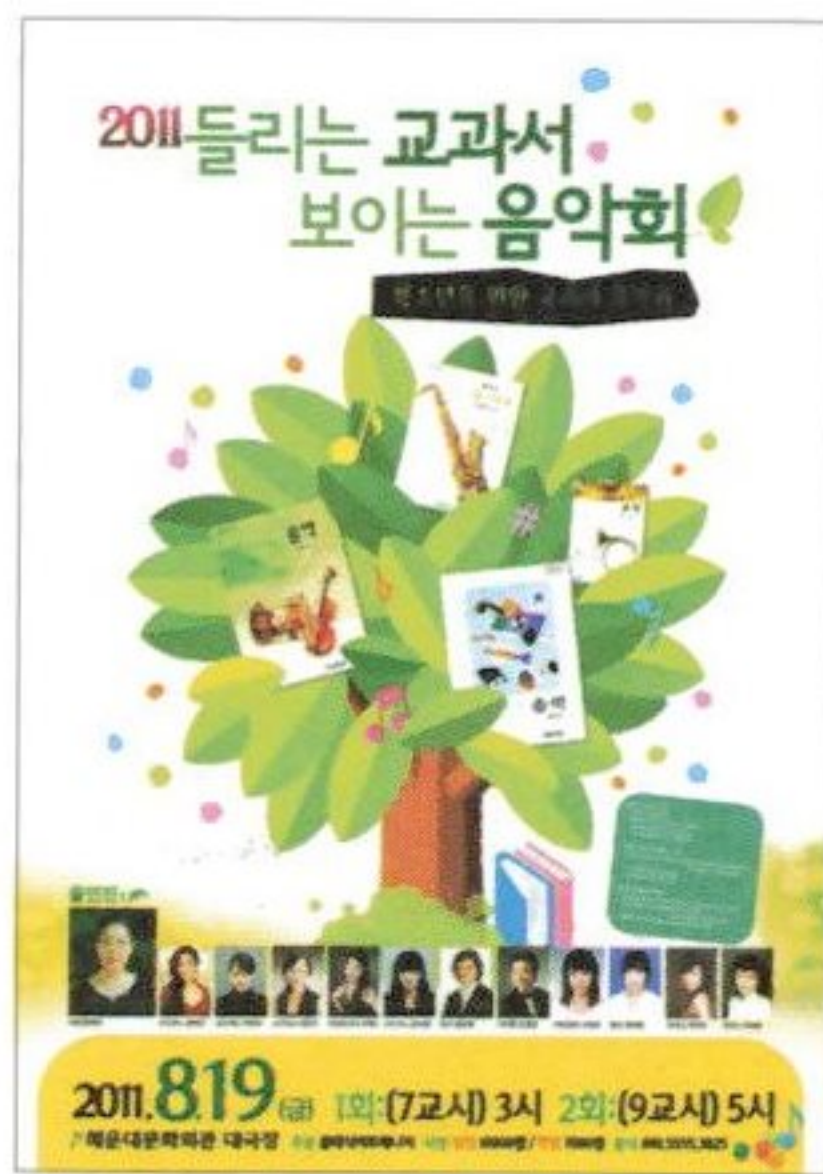
장르버라이어티 판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Noise Concert

8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8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 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형식으로 진행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화제의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형식을 통해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 예술총감독/김수진
 · 출연/박현욱, 구원모, 전영선, 조애리, 박정상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장르버라이어티 판
 (759-7731, 010-8368-2445)

들리는 교과서 보이는 음악회 Season2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
 8월 19일 금요일 오후 3:00, 5: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음악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김보람, 이현지, 황혜진, 이성희, 메조소프라노 조은아, 테너 김성엽, 바리톤 윤풍원, 피아니스트 이아름, 바이올리니스트 나혜경, 첼리스트 장여정

· 프로그램
 못잊어, 코스모스를 노래함, 사랑의 인사, 백조, 오페라 '라보엠' 중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 등 수록
 · 반주/박미지 · 해설/김혜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0-5555-3825)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The early years

주|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USP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정일 바이올린 독주회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00 >>> **고은사진미술관**

서울대학교 김영욱 교수를 단장으로 국내 오케스트라 수석연주자들로 결성된 울산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USP 챔버오케스트라와 울산대학교 이정일 교수가 함께하는 제 32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부산 팝 & 재즈빅밴드 제 4회 정기공연
8월 21일 일요일 오후 4:00 >>> **시민회관 대극장**



스탠더드 재즈에서 부터 퓨전과 팝을 넘나들며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함께해온 부산 팝 & 재즈빅밴드 무대.

· 지휘/김근수 · 협연/황천수, 이병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팝&재즈빅밴드(016-576-4801)

2011 한 여름밤의 기타 콘서트
8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독일 베를린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서운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판식과 한국기타협회 전국콩쿠르 1위, 대전기타 페스티벌 청소년부 1위 입상한 이에현이 결성한 'YE 기타듀오'의 무대로

마련되는 한 여름밤의 기타콘서트.

· 출연/이판식, 이에현, 김동빈, 김정민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이판식(010-3437-8483)

심정운 피아노 독주회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 대학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운 독주회.

심정운은 현재 독일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양정운과 듀오 'Lyrik'을 결

성,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관람료 초대

::문의 심정운(010-7732-731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한국동요, 가곡, 민요
8월 25일 목요일 오후 6: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루하게만 느끼는 클래식음악을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숙한 곡과 상세한 해설로 청소년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특별출연/안주희, 김윤호(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부산작곡마당 제 6회 정기연주회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합창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부산작곡마당의



여섯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한려일출(오세일 곡), 사막의 발견(백현주 곡), 숲속의 메아리(이용주 곡), 기도(홍수정 곡), 생황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낮선' Vol.2(유찬미 곡)

· 연주/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강규), 강경원(바리톤), 성유진(가야금), 구교임(거문고), 안은경(생황)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작곡마당(513-1009)

잼 색소폰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8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6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색소폰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온 잼 색소폰앙상블의 정기연주회.

· 연주/정재명(리더), 박종민, 김은경, 박예녹, 신정현, 김명섭

· 협연/백재진(바이올린)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신정현(010-6510-3445)

부산시민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44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8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PLAY

연극 '내 남자의 혈액형'

1월 12일(수)-8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3:00
(화요일 공연없음) >>> 초콜릿 팩토리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지훈(B형)과 속을 알 수 없는 엉뚱한 원규(AB형), 편안하지만 가끔 질투의 화신으로 돌변하는 강민(O형), 다정하고 순수한 남자 승현(A형) 등 혈액형을 통해 본 4인 4색 사랑이야기 '내 남자의 혈액형'.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공포연극 '두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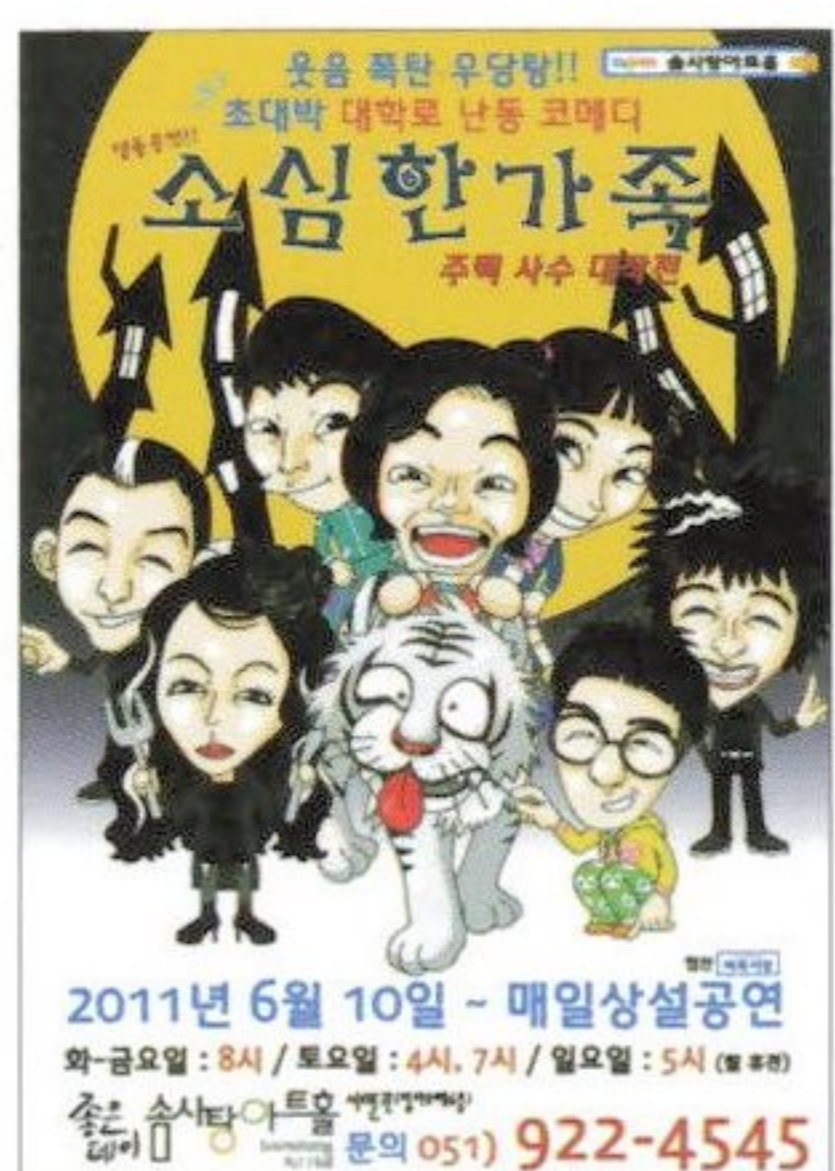
6월 1일(수)-8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1관

상상을 뒤집는 탄탄한 스토리와 잔인한 반전, 무대적 장치로 공포를 선사하는 창작극 '두여자'.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소심한 가족'

6월 10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 1관



소심함의 끝을 보여주는 소심한 가장 김천식과 그의 가족이 펼쳐는 주택사수 대작전 창작코미디극 '소심한 가족'.

·출연/김욱, 홍순목, 신성민, 황세원, 김호원, 이도연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922-4545)

연극 열대야_Drunken Night

6월 18일(토)-8월 15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 용천지랄소극장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밤, 삼겹살집에서 만난 세 친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린 연극 '열대야' 앵콜공연.

::관람료 일반 30,000원·중고생 20,000원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연극 '배고파 4'

6월 21일(화)-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 2관

엉뚱한 시인 지망생과 청순발랄 4차원 아가씨, 아픔을 안고 사는 형사와 우악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할머니, 이들이 만나 쌓아가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창작 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922-4545)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7월 1일(금)-8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자살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이 존재한다는 기발한 연극적 상상에서 출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한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블랙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공포연극 '다락'

7월 15일(금)-8월 7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7:30, 9: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조은극관 1관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한 조명과 음향, 미술사 정대성이 펼치는 pin point 미술이 극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공포연극 '다락'.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관(1588-2757)

연극 '비둘기 APT'

7월 15일(금)-8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 청춘나비 아트홀



부산악기시 www.piano123.co.kr

대표 강규찬(조율사)
H.P. 017. 556. 9410
051)758-5450,5445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Program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청을 시작하게 된 주인공이 서서히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하는 작품.

- 작, 연출/강원재
- 출연/김기환, 이동욱, 윤준기, 김정원, 권미영, 조지혜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청춘나비 아트홀(070-8241-2560)

콘서트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7월 19일(화)-8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월요일 휴관)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는 남자 태양과 그 남자만을 10년째 바라만 보는 여자 두나, 그들의 상처와 사랑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콘서트 뮤지컬.

- 작, 연출/김인성
- ::관람료 균일 3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콘서트뮤지컬 '배달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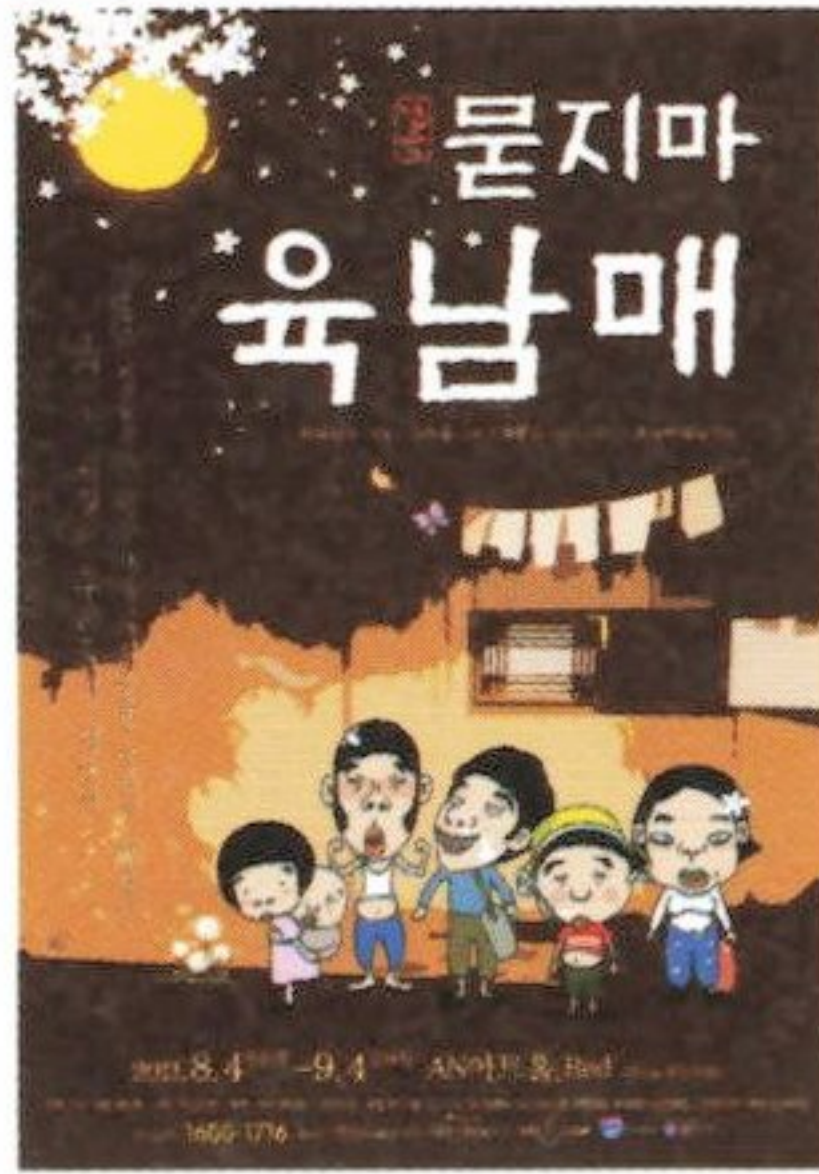
7월 19일(화)-10월 3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2관

20년만에 찾은 고향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꿈과 열정, 첫사랑의 가슴 따뜻하고 애뜻한 추억을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낸 콘서트 뮤지컬.

- 출연/김민경, 허현, 정도훈
- ::관람료 균일 3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물지마 육남매'

8월 4일(수)-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Red



1960~70년대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홀로 남겨진 육남매를 통해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육남매'는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연극으로 선정되어 전국 소외지역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다.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 ::문의 (주)WSM(1566-5490)

연극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8월 5일(월)-15일(월) 오후 4:00, 7:00
(8/10-11일 공연없음) >>> 신세계 문화홀



아내의 돈을 노리는 남편과 그에 맞서는 아내의 치열한 두뇌게임과 극적 반전이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하는 스릴러 추리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극단 은행목 (02-2690-0598)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삐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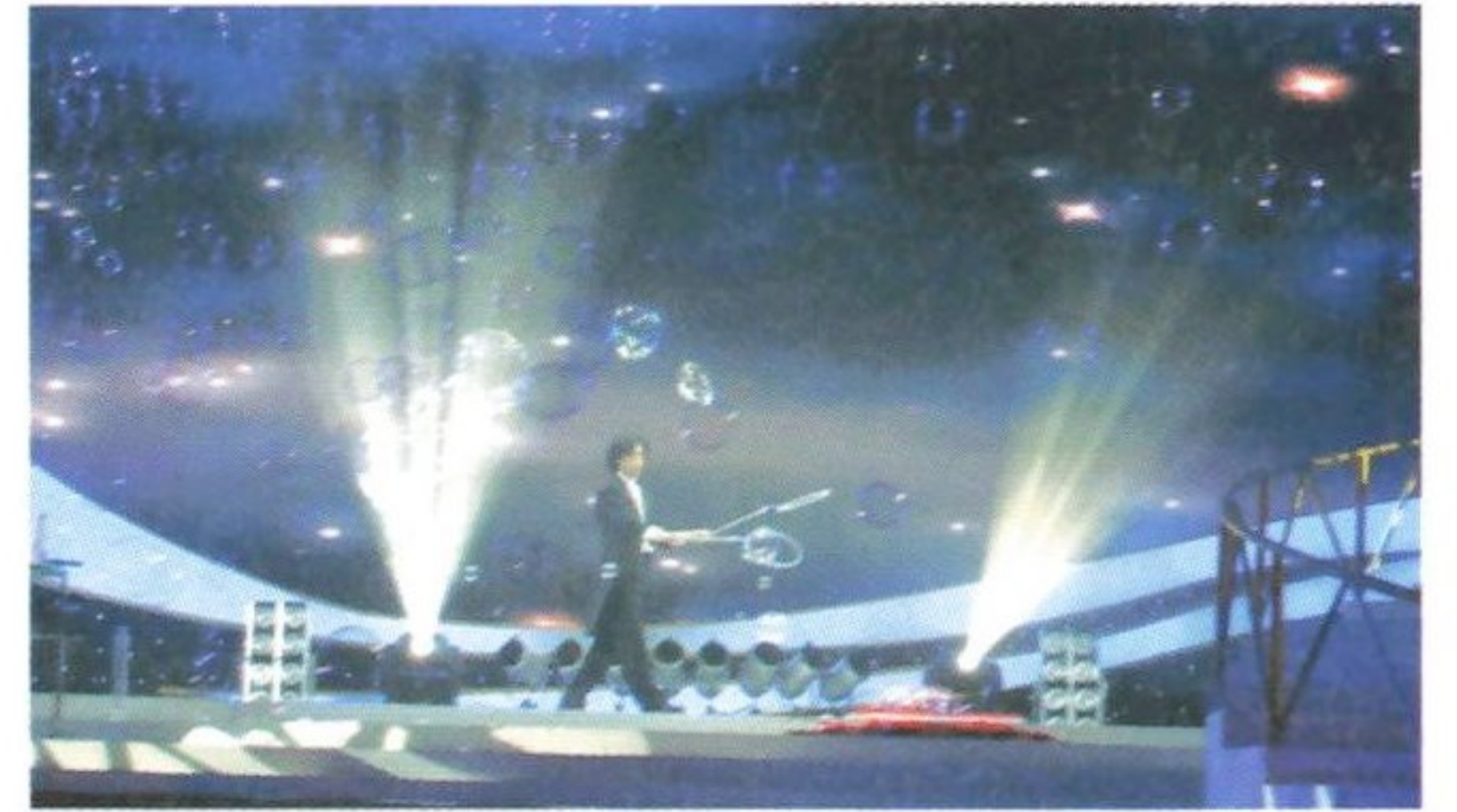
8월 5일(금)-8월 15일(월) 오전 11:00, 오후 2:00(8/9일 오후 2:00, 8/10-11일 공연없음)
>>> 신세계 문화홀

초능력적인 힘을 지닌 말괄량이 삐삐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꿈과 모험의 세계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삐삐'.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극단 은행목(02-2690-0598)

마술이야기의 매직 & 버블쇼

8월 6일 토요일 오후 1:00, 3: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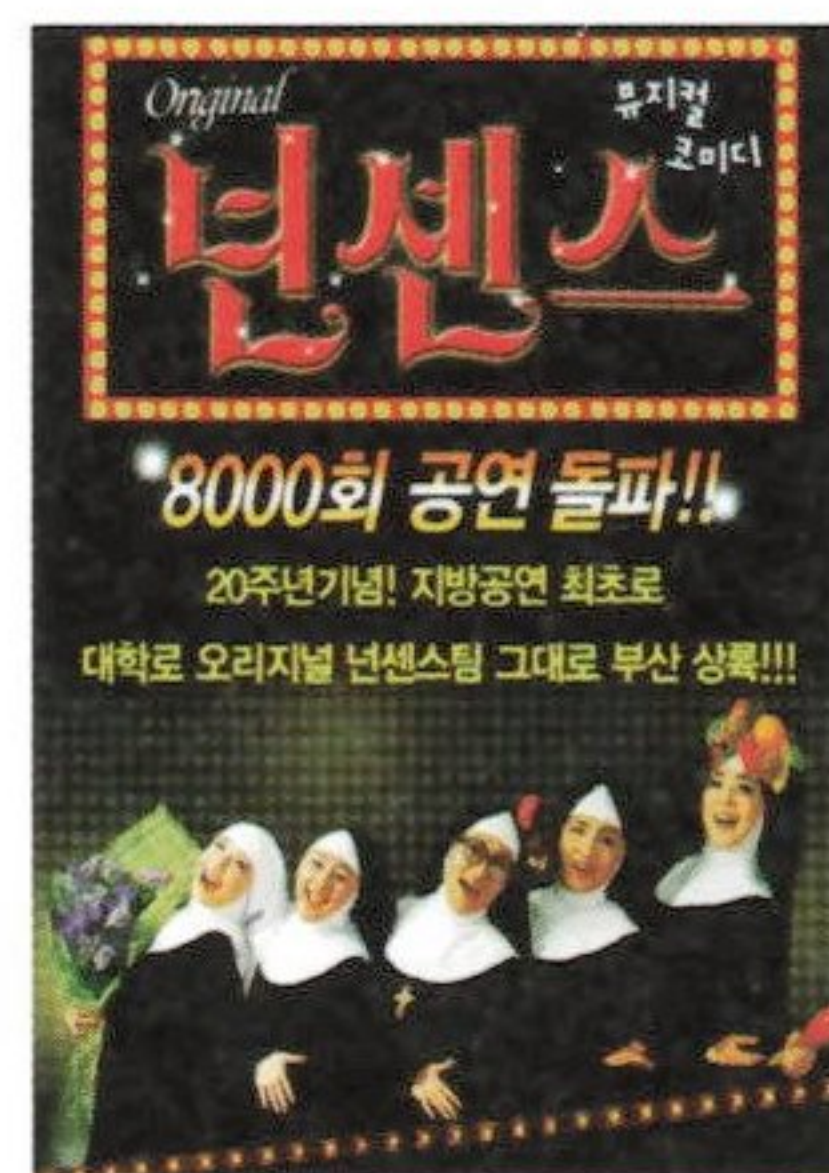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쇼와 비누방울의 변신이 놀라운 버블쇼가 함께 펼쳐지는 매직 & 버블쇼.

- ::관람료 균일 25,000원(전화예매시 10,000원)
- ::문의 마술이야기(010-3129-4382)

2011 20주년 기념 오리지널 '년센스'

8월 12일(금)-9월 12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8/15일 제외한 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오리지널 '년센스' 공연 20주년을 기념, 대학로 오리지널 공연팀 초청으로 마련되는 2011 오리지널 '년센스'.

식중독으로 사망한 수녀들의 장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수녀의 좌충우

돌 한바탕 소동이 기상천외한 노래와 춤속에 펼쳐진다.

- 출연/박정희, 윤수미, 박수화, 송희영, 김보현 외
- ::관람료 균일 40,000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시민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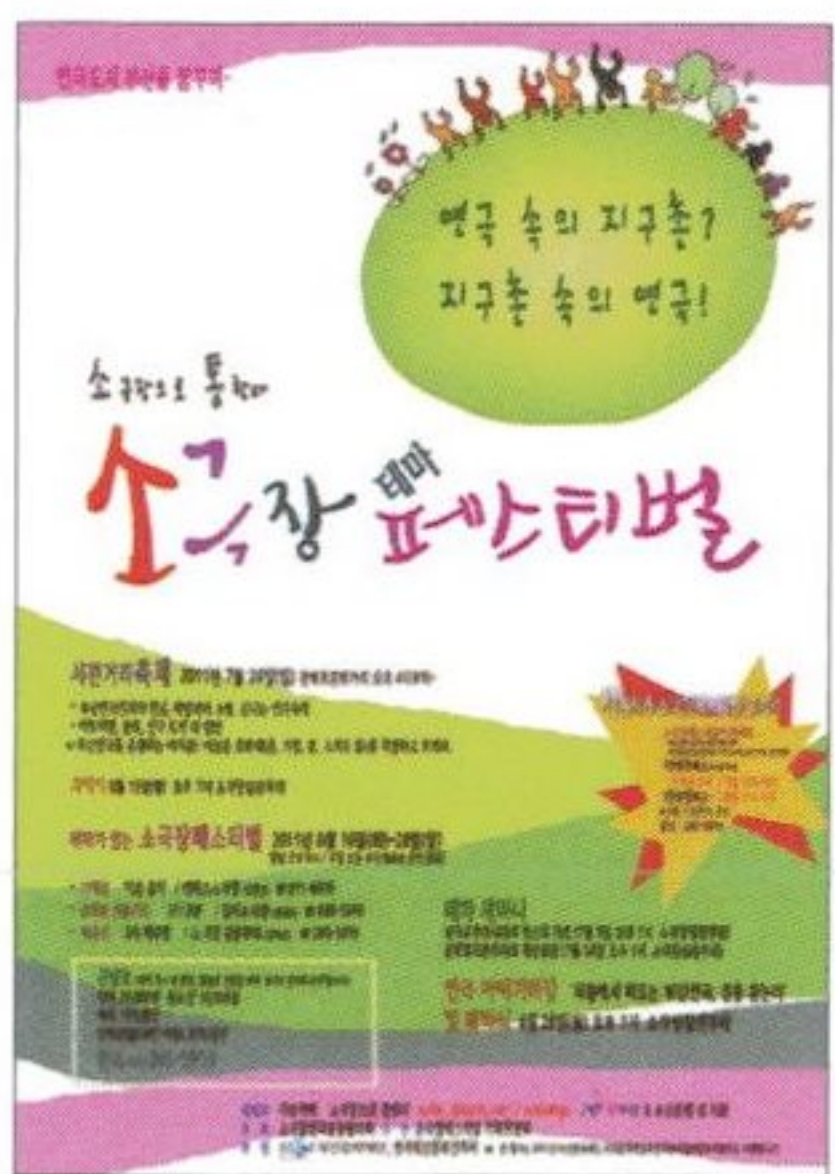
새엄마의 구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신데렐라의 꿈과 사랑을 그린 가족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2011 테마가 있는 소극장 페스티벌
연극 속의 지구촌? 지구촌 속의 연극!**

8월 15일(월)~29일(월)

>>> 액터소극장, 일터소극장, 소극장 실천무대



연극도시 부산을 꿈꾸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연극
잔치 소극장 페스티벌
2011년 무대.

'연극 속의 지구촌? 지구
촌 속의 연극!'을 테마로
한 세 편의 창작극을 선보
인다.

▶개막식

15일(월) 오후 7:00 >>> 소극장 실천무대

▶기획전 '어린 왕자'

16일(화)~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 액터소극장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을 위한 동화 '어린왕자'.

· 작, 연출/이상우

· 출연/이동희, 송민정, 권혁철 외

▶김세환 연출가전 '2113년'

16일(화)~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 일터소극장

일상을 새롭게 그려내는 연출가 김세환이 포착하는 현
재와 미래 '2113년'.

· 작, 연출/김세환

· 출연/서경화, 김화영, 김지혜, 이아름, 전지은

▶배우전 '3색 배우단'

16일(화)~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 소극장 실천무대

부산연극계의 젊은 실력파 배우 이현식, 전상미, 박훈
영을 만날 수 있는 '3색 배우단'.

· 작/이성민, 유미희 연출/이성민

· 출연/이현식, 전상미, 박훈영

▶이야기 마당 '시장에서 떠도는 부산연극, 길을 묻는
다' & 폐막식

29일(월) 오후 7:00 >>> 소극장 실천무대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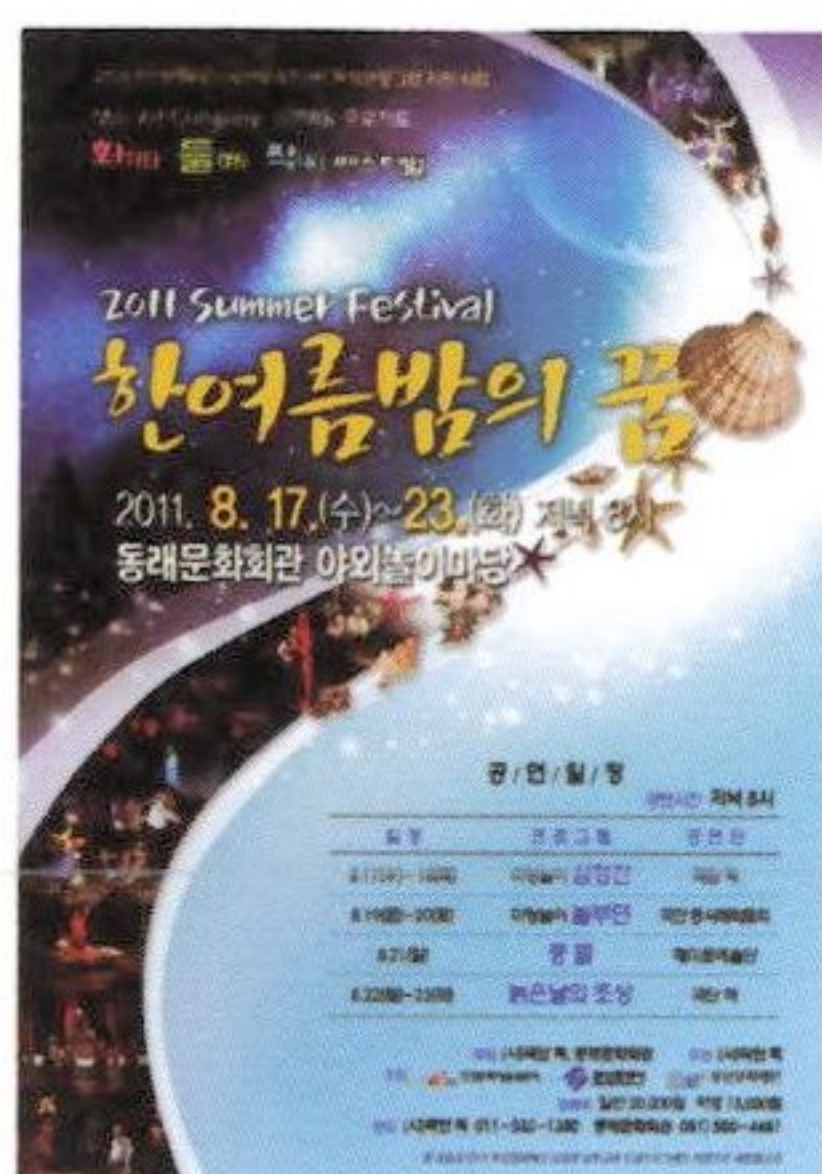
::문의 소극장페스티벌

(245-5919, cafe.daum.net/sotongs)

**2011 Summer Festival
한 여름밤의 꿈**

8월 17일(일)~23일(화) 오후 8:00

>>> 동래문화회관 놀이마당



1986년 창단 후 전통연희
양식을 살린 향토성 짙은
지역 창작극을 무대에 올
려온 극단 맥의 야외극 페
스티벌.

▶17일~18일 극단 맥

'마당놀이 심청전'

공양미 삼백석에 인당수

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을 마당극으로 새롭게 되살려
낸 작품.

· 출연/유상훈, 심미란, 조영미, 허정현, 강숙하, 김수철,
배문수, 박강록 외

▶19일~20일 극단 더블스테이지 '신 놀부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각
색한 퓨전 코믹 마당극 '신 놀부던'.

· 출연/김동민, 김성은, 배성윤, 강지현, 김윤용, 정순원,
신동원

▶21일 해미르예술단 '광대출행'

영남성주풀이와 삼도사물놀이, 동래풍물놀이로 우리
전통연희의 신명을 들려줄 해미르예술단의 무대.

· 출연/이선구, 강태욱, 이동현, 이성규, 송은희, 이혜진,
김재규, 서성원, 권은지, 김태근

▶22일~23일 극단 맥 '늙은 날의 초상'

제 3회 전국 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작품으로, 고령화되
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소외문제를 그린 작품.

· 작/강진순 · 연출/이정남

· 출연/유상훈, 심미란, 조영미, 강숙하, 허정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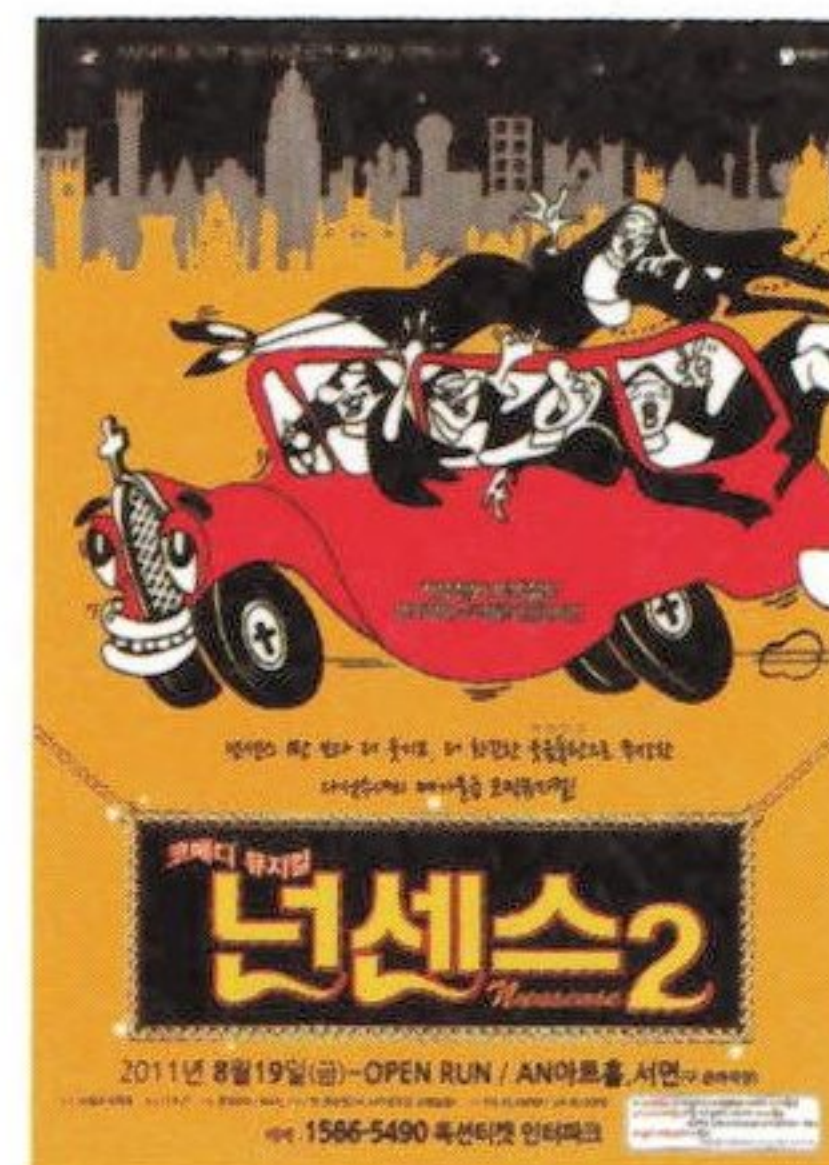
::문의 극단 맥(011-232-1350)

동래문화회관(550-4482)

2011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2'

8월 19일(금)~9월 30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우리나라 뮤지컬 코미디
사상 최고의 히트작인 '년
센스' 그 후의 이야기를
더욱 강력한 웃음으로 업
그레이드시킨 무대.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
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
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

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뽕뽕이 버블쇼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20일 토요일 오후 2:00, 5:00 >>> MBC롯데아트홀

SBS '스타킹'에 출연한 버블맨 정일권과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방귀대장 뽕뽕이가 펼치는 환상의 버블쇼.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CJM 엔터테인먼트(1599-3411)

뮤지컬 '디보와 슈퍼밴드'

8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 시민회관 대공연장

슈퍼콘서트에 출전한 디보와 그의 친구들이 우승을 차
지하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신기한 마술과
특수효과,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뮤지컬 '헤드윅' 부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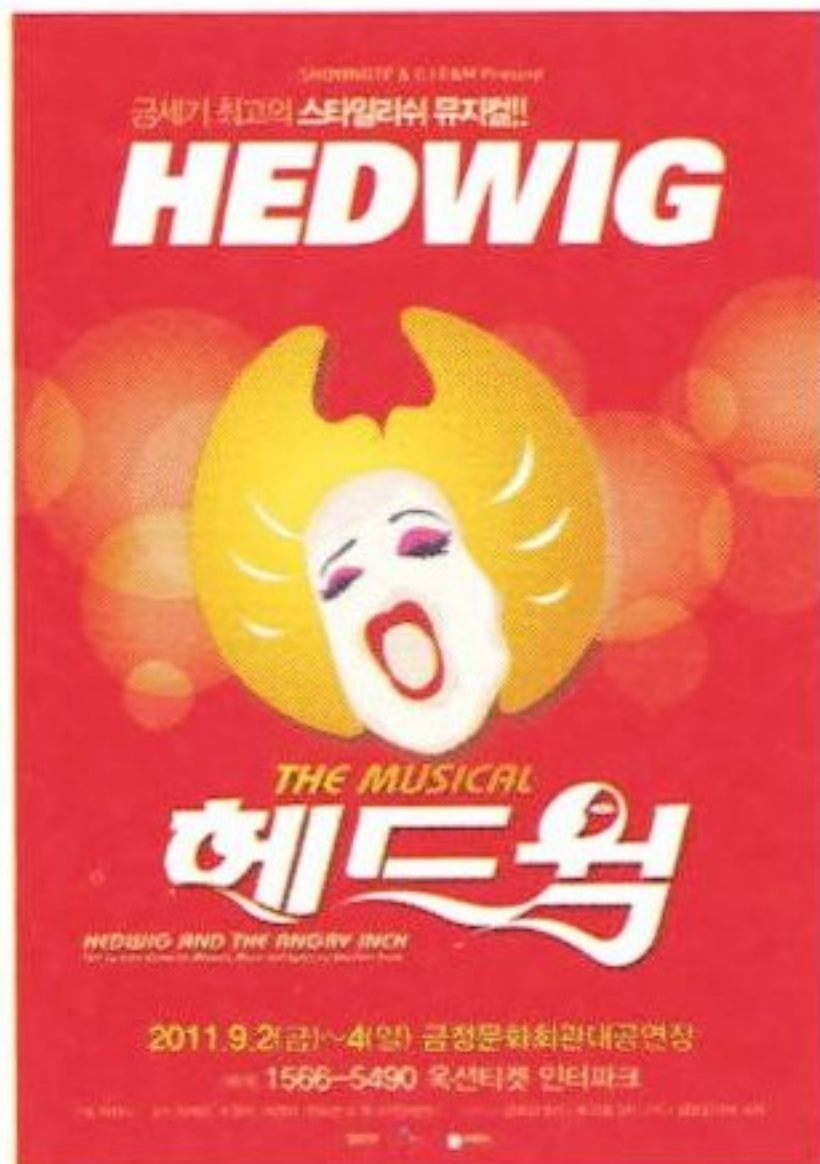
9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록가수의 이야기를 그
린 금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쉬 뮤지컬 '헤드윅'.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1998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헤드윅'은 이번 무대에서 최재웅, 조정석이 주인공 헤드윅 역을 맡아 전혀 다른 2편의 헤드윅 무대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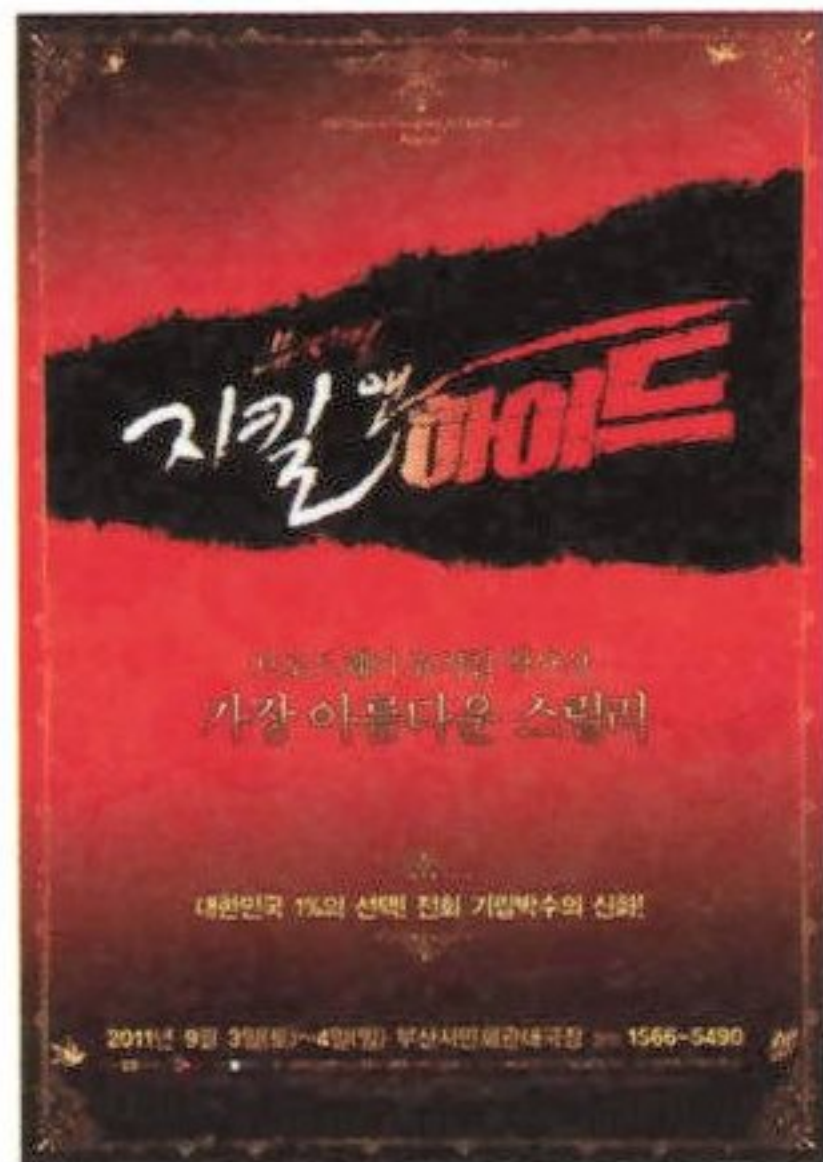
· 연출/이지나

관람료 R석 65,000원 · S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부산공연

9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본성인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틸러 뮤지컬로 평가받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 연출, 안무/데이비드 스완

출연/김준현, 김우형, 소냐, 최현주, 김봉환, 이희정, 김선동 외

관람료 R석 130,000원 · S석 110,000원
A석 70,000원 ·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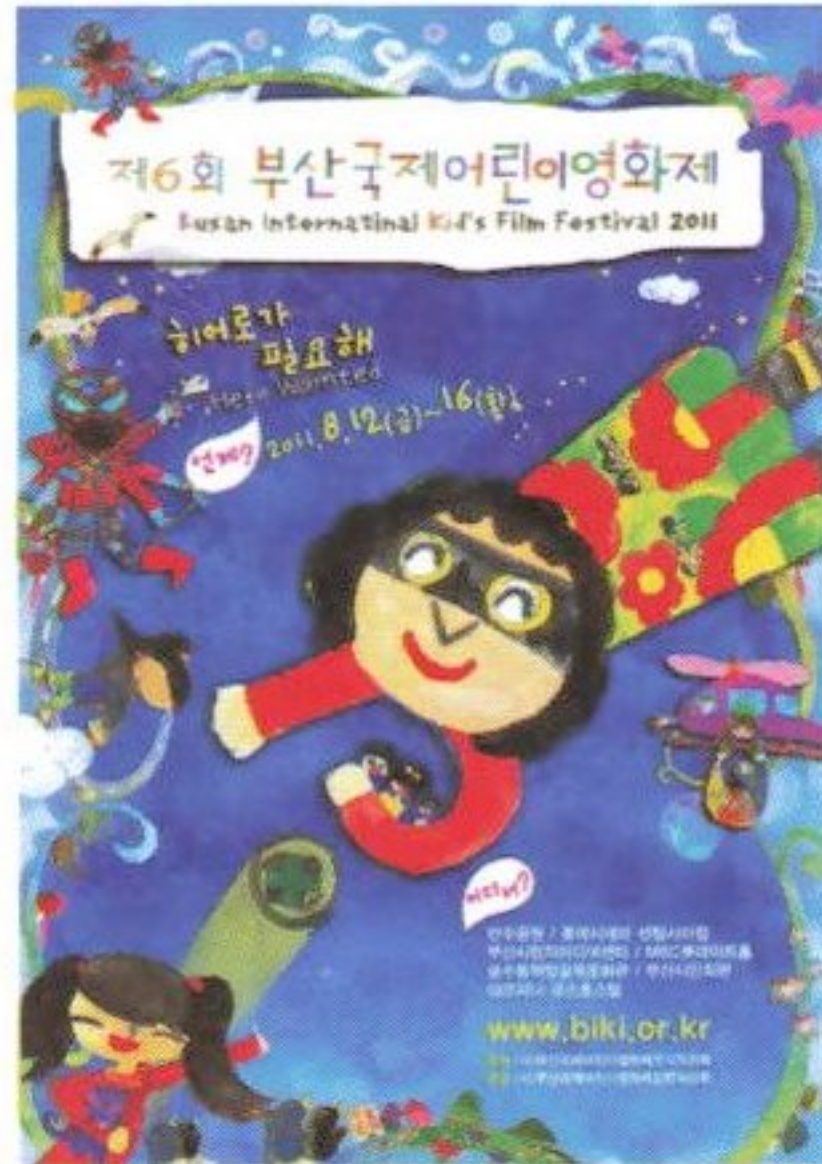
문의 (주)WSM(1566-5490)

MOVIE

제 6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아시아 키즈포키즈 축제

8월 12일(금)-16일(화)

>>> 부산민주공원,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MBC롯데아트홀 외



영화 축제인 '글로벌 키즈포키즈 축제'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치,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함께 펼쳐진다.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743-7652, www.biki.or.kr)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국내 유일의 어린이영화제로, 총 21개국 142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제 6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특히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국제 경쟁 어린이



1988년 신라대학교 김정순 교수가 주축이 되어 창단된 후 부산 발레의 요람역할을 해온 부산새싹발레단의 2011년 정기공연.

세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로맨틱발레로 구성한 1부 무대에 이어 집시소녀 파키타와 프랑스 장교 루시앵의 사랑을 우아하면서도 정열적으로 그려낸 클래식발레 '파키타'를 선보인다.

· 단장/이영갑 · 예술감독 김정순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상영(011-859-5162)

DANCE

2011 연분홍 정기공연 임현미의 춤-인생

8월 3일 수요일 오후 8: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자유로운 춤을 지향하는 프로젝트 그룹 '춤패 연분홍' 예술감독인 춤꾼 임현미가 술한 인연들 속에 소통하고 상상하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들의 삶을 몸짓으로 표현한 창작춤 '인생'을 선보인다.

· 안무/임현미

· 출연/신상현, 김초솔, 안선희, 김동석, 이용진, 강동환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춤패 연분홍(010-6711-3922)

제 23주년 부산새싹발레단 정기공연

8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 시민회관 대극장



'발레계의 모차르트'라 평가받은 발레 거장 조지 발란신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

미국의 대표적인 발레단 중 하나인 오리건발레단을 초청, 우리나라 발레 꿈나무 50명과 함께 한여름 밤 꿈의 크리스마스 무대를 펼친다.

· 안무/조지 발란신 · 예술감독/크리스토퍼 스토클

· 음악감독 및 지휘/닐 다폰테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2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문의 (주)소비즈엔터테인먼트(1544-2862)

CONCERT

2011 임재범 콘서트

8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문의 (주)WSM(1566-5490)

2011 RAIN TOUR 'THE BEST SHOW' 부산공연

8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14일 일요일 오후 5: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SR석 165,000원 · R석 132,000원

S석 110,000원 · A석 99,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박강성, 장혜진, 박완규 트리플 최강콘서트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00 >>> KBS부산홀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스타컴퍼니(1566-6601)

2011 바비킴 전국투어콘서트 -부산

8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7: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2011 JK김동욱 콘서트 Tour in Busan

9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6: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2011 이선희 전국투어 콘서트 - 부산

9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4일 일요일 오후 5:00

>>> KBS 부산홀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문의 우리콘서트(1577-6228)

EVENT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부산체험전

7월 8일(금)-8월 21일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층 다목적홀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미술놀이 체험전

7월 8일(금)-8월 28일(일) >>> 경성대학교 미술관

::관람료 일반 11,000원

24개월~고등학생 13,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공포 과학체험전

7월 9일(토)-9월 13일(화)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일본과학미래관의 과학적 노하우와 일본 후지TV의 콘텐츠 제작기술이 만나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심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

은 첨단과학으로 설명하는 '공포 과학체험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8:00

::관람료 균일 12,000원(단체 20인 이상 8,000원)

::문의 (주)T&C코리아

(1588-2078, www.ghosthouse.kr)

2011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 4일(목)-7일(일) >>>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시민회관 대 · 소극장

아시아 최대 매직페스티벌 2011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14개 나라 마술사 100여명이 참가하는 2011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데이타임 갈라쇼, 명인 렉처, 국제마술대회, 클로즈업쇼, 나이트 갈라쇼, 빔프(BIMF) 스페셜 위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여름방학 맞이 특별 미디어체험 '방가방가'

8월 16일(화)-26일(금)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TV속에서 보기만 했던 뉴스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미디어체험전.

::관람료 무료(8/12일까지 홈페이지

www.comc.or.kr를 통해 접수)

::문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749-9522)

GALLERY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개관전 내가 그린 그림은...

4월 2일(토)-8월 28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근대의 기억, 학교에 가다' 특별기획전

7월 2일(토)~8월 21일(일) >>> 부산근대역사관

개항 당시 부산의 학교모습과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식민지 학교교육 등 근대교육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문 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장민승 '수성십경'

7월 8일(금)~8월 21일(일) >>> 조현화랑 부산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 중 인왕산 아래 수성동을 산수로 표현한 '수성동도'를 차용, 카메라 렌즈를 통해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전달한 장민승의 '수성십경'.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00(월요일 휴관)

::문 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부산박물관 2011년 특별기획전 길상(吉祥)-염원을 그린다

7월 12일(화)~8월 21일(일)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 후기 기물(器物)과 회화에 나타나 있는 복을 비는 의미의 길상(吉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특별기획전.

::문 의 부산박물관(610-7111)

순장소녀 송현, 비사벌을 말하다

7월 13일(수)~8월 28일(일) >>> 복천박물관 기획전시실

창녕 송현동고분 출토유물을 통해 삼국시대 비사벌의 고대문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획전.

::문 의 복천박물관(554-4263~4)

忙中閑-김호득, 이승희, 오순환

7월 14일(목)~8월 21일(일) >>> 갤러리 이배

::문 의 갤러리 이배(747-2111)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기획전 징후로서의 사진-부산사진의 재발견 몸, 방의 안과 밖, 그 바깥

7월 16일(토)~9월 25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 본관(744-3924)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기획전 징후로서의 사진-부산사진의 재발견 기억과 트라우마

7월 16일(토)~10월 2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 신관(746-0055)

2011년 제 37회 부산미술대전

7월 22일(금)~8월 21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문 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손현욱 개인전 'The WITTY SCENES'展

7월 22일(금)~8월 4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재미있고 유티넘치는 조형세계를 보여온 작가 손현욱 초청전.

::문 의 롯데백화점 부산본점(810-2328)

Area. Park 사진전 히다마리-찬란히 떨어지는 빛

7월 22일(금)~8월 30일(화) >>> 토요타아트스페이스

일본을 여행하며 맛닥뜨린 삶의 순간순간들을 작품에 담은 사진작가 박진영 사진전.

::문 의 토요타아트스페이스(080-855-0007)

ART Plage

7월 23일(토)~8월 9일(화) >>> 롯데갤러리 광복점

'휴가'라는 주제로 마치 바다에 온 듯한 흥미와 즐거움을 예술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전.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제 2회 대안문화공간 자인 청년기획공모 당선 기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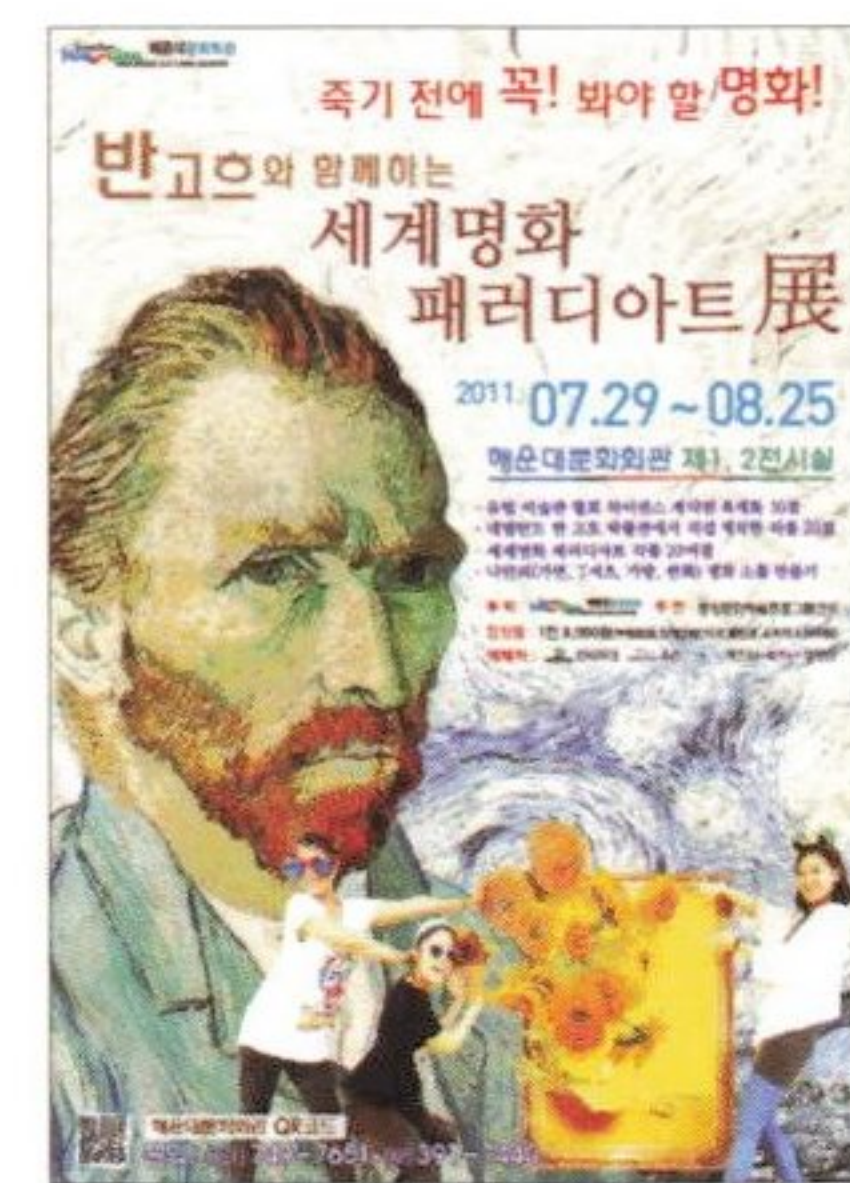
7월 23일(토)~8월 14일(일) >>> 대안문화공간 자인

'이주(migration)'라는 주제로 6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겪은 경험과 인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문 의 박원섭(010-3119-8531)

반 고흐와 함께하는 세계명화 패러디 아트전

7월 29일(금)~8월 25일(목) >>> 해운대문화회관 전시실



빈센트 반 고흐 유럽미술관협회 라이선스로 계약된 복제화 등 반 고흐의 대표작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명화 패러디 아트전.

::관람료 균일 8,000원 (단체 20인 이상 5,000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다섯 번째 10만원대 행복한그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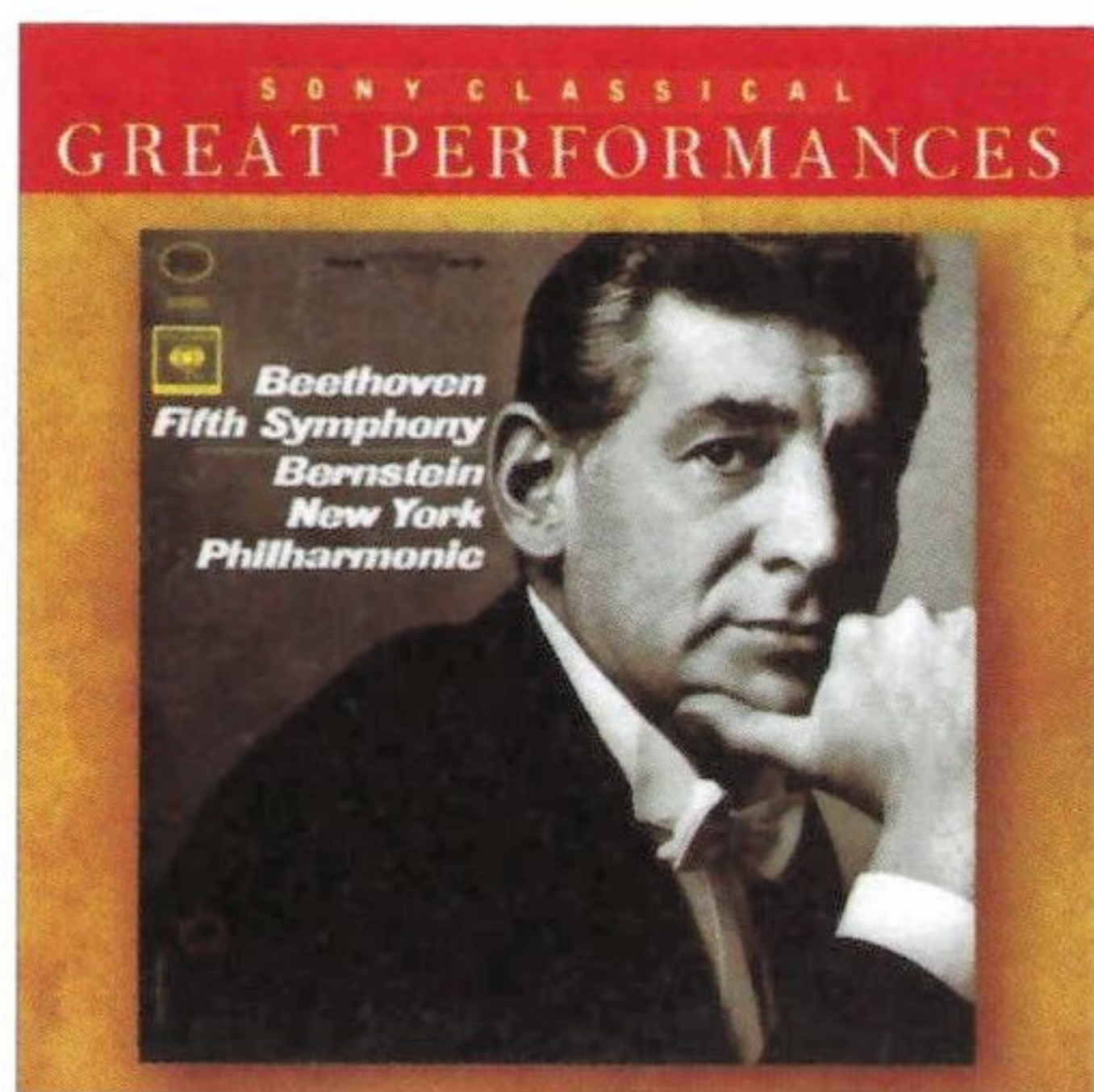
8월 3일(수)~8월 28일(일) >>> 맥화랑

::문 의 맥화랑(722-2201)

유리조형의 거장 '데일 치홀리'展

8월 5일(금)~9월 1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클래식 음악과의 운명적인 만남 번스타인의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클래식 음악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음악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질문일 것이다. 어떤 계기에 의해 우연히 알게 되어 좋아하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 남다르게 생각하는 작품도 있고, 처음 접한 인연으로 늘 가슴에 담아두는 작품도 있을 것이다. 성악을 전공하신 어머니와 음악을 좋아하셨던 선친 덕택에 어려서부터 집안에는 항상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이 흘러왔지만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일 뿐 신경써서 듣지는 않았었다. 그 중에서 자주 들었던 음악이 나도 모르게 머리에 들어왔고 그 선율을 무심결에 흥얼거리게 되었지만 그 곡이 누가 작곡한 무슨 곡인지 알지는 못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주 듣던 음악의 LP판 자켓의 흑백사진에 턱을 괴고 있는 아저씨가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지휘자이고, 뉴욕 필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가 1961년 연주한 흔히 ‘운명교향곡’이라고 일컫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들었던 LP판의 뒷면 두 번째 트랙에 ‘에그몬트 서곡’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는데, 교향곡은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다는 알박한 지식으로 3, 4악장이 연결되어 연주되는 것도 모르고 한동안 ‘에그몬트 서곡’을 교향곡 4악장으로 잘못 알고는 친구들에게 아는 척을 하며 우기기도 했었다.

이 곡은 ‘운명은 이처럼 문은 두드린다’라는 베토벤의 말을 따라 ‘운명교향곡’으로 불리어지지만 일부에서만 사용되는 제목이며 대부분 베토벤 교향곡 제 5번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곡이며 음반수도 가장 많을 것이다. 음반정보를 찾아볼 때 자주 참고하는 ArkivMusic이라는 웹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일부 누락된 음반도 있겠지만 재발매된 음반을 포함하여 베토벤 교향곡 제 5번의 CD, DVD 개수가 280개가 넘고 있다. 모든 교향곡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음반수

이며, 가장 대중적인 작품인 비발디의 ‘사계’ 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다. 문제는 ‘이 중에서 어떤 음반을 들을 것이냐’ 라는 것이 고민거리이다. 수백 종의 음반을 모두 구입하여 들을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보편적인 명연주로 추천되는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 빈 필하모닉의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토벤 교향곡의 독보적인 존재인 푸르트벵글러 지휘의 연주를 선호하거나 비교적 대중적인 카라얀, 뵘 등이 지휘한 연주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또다른 연주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번스타인의 연주는 첫사랑과 같은 애뜻한 감정으로 항상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연주였다. 이후 그의 연주에서 보여주는 극단적인 속도의 변화와 감정의 굴곡은 심하지 않지만 이 연주는 베토벤이 의도했던 모든 반복부를 완전하게 연주한 드문 연주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클래식 음악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한 지 30여년 만에 LP판으로 감상하였던 이 연주를 Great Performances 시리즈 CD로 출시된 것을 알았을 때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설레임마저 들었었다. CD로 이 연주를 다시 들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빠진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라 잠시 행복한 추억에 빠졌었다.

번스타인은 TV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서 보여준 뛰어난 교수법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교육에 독보적인 기여를 하였다. 지휘대에서 펄쩍펄쩍 뛰며 감정표출이 자연스러운 그의 지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클래식 음악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든다. 35년 전 한 초등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턱을 괴고 편안하게 지긋이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흑백사진 속의 아저씨로 인해 클래식 음악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또다른 누군가가 있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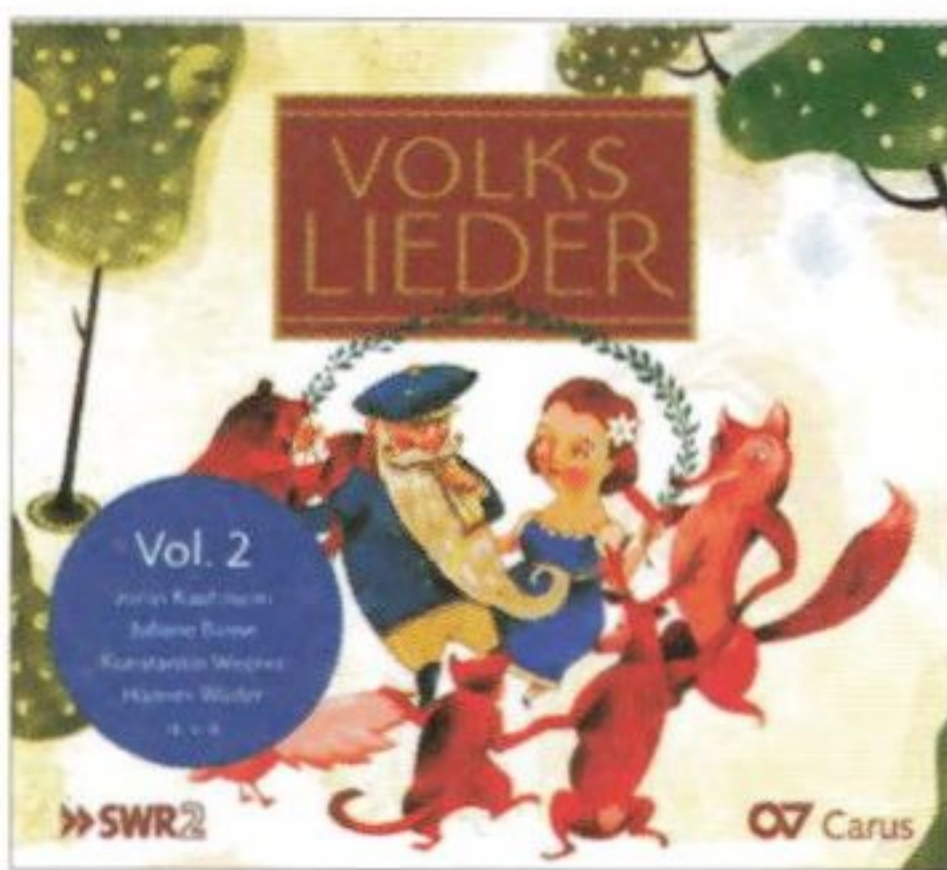


마르타 아르헤리치 & 미샤 마이스키

▶연주: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미샤 마이스키(첼로),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네메 예르비)

아르헤리치와 마이스키가 연주하는 프랑크의 첼로소나타

2011년 2월 루체른의 KKL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은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미샤 마이스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함께 쌓아왔던 깊은 음악적 교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야 플리세츠키야의 남편이자 비제의 원작을 편곡한 '카르멘 모음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인 로디온 슈체드린이 이들 두 아티스트에게 헌정한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로맨틱 오퍼링'이 바로 이날 콘서트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탄탄한 앙상블로 이들 두 거장을 서포트한 네메 예르비와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작의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으로 이 콘서트의 처음과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날 콘서트의 백미는 관현악 콘서트 중간에 마련된 아르헤리치와 마이스키 두 사람만의 이중주 무대다. 프랑크의 첼로소나타(바이올린 소나타 편곡)를 통해 두 거장이 펼쳐 보이는 따뜻한 교감이 큰 감동을 만들어낸다.



가장 아름다운 독일 민요(Volkslieder) 2집

▶연주: 율리아네 반제, 요나스 카우프만, 쿠르트 몰, 마르쿠스 세퍼, 모니카 마우흐 외

〈자장가〉 시리즈에 이어 독일권 최고의 성악가들이 무보수로 참여한 독일 민요 모음집 2집! 2008년 코르넬리우스 하우프트만의 제창으로 시작되어 독일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이 시리즈를 위해서 이번에는 요나스 카우프만을 비롯해서 율리아네 반제, 모니카 마우흐, 슈테판 겐츠, 쿠르트 몰 등 성악가들과 SWR 보컬 앙상블, 슈투트가르트 어린이합창단, 드레스덴 실내합창단, 징포니커 등 다양한 합창단과 크리스티네 부슈(바이올린)가 가세해서 다양함을 더했다. 저 유명한 '로렐라이', '홀라히, 홀라호'를 비롯한 귀에 익숙한 아름다운 곡이 가득 있으며 전작들처럼 아름다운 그림과 가사가 담긴 두툼한 내지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알파마 현악사중주단

▶구성: 볼프/세레나데, 멘델스존/카프리치오 작품 81-3, 차이코프스키/사중주 악장 내림나장조
브리튼/알라 마르시아, 시벨리우스/안단테 페스티보, 라흐마니노프/로망스 사단조
베베른/랑자메르 자츠, 쇤베르크/프레스토 다장조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현악사중주를 위한 소품

우아하면서도 명민한 리듬감으로 신선한 연주력을 선보이는 알파마 현악 사중주단이 로맨티시즘 작곡가들이 현악사중주를 위해 작곡한 소품들을 들려준다. 현악 사중주는 하이든 이후 쇼스타코비치에 이르기까지 작곡가들의 독창적 구조미학을 결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식으로 사랑받았다. 베베른의 애절한 로맨티시즘의 극치인 〈랑자메르 자츠〉, 쇤베르크 〈프레스토〉 등은 작곡가의 이름과 불일치하는 낭만적 감수성으로 놀라게 될 것이며, 볼프의 위트, 시벨리우스, 라흐마니노프의 서정성을 더욱 깊이있게 하는 알파마 현악사중주단의 능력 또한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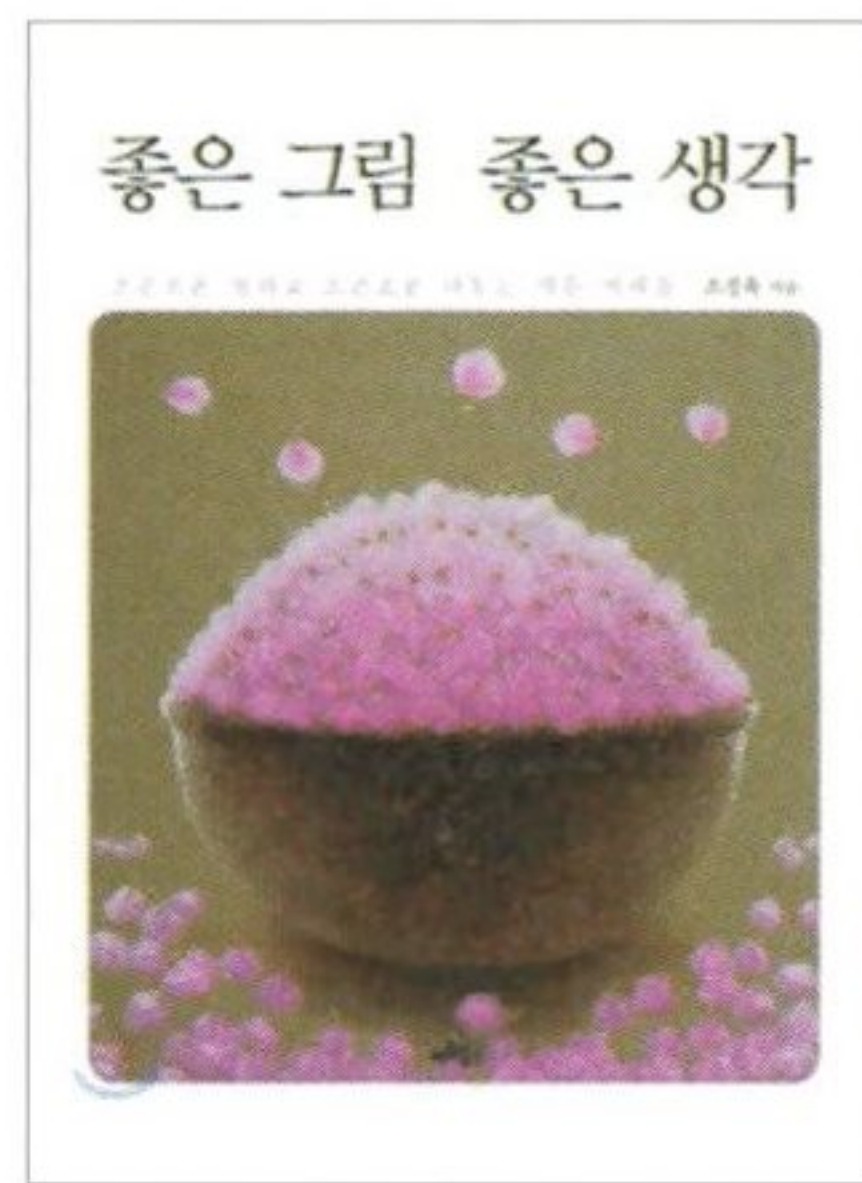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

우리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 같은

유홍준 지음 / 창비
/ 452p / 16,500원

1990년대 초·중반 전국적인 답사 신드롬을 일으키며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여섯 번째 책이 나왔다. '인생도처유상수'라는 부제목을 달고 10년 만이다. '인생도처유상수'는 우리 삶의 도처에 숨어 있는 고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저자가 만든 말이다. 이전에 출간된 책 5권은 그동안 약 260만여 부가 팔리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널리 전파하기도 했다. 이후 많은 답사기가 책으로 출간되고, 답사 여행 붐을 일으키며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에 나온 책은 서울의 상징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을 먼저 소개한다. 이어 '광화문'에 얽힌 숨은 이야기, 사계절 아름다운 절집의 미학을 간직한 '선암사',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그리고 정자고을의 경남 거창과 합천, 백제 문화권인 충남 부여·논산·보령이다. 고도 '부여'에서는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는 백제 미학의 정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답사의 현장에서 만난 고수들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은 반가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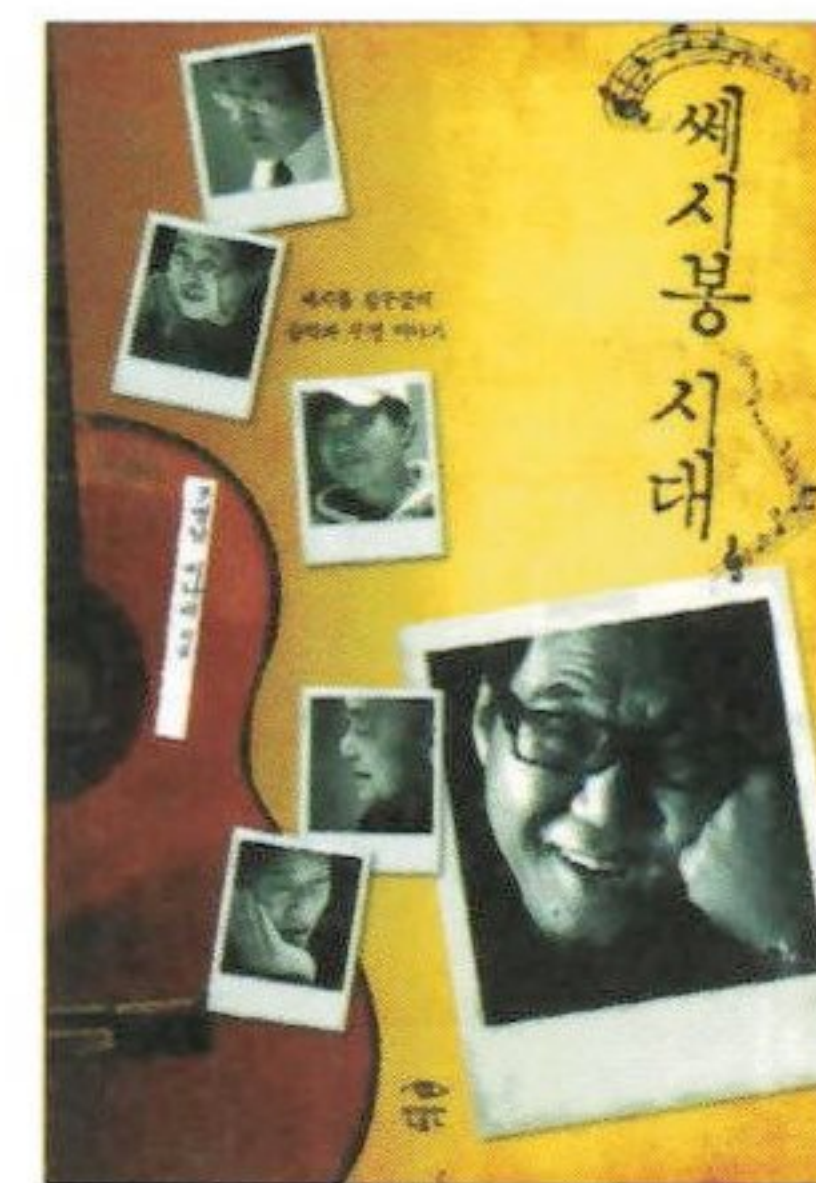


좋은 그림 좋은 생각

그림 공부
곧 사람 공부일 수도 있다

조정육 지음 / 아트북스
/ 271p / 13,800원

옛 그림과 생활 이야기를 접목시켜 주목을 받아온 조정육의 그림에세이. 저자가 월간지 <좋은 생각>에 '그림으로 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3년간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우리가 일상사에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한·중·일 삼국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그림들과 함께 엮어 들려준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동양의 문사철(文士哲)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산다. 그동안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딸로, 며느리로, 그리고 미술사를 가르치는 강사로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 발견한 '행복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독자들과 나눠왔다. 이 책에서는 표지 그림으로 실린 김정수 작가의 <축복>을 통해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안중식의 <도원문진>을 통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깨달음을, 최석운의 <순약질여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등 마음에 빛이 되는 40편의 그림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으며, 그림 공부 곧 사람 공부일 수도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썸시봉 시대

중·장년층에는 썸시봉의 추억을
젊은이에게는 당시 대중음악의 흐름을

조영남, 이나리 지음 / 민음인
/ 288p / 13,500원

2010년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놀러와-썸시봉 특집>이 전국적으로 '썸시봉 열풍'을 몰고 왔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다. 1960~70년대 포크 음악의 산실이었던 음악다방 썸시봉의 문화를 초창기 멤버인 가수 조영남이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냈다. 월간 <신동아>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조영남·이장희 등을 만나며 썸시봉 월드에 발을 들여놓은 이나리 씨도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조영남은 처음 어떻게 썸시봉에 발을 들여놓았는가에서 시작해 윤희주, 송창식, 김세환, 이장희, 김민기 등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노래하고 술 마시며 40년 우정을 쌓아 가는 과정이 유쾌하게 그려진다. 공저자 이나리는 시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그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추억 속에 남은 썸시봉 시대를 복원해내는 한편 그 주역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말미에는 한 시대를 풍미한 썸시봉의 음악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글도 함께 실었다. 중장년층에게는 썸시봉을 추억하는 시간이, 젊은이들에게는 당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책이다.

부산문화회관 제 5기 문화대학 개강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부산문화회관 문화대학 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는 제 5기 문화대학은 음악, 문학, 사진, 문화비평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고품격 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프로그램

9월 7일	DJ 도병찬의 영상음악 감상회(강사/도병찬 · KBS PD)
9월 14일	동화의 숲을 거닐다(강사/황선열 · 문화평론가)
9월 21일	책갈피 속의 흔적-고전과 가을(강사/정석희 · 도서평론가)
9월 28일	김홍희의 골목(강사/김홍희 · 사진작가)
10월 5일	문학과 죽음(강사/김성중 · 추리문학관장)
10월 12일	재미있는 서양음악사(강사/이동신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10월 19일	불멸의 작가 셰익스피어에 빠지다(강사/권오숙 · 영문학자)
10월 26일	대중문화 '썰시봉 열풍' (강사/김갑수 · 문화평론가)

- 신청기간 : 8월 16일(화)~8월 31일(수)
- 수강료 : 30,000원(교재비 포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FAX 접수(FAX 607-6049)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8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8월에도 펼쳐진다. 8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내사랑 부산공연 일환으로 8월 17일 남구도서관과 사상도서관, 26일 화명도서관에서 세차례 공연을 갖는다.

일정

8월 17일(수)	14:00	남구도서관 내사랑 부산공연(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8월 17일(수)	16:00	사상도서관 내사랑 부산공연(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8월 26일(금)	14:00	화명도서관 내사랑 부산공연(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예술에의 초대 영문 공연 달력 신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예술에의 초대 8월호부터 외국인 관람객들에서 맞춤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공연달력을 새롭게 제공한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그동안 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꾸준히 열어왔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부산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공연 서비스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자포르지에 필하모니 초청음악회

우크라이나 중동부 지방의 자포르지에市 교향악단으로 창단된 자포르지에 필하모니. 러시아 오케스트라답게 차이코프스키 음악이 많이 연주되었다. 평소 러시아 음악과 감성이 맞았던 나로서는 행복했던 무대. 특히 북구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던 나에게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박정희(동래구 안락1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1회 정기연주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작품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본 익숙한 선율인가 했더니 예전에 본 영화의 삽입곡이었다. '장엄한 음악적 대서사시' 라는 평가처럼 웅장한 선율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현란한 기교를 요구하는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테크닉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철호(금정구 장전동)

조지 윈스턴 부산 연주회

여름 초입에 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을 만났다. 미국 서부 몬타나의 대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들려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Summer Concert' 를 들으며 내 마음은 어느새 몬타나의 드넓은 자연을 달리고 있었다. 부산은 물론 의정부, 논산, 울주 등 8개 도시에서 감미로운 공연을 선사해준 대가의 배려에 한 번 더 감동 받았다.

-김승주(사하구 하단동)

부산시립합창단 도병찬과 함께 하는 팝 합창음악회

7080 세대들을 위한 부산시립합창단의 또 하나의 음악선물, 팝합창 음악회를 보는 것이 어느새 우리 가족의 연례행사가 되었다. 지난해는 공연 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내 마음도 옷도 축축이 젖었는데, 올해도 아련한 추억 속 팝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추억 여행을 즐겼다. 팝 명작 비틀즈의 주옥같은 멜로디에, 영화음악까지, 내년의 새로운 무대가 기다려진다.

-황숙정(동래구 안락동)

공포연극 '두 여자'

공포 영화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가 처음으로 공포연극에 도전했다. 포스터부터 예사롭지 않은 두 여자는 소재부터 심장이 식, 쌍둥이, 정신질환 등 소재 역시 공포스러웠다. 무대는 한 가정의 거실. 언제 귀신이 등장할지 가슴 졸이는 순간 두 여자와 함께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공포의 암전 속에 관객들의 비명까지 더해져 청각적 공포까지 몰려와 보는 내내 더위를 잊었다.

-정미정(북구 엄궁동)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에게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동해바다의 열정을 품고 있는 항구도시 포항

유난히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5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7월의 테마여행지는 동해 바다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여름 도시 포항. 특히 이번 테마여행은 지난 3월 경주여행에 이은 두 번째 기차여행이라 출발 전부터 정기회원 가족들의 설렘이 컸다.

여행 전날까지도 계속 내리던 비가 잠시 그친 8일 아침,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하나 둘 모여들자 조용하던 부전역 역사가 시끌벅적해진다. 잔뜩 찌푸린 날씨에도 오랜만에 떠나는 기차여행에 회원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번 여행에 동행하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윤은하, 이현주, 김태훈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부전역을 출발한 뒤 2시간 쯤, 경주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윤영숙 씨가 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대기하고 있던 포항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달리길 한시간 쯤, 이번 테마여행의 첫 목적지인 포항 호미곶에 도착했다. 금방 비라도 쏟아질 것 같던 부산 날씨와 달리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포항 날씨에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볍다.

새해 일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미곶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포항 관광의 1번지'.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1999년 12월 조성된 이 곳 해맞이 광장은 호미곶 등대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등대전문박물관인 국립등대박물관과 새천년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해맞이 광장에 도착하자 그 유명한 바다 위 조각상 '상생의 손'이 회원가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포항의 랜드마크가 된 '상생의 손'은 영남대학교 김승국 교수가 조각한 청동조형물로, 바다의 오른손과 광장의 왼손이 서로 마주보고 인류의 상생(相生)을 기원하고 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광장을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음 목적지인 포스코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 2002년 3월 15일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포스코는 국내 최초의 고로(高爐:용광로) 업체로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조강(粗鋼: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괴(鋼塊))로 한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알 수 있다) 생산량은 세계 4위, 광양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포스코에 도착하자 때마침 점심시간. 본격적인 견학에 앞서 다른 견학팀 방문객들과 어울려 포스코 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식사



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윤은하, 이현주 씨의 지도로 간단한 '우리춤 체조'를 배운 회원가족들은 근육을 풀어주는 시원한 스트레칭 동작에 잠시 피로를 잊는다.

점심 식사 후에는 포스코에서 직접 파견된 장미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본격적인 견학에 나섰다. 270여만평 규모에 세워진 포항제철소를 꼼꼼히 돌아보며 철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체상태의 반제품을 롤러로 연속적인 힘을 가해 늘리거나 얇게 펴는 '압연공정'은 공장내에 들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뜨거운 철 덩어리가 뿜어내는 열기와 냉각과정에서 뿜어져나오는 수증기가 가득한 공장 내부는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했다. 자동화 공정으로 쉴새없이 진행되는 생산과정에 회원가족들의 탄성이 연신 쏟아져나왔다. 1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공 역사를 보는 듯 했다.

포스코 견학을 마치고 달려간 곳은 함선체험관인 포항함. 지난해 6월 개관한 포항함은 천안함과 동일한 1천200톤급 초계함으로, 지난해 퇴역해 체험관으로 개방됐다. 포항함에 도착하자 뱃머리에 서있는故 한주호 준위 동상이 먼저 눈에 띈다. 특히 포항함은 해군생활과 함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함상체험관 외에도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46인 전사자와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자를 구조하다 순직한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안보관이 따로 마련되어 청소년들의 안보교육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 포항함 인근에 자리한 죽도시장은 50년 전 갈대밭이 무성했던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현재 점포수만 1,200여개에 달한다. 회원들은 모처럼 시장 나들이에 신이나 일행들과 시장구경에 나섰다. 저마다 한 손 가득 짐꾸러미를 들고 나타난 회원들은 부산으로 떠나는 KTX를 타기 위해 신경주역으로 향했다.

긴 장마 속에 잠시 얼굴을 내민 해처럼 일상 속의 작은 기쁨으로 다가왔던 7월 테마여행. 뜨거웠던 7월의 포항처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2011년 9월에는 **영천**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8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8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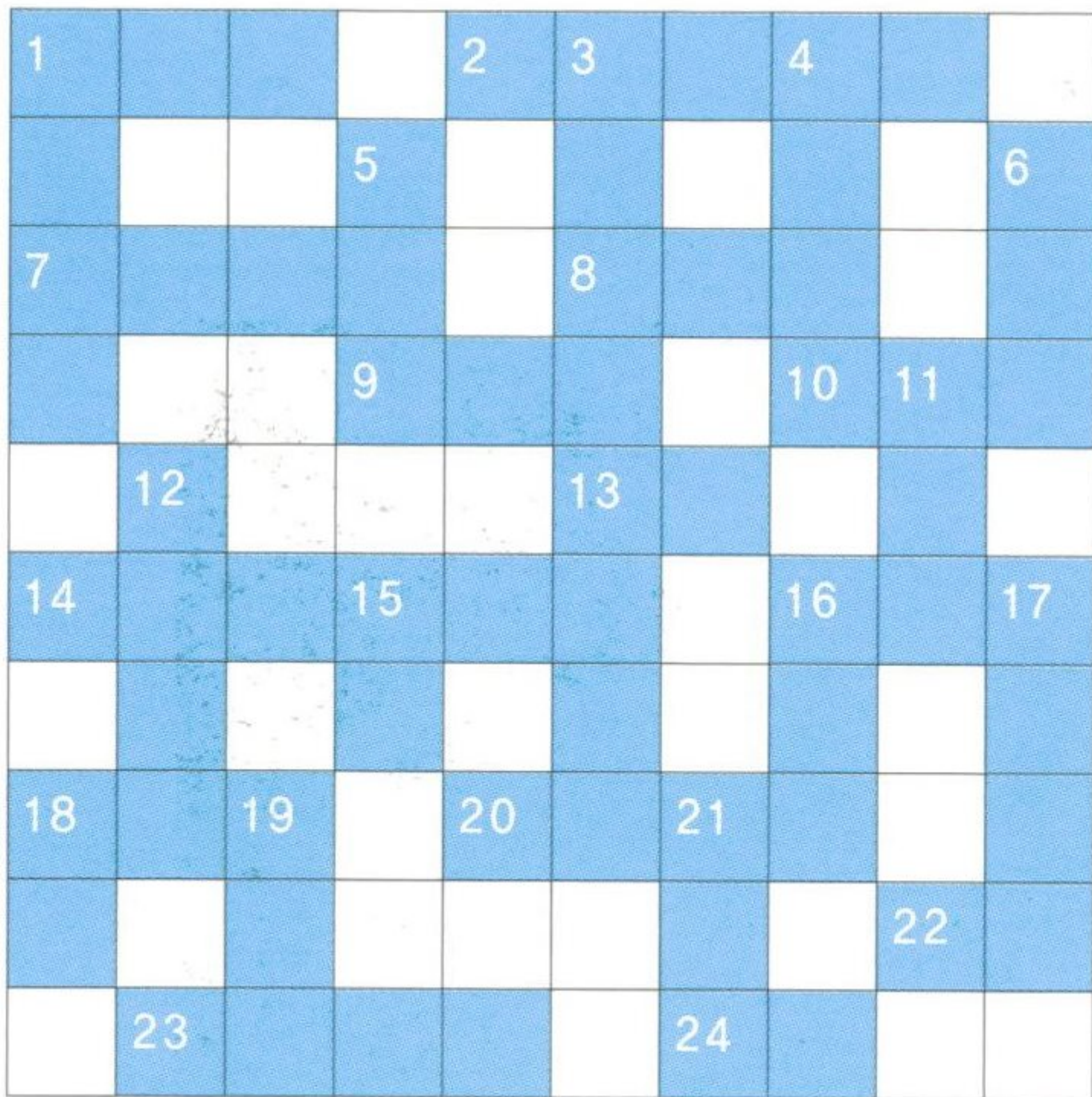
신규가입자

김덕용(남구 대연1동)
김영주(해운대구 반여1동)
박명자(수영구 망미1동)
서윤영(부산진구 부암3동)
신광현(사상구 주례2동)
송창식(해운대구 우동)
옥다빈(연제구 연산5동)
유현경(동래구 사직1동)
윤예림(연제구 거제3동)
최정현(동구 초량4동)

엽서당첨자

고원준(동래구 사직동)
김현정(해운대구 좌2동)
류기쁨(수영구 망미동)
박현비(남구 대연동)
이계영(울주군 온양읍)
이애진(서구 동대신동)
이준엽(금정구 장전2동)
최진훈(양산시 물금읍)
임서현(서구 아미2가)
함수정(동래구 안락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청소년 음악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지휘자. 8월 19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무대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 조선 효종 2년(1651)에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강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했다.
-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으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음을 이르는 말.
- 명태의 새끼.
- 넓은 음역과 뛰어난 가창 기교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킨, 오페라의 전설적인 프리마돈나.
-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예술무대. 원래 대사에 음악을 붙인 것으로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등으로 부르며, 서곡

- 이나 간주곡 등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 1963년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최초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 외형상으로는 로봇이지만 인간의 감정을 지닌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운다는 내용이다.
 - 똥똥한 외모의 10대 소녀가 TV 댄스경연대회를 통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브로드웨이 뮤지컬.
 -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며,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 조선시대 십이가사의 하나.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고 부귀와 장수를 빌며 술을 권하는 내용으로 '가곡원류'에 전한다.
 -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이자 문명비평가, 사상가.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이 있다.
 -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가곡으로, 2년 뒤에는 다시 이 곡의 선율을 주제로 '피아노 5중주곡'을 작곡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어'로 잘못 알려져 있다.
 - 그리스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금, 은, 청동, 철의 네 시대로 나눈 가운데서 첫째 시대로, 사회의 진보가 최고조에 이르러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찬 시대를 일컫는다.
 - 숫자 천(千)의 옛말.

세로열쇠

- 조선 세조 때에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 등 5편의 작품이 전한다.
- '남아메리카의 파리'라는 별명이 부쳐진 아르헨티나 수도.
-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쓴 각본.

-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호수. 199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벌판. 연중 대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나 짧은 여름 동안 지표의 일부가 녹아서 선태류와 지의류가 자라며, 순록의 유목이 행해진다.
- 어머니가 아들에게 연정을 품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다는 이야기로 '○○○복플렉스'라는 정신분석 용어를 남긴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
- 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사랑했지만 끝내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여인 리보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긴 작품으로 그의 세번째 작품집에서 발표, ○○○○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의 화폐 단위.
- 2006년 우리나라 영화사상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동물영화. 주인공인 개 ○○○와 두 오누이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2010년 속편이 제작되었다.
-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신과 똑같은 대상(환영)을 보는 현상을 일컫는다.
-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 우리나라 고유 현악기의 하나. 오동나무로 된 긴 공명판 위에 열두 줄의 명주 줄을 매고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낸다.
- 발레에서 여성 무용수가 신는 신발. 보통 분홍색의 새틴으로 만드는데, 끝을 아교로써 굳게 하고 뒤축이 없다.

지난호 정답

부	산	바	다	축	제	동	피	랑
산	로			천	자	문		
무	크	낙	새			서	동	요
용		관	천	수	다			들
제	헌	절	승	마			스	
	법	여	도	니	체	티		
이	재	수	의	난	르		븐	
	판	도		쿠	바		킹	콩
김	소	희		대		나	사	트
구		극	장	전			리	뷰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 김정화(사하구 괴정동)
- 성송은(해운대구 우2동)
- 석형택(수영구 민락동)
- 최성숙(금정구 부곡4동)
- 최정미(양산시 물금읍)

나랏소

- 김영란(남구 대연동)
- 박미정(중구 중앙동)
- 정다윤(연제구 거제3동)
- 황정수(영도구 영선동)
- 강은주(남구 대연4동)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현주(연제구 거제3동)
- 이복자(강서구 송정동)
- 박선자(사상구 주례2동)
- 옥다혜(연제구 연산5동)
- 정미옥(사하구 장림1동)

큰집

- 김기영(연제구 거제1동)
- 남하윤(서구 서대신동3가)
- 노혜윤(서구 충무동)
- 윤지현(서구 초장동)
- 정예린(사상구 주례3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만을 고집합니다

나랏소
안주 숯불구이 곱창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August 2011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Galleries

Ⓞ Busan Metropolitan Viewing
stone Exhibition
8.20(Sat)~8.21(Sun)
Kim Jongbok(010-6572-4679)
Ⓞ Grand Gallery

Ⓞ Busan Art Fair Artists
Exhibition
8.24(Wed)~8.27(Sat)
Busan Cultural Foundation
(745-7233)

Ⓞ Busan Korean Painting
Exhibition
8.29(Mon)~9.4(Sun)
Busan Art Association
(632-2400)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The 20th National dance festival delegation
conference
8.4(Thu) 15:00
Busan Dance Association
(623-5117,010-5362-638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B.C.C./Busan Cultural Center
•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B.G.C./Busan Metropolitan Boys & Girls Choru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A midsummer night's concert 19:30
₩20,000 · ₩5,000
Busan Art planning(016-9317-4728)

Ⓞ Youth camp living a dream 19:00
INDIGO SOWON(628-2897)

Ⓞ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Ukulelepnic' 20:00
₩30,000/B.C.C(607-6058)

Ⓞ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Chorus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14

15

16

17

18

19

20

Ⓞ Busan-Chicago sister cities
International events 'Mark Damisch
concert for the mentalhealth' 19:00
Invitation
Sharing and happiness hospital(507-8008)

Ⓞ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Cool concert'(Enjoy the
sounds of th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along with the cool
and delicious Korean summer dessert
'Patbingsu' for no extra) 19:30
₩20,000 · ₩10,000/B.M.T.O(607-3121~4)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for young people' 11:00, 16:00
₩10,000/B.P.O(607-3111~3)
Ⓞ English musical 'The Wizard of Oz'
16:00, 19:30
₩20,000/Dream children(010-7503-6564)

Ⓞ Busan Clarinet Choir Concert 'Let's
Dance' 19:00
₩10,000 · ₩5,000
Busan Clarinet Choir(010-8280-4646)
Ⓞ Saturday Regular Stage
-Music continent Ga.I.A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21

22

23

24

25

26

27

Ⓞ Oh Jooyoung in Concert 19:30
₩60,000 · ₩50,000 · ₩40,000 · ₩30,000 ·
₩20,000/Busan Art(1600-1803)

Ⓞ Busan Metropolitan Chorus 'Busan,
Ulsan, Kyeong-nam City Exchange Concert'
19:30 ₩5,000/B.M.C(607-3141~4)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for Children' 11:00, 16:00
₩2,000/B.P.O(607-3111~3)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for Children' 11:00, 16:00
₩2,000/B.P.O(607-3111~3)

Ⓞ Peniel arts highschool 'peniel dance art
festival' 19:30 invitation
Peniel arts highschool(582-7671)

Ⓞ 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 'Concert followed by conductor's
commentary' 18:00
Invitation/B.M.B.G.C(607-3161~2)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pecial Performance 'A Midsummer
Night's Dance Performance-Speak your
mind' 19:30
₩5,000/B.M.D.C(607-3131~2)

Ⓞ The 21st Busan Amateur Concert, 2011
19:30
₩12,000 · ₩10,000/Busan Music(634-1295)

Ⓞ Jang Raehoon dance 19:30
Invitation/Jang Raehoon(010-3837-7786)

Ⓞ Trio J in Concert 19:00
₩15,000/Heo Jiyeon(010-2031-7209)

Ⓞ Saturday Regular Stage
-Jung shihye Dance company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28

29

30

31

9/1

9/2

9/3

Ⓞ The 17th Annual Busan YMCA Youth
Orchestra concert 17:00
₩2,000/Busna YMCA(010-3661-6806)

Ⓞ United Korea Orchestra 'Love and
sharing concert for incurable children'
19:30 ₩20,000/U.K.O(011-589-3111)

Ⓞ The 16th Annual Kosin Medical school
Symphony Orchestra concert 19:30
Free/Yim Joonhyun(010-8469-9641)

Ⓞ The 2011 2n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Opening] 'Tokyo City
Philharmonic Orchestra' 19:30
₩40,000 · ₩30,000 · ₩20,000 · ₩10,000
Busan Maru(070-7687-8291)

Ⓞ The 12th Busan Chamber Music Festival
19:30
₩12,000 · ₩10,000/Busan Music(634-1295)

Ⓞ The 2011 2n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Busan National Korean
Traditional Music Academy Orchestra' 19:30
₩40,000 · ₩30,000 · ₩20,000 · ₩10,000
Busan Maru(070-7687-8291)

Ⓞ Art Dream Festival Orchestra 19:30
₩20,000 · ₩10,000
Kim Sangchul(010-3372-8015)

Ⓞ The 2011 2n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hamber Music Night' 19:30
₩40,000 · ₩30,000 · ₩20,000 · ₩10,000
Busan Maru(070-7687-8291)

Ⓞ The 2011 2n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he Migratory birds Family
concert' 19:30
₩40,000 · ₩30,000 · ₩20,000 · ₩10,000
Busan Maru(070-7687-8291)

Ⓞ The 2011 2n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Final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 · ₩7,000 · ₩5,000
B.P.O(607-3111~3)



2011년 8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전시실일정

대 제 28회 (사)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 회원전
8월 20일(토)~8월 21일(일)
김종복(010-6572-4679)

대 2011 부산전업미술인 아트페어
8월 24일(수)~8월 27일(토)
* 오픈식 : 8월 24일(수) 17:00
부산문화재단(745-7233)

대 2011 제 20회 부산한국화전
8월 29일(월)~9월 4일(일)
* 오픈식 : 8월 29일(월) 18:00
부산미술협회(632-2400)

국제회의장

제 20회 전국무용제 대표자회의
8월 4일(목) 15:00
부산무용협회(623-5117, 010-5362-638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1	2	3	4	5	6
7	8 대 한 여름밤의 콘서트 19:30 2만원·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9	10	11 소 2011 인디고서원 방학예술캠프-인문학콘서트 '사랑하다, 책을 펼쳐놓고 읽다' 19:00 인디고 서원(628-2897)	12 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2, 우물쭈레 피크닉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3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즐거운 여름의 캠프송'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4 대 부산-시카고 자매도시 국제교류 행사 'Mark Damisch 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나눔과 행복 음악회' 19:00 초대/나눔과행복병원(507-8008)	15	16	17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방수와 같이 시원한 콘서트' 19:30 2만원·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18	19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영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6:00, 19:30 균일 2만원/꿈꾸는 아이(010-7503-6564)	20 중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정기연주회 'Let's Dance' 19:00 1만원·5천원 부산클라리넷콰이어(010-8280-4646) 소 토요상설무대-음악대륙 가이아 공연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1	22 대 제 4회 국제광고제와 함께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콘서트 19:30 6만원·5만원·4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	23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함창으로 하나 되는 여름밤'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중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1.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마음을 이야기하다'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4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1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 11:00, 16: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5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1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 11:00, 16: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6 대 2011년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발표회 19:30 초대/브니엘예고(582-7671) 중 2011 제 21회 부산신인음악회 19:30 1만2천원·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Trio J 창단연주회 19:00 균일 1만5천원 허지윤(513-7209, 010-2031-7209)	27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음악회 '청신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한국동요, 가곡, 민요 18:0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중 장래훈 개인총판 19:30 초대/장래훈(010-3837-7786) 소 토요상설무대-정신해무용단 공연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8 중 부산 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17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2천원/양지성(010-3661-6806)	29 대 U.K.O오케스트라 제 23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재(011-589-3111) 중 고신외대관현악단 제 16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임준현(010-8469-9641)	30 대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 '도쿄시타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30 4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 중 2011 제 12회 부산실내악페스티벌 19:30 1만2천원·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31 대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19:30 4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 중 Art Dream Festival Orchestra 창단연주회 19:30 2만원·1만원/김상철(010-3372-8015)	9/1 중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실내악의 밤' 19:30 4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	9/2 중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철새악사와의 가족콘서트' 19:30 4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	9/3 대 제 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제5기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제 5기 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운영기간** 2011.9.7~10.26 / 기간 중 총 8회 실시
- 시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 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모집인원** 100명 (일반인) ▷ 선착순 접수
- 신청기간** 2011.8.16(화)~8.31(수)
-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방문접수 or 팩스 (607-6049) 접수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1.9.2(금)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하며, 접수명단은 매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교육강사** 국내문화예술계 저명인사
- 수강료** 30,000원 (교재비 포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 607-6044, 6057 문화대학 담당자
- 강좌일정**

1주 (9/7) 도병찬 팝 음악 해설자	DJ도병찬의 영상음악 감상회		5주 (10/5) 김성중 추리문학관 관장	문학과 죽음	
2주 (9/14) 황선열 문화평론가	동화의 숲을 거닐다		6주 (10/12)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재미있는 서양음악사	
3주 (9/21) 정석희 도서평론가	책갈피 속의 흔적 고전과 가을		7주 (10/19) 권오숙 영문학자	불멸의 작가 셰익스피어에 바지다	
4주 (9/28) 김홍희 사진작가	김홍희의 골목		8주 (10/26) 김갑수 문화평론가	대중문화 '세시봉 열풍'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2011년 9월 2일 금요일 별의 도시 영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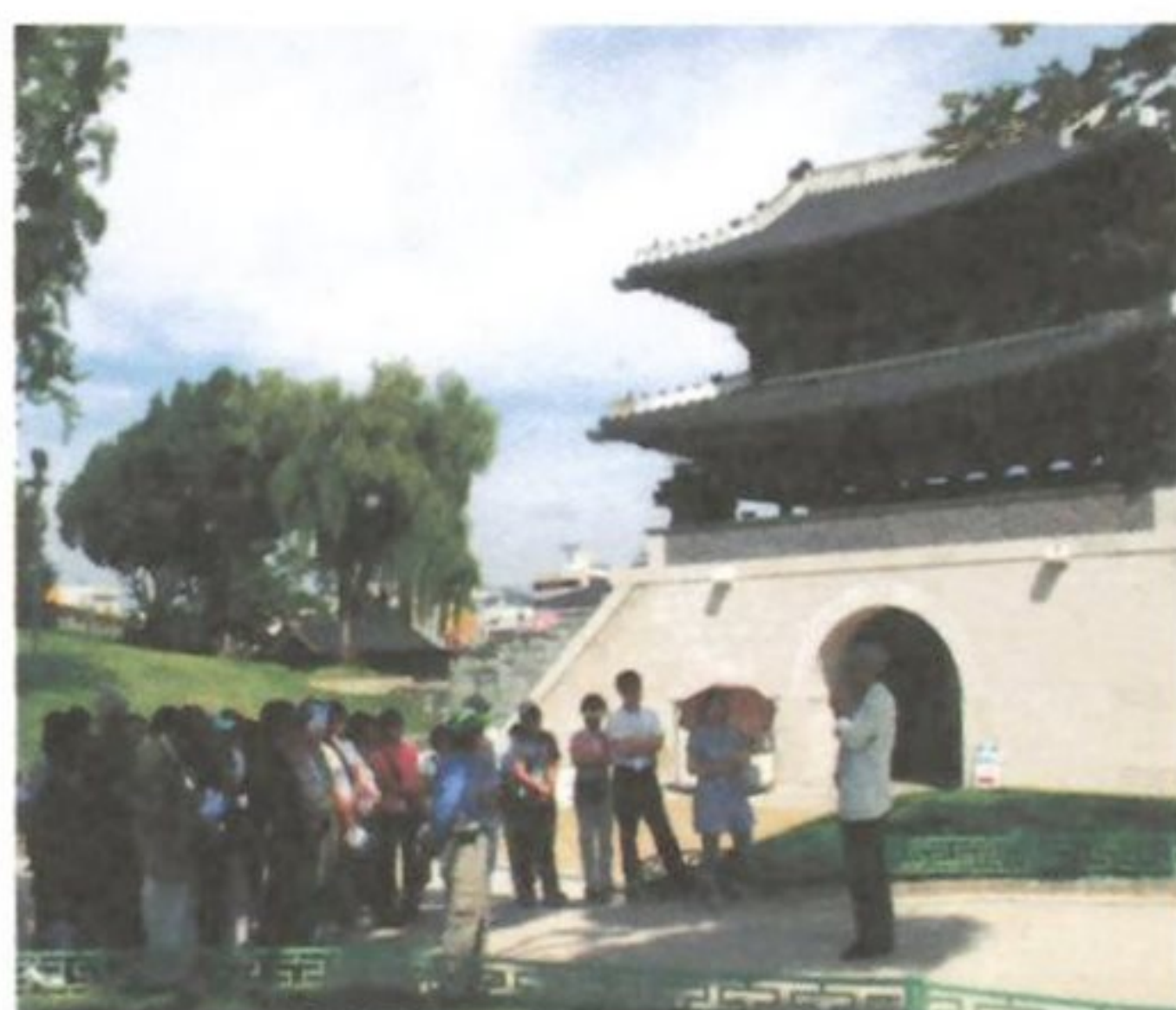
시안미술관

아름다운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늦여름 여행.

영천의 정신적인 지주인 포은 정몽주의 유패를 모신 임고서원, 폐교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한 시안미술관, 별빛 포도 수확 체험으로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영천 농업기술센터 도착, 포도수확 및 와인담기체험
- ▶ 12:30 중식
-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4:00 영천 문화탐방(임고서원, 시안미술관)
- ▶ 16:30 부산으로 출발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 충절의 고장 진주 가을 여행



진주성

진주성 대첩의 영웅 김시민 장군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의 구국훈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진주로 떠나는 10월 여행.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꿈꾸었던 죽곡전통삼베마을에서 풍성한 농촌의 가을을 만끽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진주도착, 진주성, 진주국립박물관, 축석루 탐방
- ▶ 12:30 중식
- ▶ 13:00 삼베전시관, 남악서원 탐방,
- ▶ 14:00 삼베 염색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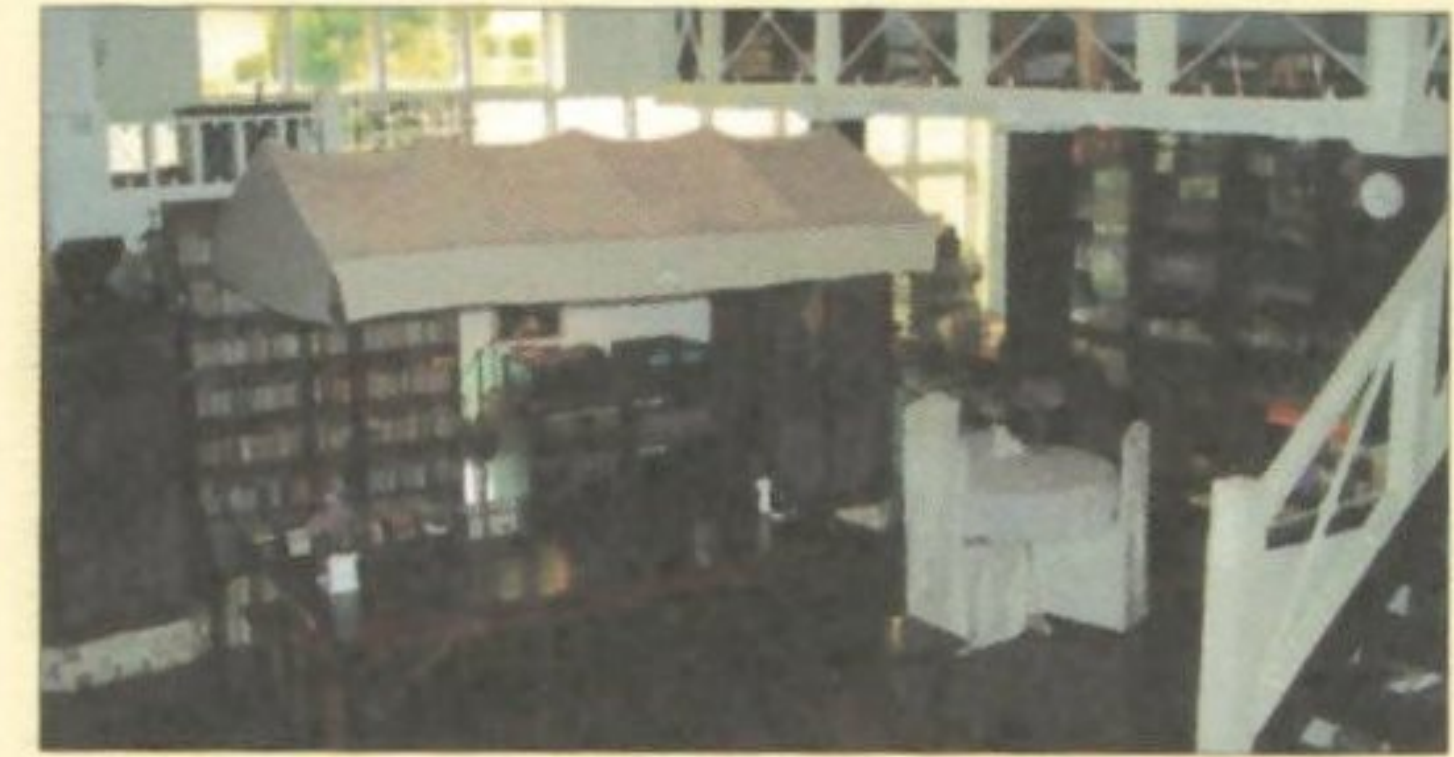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넌센스'** 20% 할인



2011.8.12(금) ~ 9.12(월)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8.16 공연 없음)

▶ 입장권: 균일 4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 ~ 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 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공포연극 **'다락'** 20% 할인



2011.7.15(금) ~ 8.7(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7:30, 9: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휴관)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얀리본 콘서트 Yesterday
시청앞 지하철역의 거리에서 예화등으로 걸어오며
자음 번데기는 오린 가을하늘을 바라보고서
'넌 사랑하겠어' 라고 편지를 쓸까 고민하던
우리가 세상에 잠들기 이전의 이야기들...
2011. 9.16(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주 관_ 부산문화회관 문 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입장권_ 전석 3만원 예 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Blank area for answer 1]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Blank area for answer 2]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Blank area for answer 3]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펜스 입니다”



사업분야

경화제사업(Hardner)

- 각종 수지의 고무, 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 가교제, 개질제, 경화제 등에 사용

수지사업(Resins)

-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첨가제사업(Additives)

-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 나노항균코팅첨가제에 사용

기타상품(Others)

-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부산·울산·김해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합창으로 하나 되는

여름밤

〈150인의 대합창〉



지휘 김강규



〈특별연주〉
베이스 유형광

2011. 8. 23(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1. 8. 25(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1. 8. 30(화) 19:30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입장권_ 균일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